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0 9 Vol.225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무대에 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2011년 상반기 부산문화회관 정기대관 안내

- **대 상** 극장(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전시실(대전시실, 중전시실)
- **대관기간** - 극 장 : 2011년 1월 1일 ~ 2011년 6월 30일
- 전시실 : 2011년 1월, 5월~6월 ※ 2월~4월(3개월간) 전시실 리모델링 추진 예정
※ 극장무대보수 및 시설 점검일은 대관일에서 제외 ▷▷ 접수 상담시 안내
※ 시립예술단 및 시 자체 공연·행사·전시 우선 배정 ▷▷ 접수 상담시 안내
- **접수기간** 2010년 9월 13일(월) ~ 10월 1일(금) - 3주간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대관심의 및 결정 통보** 접수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용허가 통보
- **기본방향**
 - 순수문화예술 공연 우선 ▷▷ 대중 예술 공연 제한적 허용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종합예술공연 진흥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 창작 또는 유망신인 작품 발표 기회 제공
-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상담(구두, 전화) ▷▷ 신청 및 접수(적정여부) ▷▷ 대관심의(일정조정) ▷▷ 통보
- **대관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되지 아니하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납부**
 -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 허가 후 30일 이내 납부, 계약체결
 - 잔 금 : 공연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 기한 내 사용료 미납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문 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운영담당(051-607-6051~6)



Busan Symphony Orchestra Symphony Series II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교향곡 시리즈 II

Program

DVORAK Slavonic Dances in C Major, Op.46(B83) No.1
드보르작 슬라브무곡 다장조 작품번호46 제1번

DVORAK Cello Concerto in B minor, Op.104(B.191)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번호 104

DVORAK Symphony No.8 in G Major, Op.88(B163)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 사장조 작품번호88

첼로 양욱진 (인제대학교 교수)

교향곡 시리즈 I 연주장면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0. 9. 14 (화) pm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영도문화예술회관 주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람료 10,000원 (정기회원, 학생 50%할인) 문의 051) 419-5561~5

◆ 본 공연은 2010년 BSOF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지휘 이기균 (경성대학교 교수)



김현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DYNAMIC BUSAN



이은민

DYNAMIC BUSAN 2nd GRAND CONCERT

다이나믹 부산 제2회 그랜드콘서트



전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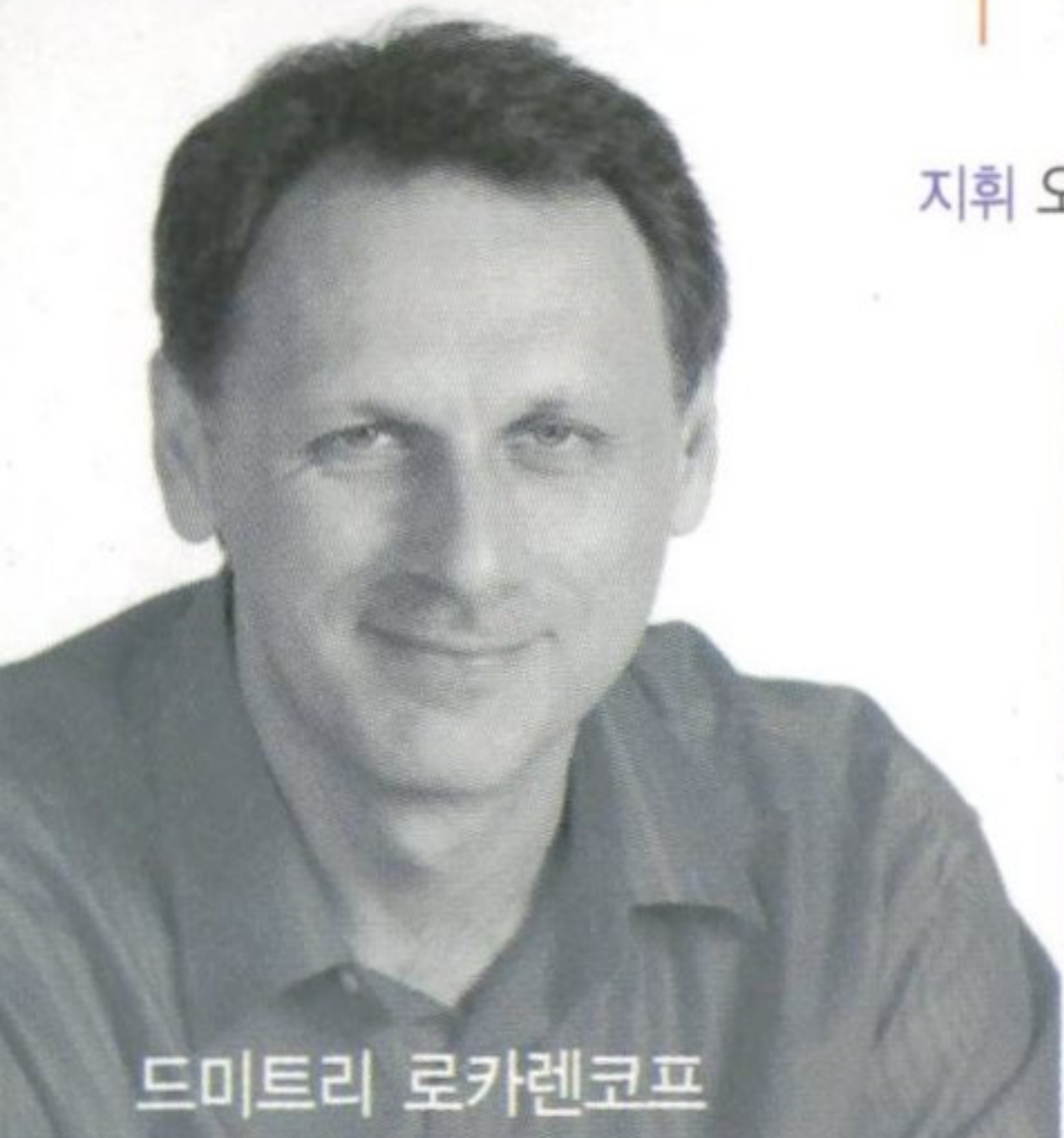
2010. 10. 18 (월) pm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2010. 10. 19 (화) pm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박현정

지휘 오충근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연 소프라노 김현애(18일), 박현정(19일) / 테너 전병호(18일), 이은민(19일) / 바리톤 장은익 /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장은익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주관 을숙도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협찬 부산은행

문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www.bso21.com 010-8508-8310 | 동래문화회관 culture.dongnae.go.kr 051)550-4481-2 | 을숙도문화회관 www.eulsukdo.busan.kr 051)220-5811
티켓 전석초대 (초대권 지참, 선착순 입장)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A Dwarf who loved Snow White

2010. 10.2(토)~10(일) 12회
평일 오후 7시 30분 / 토·일 오후 3시, 6시



입장료 : 1층(R석) 33,000원 2층(A석) 22,000원

조기예매 : 20%할인(~8/31) | 가족권 : 99,000원(4인가족) 25%할인 | 누리회원·다자녀가정 : 25%할인 | 유·초·중·고 20%할인

단체 20명이상 : 30%할인 |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 50%할인

※누리회원카드, 학생증, 장애인 카드 등 확인 후 매표소에서 티켓 발부

주 최 : 해운대문화회관

예매 및 문의 : 인터파크 / 해운대문화회관(051-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함께하는

BRUNCH 테마가 있는 브런치콘서트 CONCERT



일 시 09.07(화), 10.12(화), 11.09(화)
▶ 11:00~12:20 (총 80분)
장 소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5,000원 (누리회원 20% 할인)
주 최 해운대문화회관
예매 및 문의 티켓링크 / 해운대문화회관(051 749 7651)



목요 미니 콘서트 "끌림"

특크기 있는

축여여행

9월~12월 셋째주 목요일 ▶ 19:30(80분)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 입 장 료 10,000원 (선착순 100명)

❖ 할 인 정 보 누리회원 30% 할인

❖ 주 최 해운대문화회관

❖ 예매 및 문의 티켓링크 / 해운대문화회관 (051 749 7651)



Contents



08 커버스토리

2010 제 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10 프리뷰

14 문화가 화제

2010 부산비엔날레 '진화속의 삶(Living in Evolution)'

16 반갑습니다

문화대학 강사로 부산 찾는 철학자 강유원

18 은현리 풍경 속에서 詩를 읽다 ㉠

미나리 꽃밭에서의 눈물과 작별 | 정일근

20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베네치아의 무라노 섬 | 이승주

24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

영화 '판타지아' | 이동신

26 불멸의 거장, 치바이스 ①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치바이스 | 김남희

28 나의 애청음반

극광의 신비 시벨리우스 바이올린협주곡 | 김의호

29 헬로우 부산, 원더풀 코리아

미국식 결혼 | 다이앤 스틸명크스

30 그곳에 가면

문화향기 가득한 도요예술인촌

32 리뷰

'부·울·경' 꿈의 합창축제 | 하순봉

제 5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만난 작품들 | 김희진

34 우리는 문화가족

연극과 소통하는 아마추어 연극인 모임 '부산연극지기'

36 프로그램 가이드

53 100자 토크

54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56 부산문화회관 소식

예술의 초대 2010 + 09 Vol. 225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0년 8월 25일

인쇄처 | 신우정판사 Tel.051-469-2661~2 Fax.051-469-0710



SUN MON TUE

5

중 | 20101 제 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 콘서트-로제앙상블 연주회 19:30
무료/부산마루국제음악제(070-7687-8292)

6

중 | 제 11회 고태국선생 추모 부일성악콩쿠르 14:00 부산일보사(461-4433~8)

7

중 | 테너 오동주의 2010 September Story 19:30
균일 2만원/오동주(010-4556-5058)

12

중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30회 정기연주회 창작가족오페라 '공쥐팔쥐' 17:00
균일 5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13

중 | 제 11회 고태국선생 추모 부일성악콩쿠르 13:00 부산일보사(461-4433~8)

14

중 | 서윤진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서윤진(019-353-5930)

19

중 | 제 81회 부산, 영남 무용예술제 09:00
정성철(02-866-8880, 011-284-8880)

20

21

26

중 | 동그라미 노래모임 제 15회 정기공연 16:00
균일 1만원/윤용록(751-8256, 017-554-0408)

27

중 | 제 14회 조현선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28

중 | 독우회 제 41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소 | 소프라노 김지현 프렌치 샹송과 아리아 20:00
초대/김지현(010-3504-3201)

국제회의장

- ▶ 부산문화회관 제 4기 문화대학
9월 1일(수)~10월 27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2:00
9/1일 강유원(철학자)
'자각적 삶을 위한 인문학 공부'
9/8일 차재근(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회장)
예술의 힘-런던, 베를린, 카라카스, 부산
9/15일 변지연(배우)
심장의 소리를 찾아오
9/29일 박경효(동화작가)
전래설화 다시보기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607-6046, 6057)

전시실

- ▶ 아시아 수채화 대전
8월 23일(월)~9월 3일(금) - 대, 중전시실
문의 : 부산수채화협회
(011-9549-3939, 010-9878-0222)
- ▶ 2010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한-중-일 지금의 작가전'
9월 12일(일) ~ 9월30일(목) - 대, 중전시실
문의 :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503-6579)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WED	THU	FRI	SAT
1	2	3	4
<p>중 제 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 콘서트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연주회 19:30 무료/부산마루국제음악제(070-7687-8292), 이원기(010-8280-4646)</p>	<p>소 제 2회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19:30 초대/엄남이(010-7519-9843)</p>	<p>중 제 11회 고태국선생 추모 부일성악콩쿠르 14:00 부산일보사(461-4433~8)</p> <p>소 하지희 가야금 독주회 '어느 푸른 날' 19:00 초대/하지희(010-9310-3966)</p>	<p>중 제 11회 고태국선생 추모 부일성악콩쿠르 14:00 부산일보사(461-4433~8)</p>
8	9	10	11
<p>중 소프라노 김윤희 독창회 19:30 균일 2만원/예술기획(0505-700-9798)</p>	<p>소 한 퍼포먼스 컴퍼니 기획공연 한수정의 'ICE BABY' 19:30 1만5천원·1만원/한수정(017-575-2147)</p>	<p>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3 정재형이 만드는 음악회 '르쁘띠 피아노 그 첫 번째...'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30회 정기연주회 창작가족오페라 '공쥐팔쥐' 17:00 2만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15	16	17	18
<p>중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제 3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5천원/노은주(010-2565-9780)</p>	<p>중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6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중 김영미 플룻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김수경(010-9443-9911)</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22	23	24	25
			<p>중 뮤직합창단 제 5회 정기공연 '포레 레퀴엠' 19:30 균일 5천원/강영옥(010-2307-6922)</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거문고악회 연주회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29	30	10/1	10/2
<p>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36회 정기연주회 '프랑스 음악의 밤'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중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2010 웰빙콘서트III '미뉴에트와 스케르초'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소 마임이스트 김세진 마임10주년기념 극단 세진 지니 마임페스티벌II 17:00, 20:00 1만5천원·1만원(5시공연 균일 1만원) 김세진(623-0678, 010-5530-5041)</p>	<p>중 2010 이명진 첼로 독주회 2B+S 두번째시리즈 19:30 2만·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소 마임이스트 김세진 마임10주년기념 극단 세진 지니 마임페스티벌II 17:00, 20:00 1만5천원·1만원(5시공연 균일 1만원) 김세진(623-0678, 010-5530-5041)</p>	<p>중 유엔의 날 기념 참전군 군악대 초청연주회 15:00 균일 1만원/부산광역시 국제협력과(888-3536)</p> <p>소 10월의 멜로디 19:00 초대/강혜인(010-9350-6076)</p>

• 이 공연 전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 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2010 제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2010 1st.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FRENCH FRAGRANCE
프랑스의 향기

9월 8일(수)~12일(일) 부산시민회관, 을숙도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등

2010년 9월,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부산의 특별한 가을을 연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누리마루’와 같이 세계 최고의 국제적인 음악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마루’는 ‘지붕이나 산 꼭대기’를 뜻하는 순 우리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감독으로 참가, 우리 음악계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첫 테마는 ‘프랑스의 향기’. 강동석을 비롯하여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스칼 드보이용, 클라리네티스트 로망 귀요, 첼리스트 엠마뉴엘 베르트랑과 부산시립교향악단(지휘/리 신차오), 화음첼버오케스트라, 상하이페스티벌오케스트라(지휘/슈 쩡) 등이 부산 전역에 ‘프랑스의 향기’를 전해준다.

음악감독 강동석은 탁월한 예술성과 투철한 음악가 정신, 대가적 기교로 찬사를 받고 있는 세계적인 연주자다. 8세에 첫 연주회를 가져 ‘신동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며 일찍부터 재능을 드러냈던 그는 12살 때 동아콩쿠르에서 대상을 받고, 1967년 뉴욕 줄리어드 음악학교를 거쳐 커티스 음악원에서 이반 갈라미언을 사사했다. 1971년 17세의 나이로 미국 음악계가 가장 주목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재단 콩쿠르와 워싱턴의 메리웨더 포스트 콩쿠르에서 연달아 우승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특히 강동석은 세계 3대 바이올린 콩쿠르인 몬트리올 콩쿠르, 런던 칼 플레쉬 콩쿠르, 브뤼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차례로 석권해 대가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2000년부터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99년부터 강동석과 함께 프랑스 뮤직알프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피아니스트 파스칼 드보이용은 부산음악 애호가들과 친숙하다. 1978년 프랑스 출신 피아니스트로서는 처음으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은메달을 수상하면서 명성을 알리기 시작한 파스칼 드보이용은 파리 음악원에서 피아노 교수로 재직 후 1996년부터는 베를린 대학 음대교수로 재직 중이다.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비롯하여 바르톡이나 메시앙과 같은 현대 음악가들이 만든 20세기 작품까지 그의 레퍼토리의 폭은 넓고 다양하다.

클라리네티스트 로망 귀요는 16세의 나이로 파리 국립음악 학교에 입학하였으며, 거장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러피안 유스 오케스트라와 파리 오페라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 주자로 활동했다.

첼리스트 엠마뉴엘 베르트랑은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콩쿠르 우승, 일본 실내악 음악 콩쿠르 1위, 빅투아르 드 라 뮤지끄 어워드에서 젊은 솔로 연주자 부문 우승으로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로망 귀요와 엠마뉴엘 베르트랑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무대를 연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피날레는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슈쥬이 지휘하는 상하이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장식한다. 2006년 창단된 상하이페스티벌오케스트라는 상하이 오리엔탈 아트센터의 상주 오케스트라로 슈쥬이의 지휘 아래 중국 안팎 최고의 뮤지션들로 창단된 ‘엘리트 오케스트라’이다. 지휘자 슈쥬이는 제 1회 하마마츠 국제피아노콩쿠르, 스페인 산탄데르 국제피아노콩쿠르, 제 5회 도쿄 국제피아노콩쿠르, 모스크바 차



① 화음챔버오케스트라 ② 바이올리니스트 박재홍 ③ 피아니스트 파스칼 드바이용 ④ 상하이페스티벌오케스트라 지휘자 슈 쩡 ⑤ 피아니스트 김영호 ⑥ 첼리스트 엠마뉴엘 베르트랑 ⑦ 음악감독 강동석

이코프스키 국제피아노콩쿠르 등 유명 국제 대회에서 입상한 바 있다.

그 외 국내연주자로는 코슈즈코 쇼팽 콩쿠르, 헬렌 하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 프리나 아워버크 국제 피아노 콩쿠르, 리더 크란츠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영호, 25세의 나이에 홍콩 필하모닉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며 'Strictly Strings'의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재홍, '완벽한 테크닉과 파워풀하면서도 따뜻한 소리를 바탕으로 한 인상적이며

호소력 있는 연주'를 들려주는 비올리스트 김상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비올리스트 김가영, 세계적인 첼리스트 Natalia Gutman이 극찬한 우리나라 최고의 첼리스트 중 한명인 동아대학교 이명진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2005 올해의 예술상 음악부문 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화음챔버오케스트라가 새로운 음악 역사를 쓴다.

음악제에 앞서 9월 1일부터 7일까지 부산, 경남의 연주단체, 개인 연주자 42개 팀이 참가하는 프린지콘서트로 축제 분위기를 돋우어준다.

• 9월 8일(수)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개막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리 신차오, 첼로/엠마뉴엘 베르트랑, 클라리넷/로망 귀요)

• 9월 9일(목)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Happy Birthday/해피 버스데이

(바이올린/강동석, 박재홍, 피아노/김영호, 파스칼 드바이용, 비올라/김상진, 클라리넷/로망 귀요, 첼로/엠마뉴엘 베르트랑)

• 9월 10일(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Souvenirs/추억

(클라리넷/로망 귀요, 피아노/파스칼 드바이용, 김영호, 첼로/엠마뉴엘 베르트랑, 이명진, 바이올린/강동석, 박재홍, 비올라/김상진, 김가영)

• 9월 11일(토) 오전 11: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Tasting Menu/맛보기 메뉴

(바이올린/강동석, 박재홍, 비올라/김상진, 김가영, 첼로/이명진, 엠마뉴엘 베르트랑, 피아노/김영호, 클라리넷/로망 귀요)

• 9월 11일(토)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연주회

(바이올린/강동석, 피아노/김영호)

• 9월 12일(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폐막연주 상하이페스티벌오케스트라

(지휘/슈 쩡, 피아노/파스칼 드바이용)

• 문 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추진사무국(070-7687-8291~2)

제 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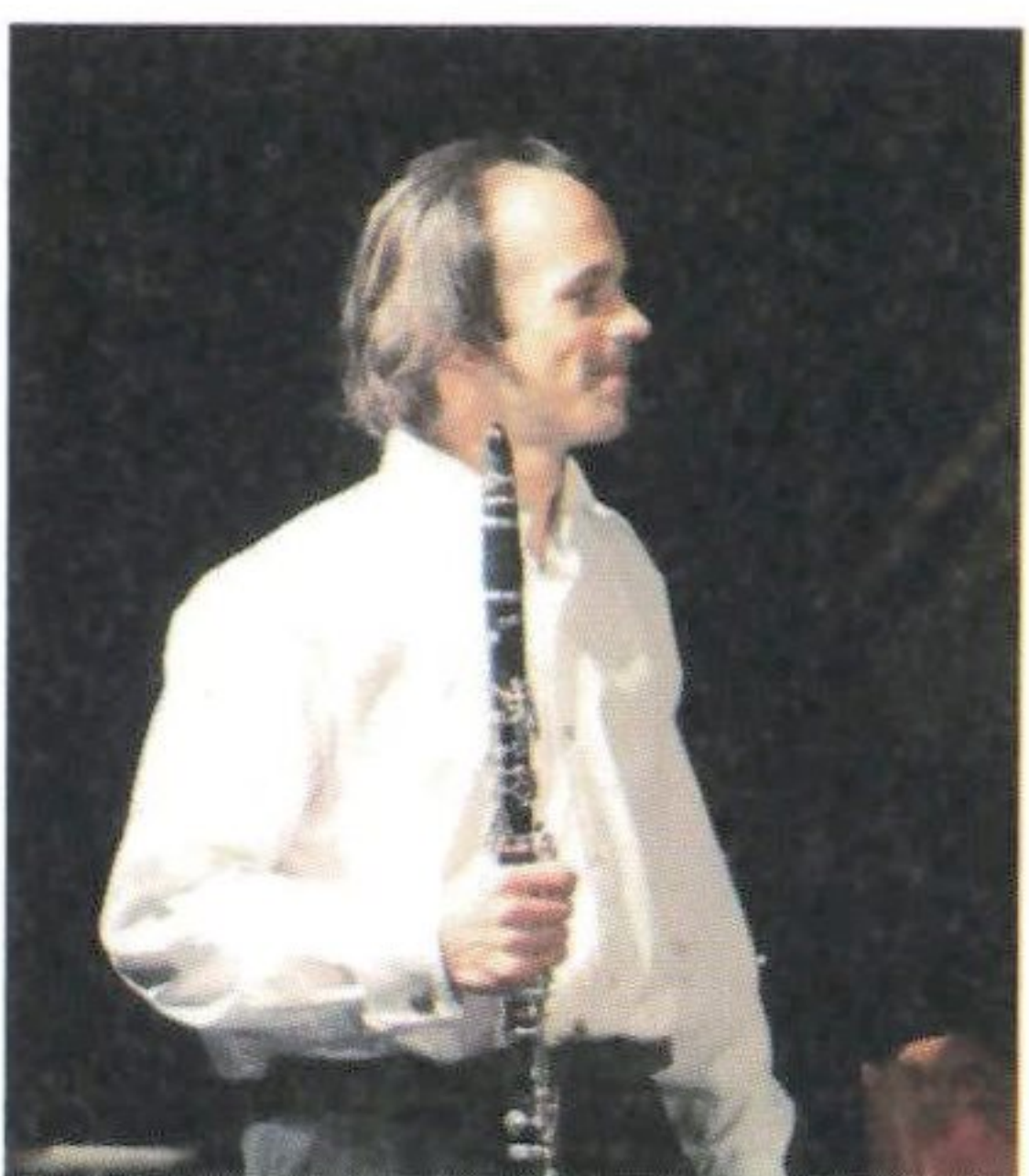
9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지휘 리 신차오



첼로 엠마뉴엘 베르트랑



클라리넷 로망 귀요

2010년 가을, 부산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연주가 9월 8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막이 오른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세계적인 첼리스트 엠마뉴엘 베르트랑, 클라리네티스트 로망 귀요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세계 최고의 국제적인 음악제를 지향하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의지를 화려한 선율에 담아 들려준다.

협연자 엠마뉴엘 베르트랑(Emmanuelle Bertrand)은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콩쿠르 우승, 일본 실내악 음악 콩쿠르 1위, 프리스트드 아카데미 국제 모리스 라벨 콩쿠르 입상, 2002년 빅투아르 드 라뮤지끄 어워드 젊은 솔로 연주자 부문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았다. 베르트랑은 작곡가 앙리 뒤티로 부터 “그녀 세대의 젊은 음악가 중 엠마뉴엘 베르트랑은 내게 가장 감명을 준 사람에 속한다. 그녀의 연주에 대한 해석과 투명함은 나를 크게 만족스럽게 한다”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솔로곡과 파스칼 아모얄과 듀오로 연주한 베르트랑의 음반은 레퍼토리/클래식 부문에서 10위권에 들었으며, 텔레라마, 디아파종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클라리네티스트 로망 귀요(Romain Guyot)는 16세의 나이로 파리 국립음악학교에 입학하여 가장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러피안 유스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 주자로 활동했다. 1991년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 주자로 입단, 10년간 활동한 귀요는 런던 필하모니아,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등 유럽 내의 여러 오케스트라의 객원 주자로서 그의 음악적 재능을 선보였다.

이번 무대는 베토벤 오페라 ‘피델리오’ 서곡을 시작으로 글린카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베르트랑이 협연하는 슈만 ‘첼로 협주곡’, 귀요가 협연하는 로시니 ‘클라리넷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서주, 주제와 변주 내림나장조’,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제 1번 라장조 ‘고전’ 작품 25로 클래식의 향기를 전한다.

베르트랑이 들려주는 슈만 첼로협주곡은 말년 슈만의 원숙한 음악성이 발휘된 곡이다. 독주 첼로에서 울려 퍼지는 낭만적인 우수, 독주악기와 오케스트라의 섬세한 교감, 독주 첼로의 뛰어난 기법 전개는 비견할 만한 것이 없으며 특히 2악장의 깊은 서정성이 인상적이다. 귀요가 들려주는 ‘클라리넷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서주, 주제와 변주 내림나장조’는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에 나오는 주제를 로시니 자신이 다양한 변주곡 형식으로 작곡한 곡이다. 청중을 압도하는 달콤한 선율과 절묘한 리듬이 클라리넷의 음색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피날레를 장식할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고전’은 18세기 하이든의 작품 정신을 계승한 곡으로 곡 전체에 프로코피에프의 특징인 아름다운 멜로디와 화음, 기동성 있는 리듬과 비트가 흐르고 있다.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마루국제음악제(070-7687-8291~2)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3

정재형이 만드는 음악회

Le Petit Piano 그 첫 번째...

9월 10일 금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무대와 객석이 친밀한 소극장의 특성을 활용해 뮤지션과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소극장 콘서트 문화를 열어온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열 세 번째 주인공 '정재형'이 부산 첫 단독 공연을 갖는다.

'하늘아래 그 콘서트'는 2009년 9월 11일 싱어송라이터 이한철 콘서트를 시작으로 이상은, 페퍼톤스, 오지은, 이지형 등 부산에서 자주 만날 수 없었던 뮤지션들을 초청, 매달 1회 특별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콘서트 1주년을 기념해 8월 12일, 13일 이틀간 인디 역사상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언니네 이발관' 초청 무대를 가지기도 했다. 싸이월드에서 '하늘아래 그 콘서트(하그콘)'를 열고 20·30대들과 소통하고 있다.

'하늘아래 그 콘서트'의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첫 주자로 부산 무대를 찾는 정재형은 가수, 작곡가, 에세이리스트, 영화음악감독으로 활동해온 다재다능한 뮤지션이다. 한양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1995년 혼성 그룹 '베이스스'로 데뷔한 정재형은 베이스스 활동 중 프랑스로 유학, 파리 고등사범음악원(école normale musique de paris) 영화음악(M.P Mestral 사사) 고등 디플롬, 작곡가 (M.M Merlet 사사) 고등디플롬을 졸업했다.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영화음악 작곡과 자신의 정규 앨범을 지속적으로 발표한 그는 영화 '마리아와 여인숙' '중독' '오로라 공주' '미스터 로빈 꼬시기'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로 영화음악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지난 4월 직접 작곡하고 연주한 8곡의 피아노 연주곡이 실린 4집 정규 앨범 '르쁘띠 피아노(Le Petit Piano)'를 발표, 클래식 차트에서 6주간 정상을 차지하며 그의 음악적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정재형이 만드는 음악회-Le petit Piano 그 첫 번째...'라는 타이틀로 정재형의 음악적 역량과 감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피아노 연주곡 전곡을 부산에서 처음으로 감상할 수 있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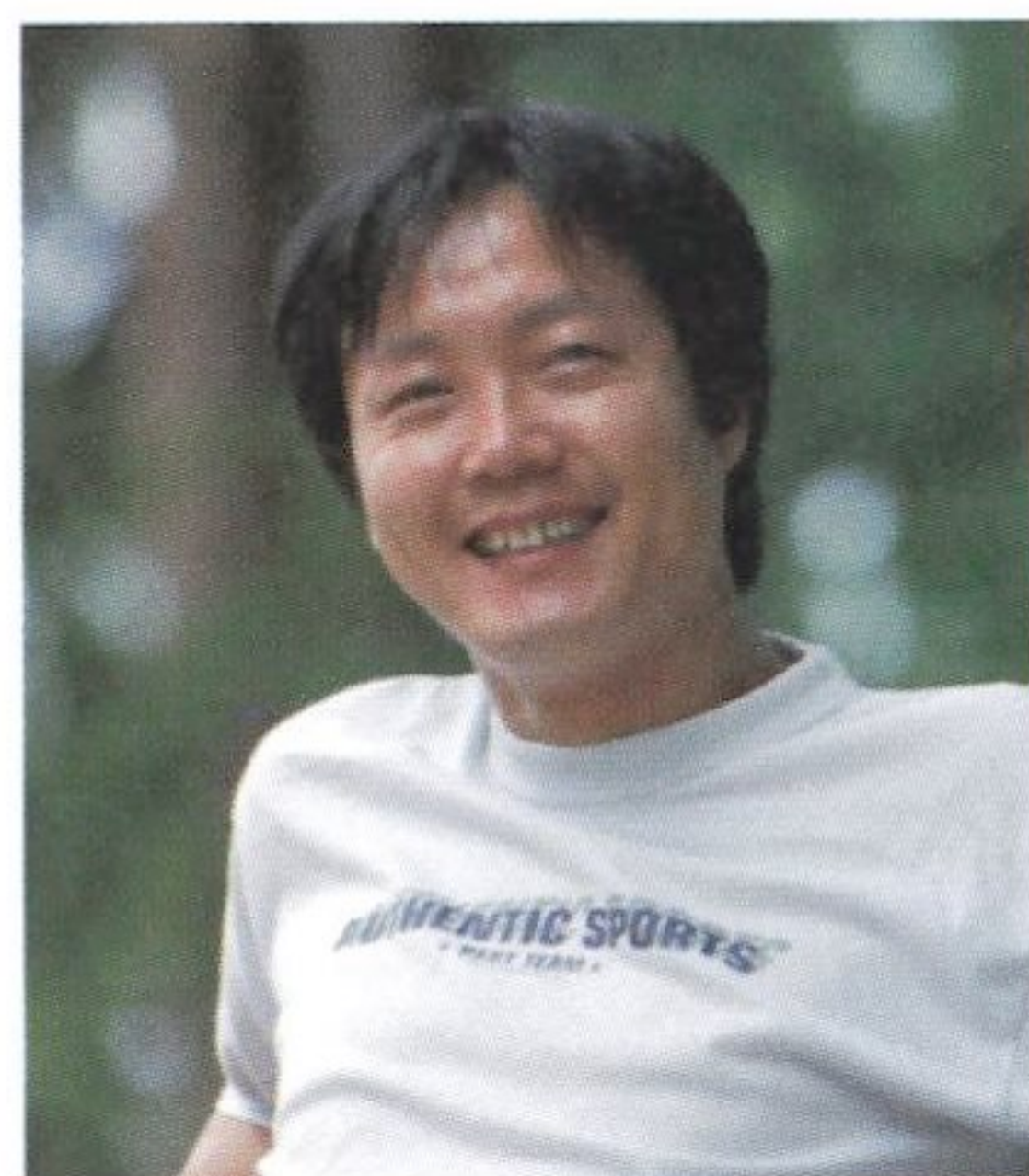
•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하늘아래 그 콘서트 [싸이클럽] <http://club.cyworld.com/0911concert>

창작 가족오페라 **콩쥐 팥쥐**

9월 11일~12일 토~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전상철



대본, 연출 오정국



작곡 최석태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주제인 권선징악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 ‘콩쥐팥쥐’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창작가족 오페라로 만난다.

부산문화회관 재개관을 기념하며 준비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작 가족오페라 ‘콩쥐 팥쥐’는 계모 밑에서 갖은 학대를 받던 콩쥐가 고귀한 인물과 혼인하게 되고, 콩쥐를 괴롭히던 팥쥐와 계모는 처벌받는다라는 내용의 설화로 청소년들에게 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주는 교훈적인 작품이다.

이번 무대는 오정국이 대본을 쓰고 직접 연출을 맡고, 작곡가 최석태가 우리 정서에 맞는 선율로 옷을 입혀 새로운 창작 가족오페라로 탄생시켰다.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전체가 주역 및 조역을 맡아 독창, 중창, 합창은 물론 연기와 춤 등을 선보이며 창작가족 오페라의 재미를 더해준다.

연출을 맡은 오정국은 2004년 <인류 최초의 키스>, 2005년 <BC 2430>, 2009년 <대 숲에는 말이 산다>를 연출, 부산연극제에서 연출상과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오정국은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춤판 ‘이쁜이 시집가는 날’ ‘장화 홍련’ ‘평양과 온달’ 등을 연출해 큰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다.

작곡가 최석태는 경성대학교 음악학부와 동대학원을 거쳐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1995년 데트몰트 현대음악제에 작품을 출품해 호평을 받은 최석태는 귀국 후 8회의 개인 작곡발표회를 비롯해 100여곡의 신작을 발표, 부산 음악을 이끌어갈 작곡가로서 입지를 굳혀왔다. 특히 2007년 한국-터키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안탈리아 국립교향악단의 위촉으로 ‘아리랑 환상곡 2007’을 작곡해 터키 현지에서 초연했다. 2008년에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독일공연을 위해 ‘페스티벌 미사’를 작곡해 독일에서 초연, 많은 호평을 받았다. 2008년 혼성4부 무반주 합창곡 ‘자갈치의 아침’은 대구 창작합창축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작곡가 최석태는 획기적인 작곡 기법이거나 복잡하고 정교한 논리적 전개가 아닌, 직감적인 감성으로 다듬어 가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음의 흐름을 추구하며 ‘콩쥐 팥쥐’를 소년소녀합창단과 solo들의 특성에 맞게 작곡,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친숙한 오페라로 만들어냈다.

주요배역

어나경, 윤연수(콩쥐), 박세미, 유나영(팥쥐), 조혜정(팥쥐 모), 조아라, 임소영(콩쥐 모), 최성규(아버지), 김종영(도령), 서관수(옥황상제), 최춘식(원님), 안하은, 이혜민, 안소윤, 김태희, 이지혜(선녀들), 강보람(직녀), 박찬일(검은소), 윤동욱(두꺼비), 공선연, 이지윤, 이지은, 박세라, 이세민, 최화성, 송가은(참새), 강은태(콩쥐 외삼촌), 최영화(콩쥐 외숙모) 등

- 특별출연/서관수, 장용균, 강은태, 최춘식, 김웅태, 최성규, 이형성, 오동주
- 신디사이저/문지은

- 관람료 균일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0 웰빙콘서트 Dance in Classic' III 미뉴에트와 스케르초-교향곡의 식구가 된 댄스

9월 30일 목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한 한낮의 음악선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0 웰빙콘서트 댄스 Dance in Classic' 세 번째 무대가 9월 3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클래식 음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다소 평가절하된 춤곡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2010 웰빙콘서트 시리즈 Dance in Classic'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이동신의 지휘, 음악칼럼니스트 김문경의 해설과 아름답고 흥겨운 클래식 선율과 어우러지는 발레리나 김희쟁의 화려한 댄스로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헨델, 베토벤, 멘델스존 등 수많은 작곡가들의 작품 속에 녹아있는 미뉴에트와 스케르초 춤곡을 들려준다. 프랑스어 '작다'라는 뜻 'menu'에서 유래된 미뉴에트는 1650년경에서 1750년경 유럽의 귀족,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귀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한 우아한 쌍쌍춤이다. 미뉴에트는 18세기의 모음곡에 자주 나타나며,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제 4악장에서는 무대 위의 악사들이 미뉴에트를 연주하기도 한다.

'해학, 희롱'을 뜻하는 '스케르초(Scherzo)'는 음악에서는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기 보다는 '해학적인 기분으로' 혹은 '희롱하듯' 연주하는 연주 기법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스케르초는 시대에 따라 교향곡의 3악장 중에 쓰이기도 하고 짧은 성악곡에 쓰이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장르에 사용되었지만, 특히 낭만과 음악이 주류를 이루었던 쇼팽 시대의 스케르초는 보다 극적이고 기교적인 성격이 강한 피아노곡을 지칭하기도 한다. 미뉴에트가 원래 귀족의 춤으로 장엄한 데 반해, 스케르초는 빠른 3/4박자로 셈여림이나 악기 편성이 충격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교향곡 제 39번 내림마장조 작품 543 중 제 3악장, 장-필립 라모 '우아한 인도의 나라' 중 '미뉴에트', 헨델 '수상음악 모음곡' 제 1번 중 '미뉴에트',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 5번 가장조 '터키' 작품 219 중 제 3악장, 베토벤 교향곡 제 1번 다장조 작품 21 중 제 3, 4악장,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작품 61 중 '스케르초',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 9번 내림마장조 작품 70 중 제 3, 4, 5악장을 들려준다.

서울대학교와 독일 도르트문트 음대를 졸업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옥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 5번 가장조 '터키'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모차르트가 19세에 고향 잘츠부르크에서 쓴 다섯 곡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 한 곡인 '터키'는 잘츠부르크 협주곡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걸맞은 명작으로 화려한 기교와 명량한 작품은 물론 규모 면에서도 크고 곡의 구성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 3악장 중간부에서 활발한 터키풀의 리듬이 시용되고 있기 때문에 흔히 <터키풀> 협주곡이라고도 불린다.



지휘 이동신



해설, 진행 김문경



바이올린 이은옥



안무 및 발레 김희쟁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010 부산비엔날레 진화속의 삶(Living in Evolution)

9월 11(일) ~ 11월 20일(토)

부산시립미술관, 수영요트경기장, 광안리해수욕장,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부산시청 전시실 등



새로운 10년을 여는 2010 부산비엔날레가 9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71일간 화려한 대장정에 들어간다.

올해 부산비엔날레 주제는 '진화 속의 삶(Living in Evolution)'. 개인으로써의 삶과 사회적 삶이라는 두 시간축을 통해 예술과 사회, 세계, 역사 그리고 미래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통

찰해본다.

2010 부산비엔날레는 기존 3개의 세부전시를 전시감독 아주마야 타카시가 기획해 작품과 전시공간 사이의 유기적 일치감을 확보하고 전시 기획방향과 전시주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한다. 또한 대중접근성을 강화시켜 전시장간의 물리적인 접근성은 물론 작품과 작품, 작품과 공간, 공간과 공간의 유기적 융합을 통해 전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감상 포인트를 제공한다.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전시주제와 출품작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현대미술과의 거리를 좁혀나갈 계획이다.

이번 부산비엔날레에서는 전세계 23개국 72명의 작가 작품 161점이 출품된다. 대표적인 작가로 생존해있는 현대미술 작가 중 최고로 꼽히는 아르눌프 라이너(Arnulf Rainer, 오스트

리아)와 자연과 문명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의 존재에 대해 꾸준히 사유해온 차기울(한국), 전쟁과 같은 암울한 역사를 넘어 근대화된 베트남의 현재를 표현한 딘 큐 레(Dinh Q. LE, 베트남), 나치에 의해 수용소생활을 했던 작가의 어머니의 행보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가져온 이샤이 가르바스(Yishay GARBASZ, 이스라엘) 등의 작품이 소개된다.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자연 속에서의 개인의 삶과 도시 공간 속에서의 개인의 삶을 조명하기 위한 전시가 열린다. 도시와 인간의 변용, 사회시스템 하에서의 삶, 과학과 논리, 인류의 기억과 역사, 문화, 경제의 진화, 이상적 신체 등을 소주제로 한 작품이 전시된다. 수영요트경기장 계측실에서는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실내라는 구조적 특성을 살려 영상 및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끝없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되풀이되는 삶과 죽음을 테마로 한 작품이 전시된다. 광안리해수욕장에는 부산비엔날레의 독창적인 전시인 바다미술제의 특성을 살려 생명감과 장구한 시간을 테마로 한 작품을 위주로 전시하고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바다와 함께 대비적 양상을 띠는 작품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실외조각 작품은 기존 부산비엔날레 조각프로젝트 진행방식에서 벗어나 부산시 주요장소에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대형 야외작품으로 기획되며 도시환경의 변천과 인간존재를 다룬 작품이 설치된다.

이밖에도 2010 부산비엔날레에서는 한·중·일 3개국의 젊고 실험적인 작가 180명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 아시아 현대미



차기울(한국) '순환의 여행 - 방주와 강목사이'



딘 큐 레(베트남) 'The Farmers and The Helicopters'



이샤이 가르비즈(이스라엘)
'In My Mother's Footsteps'

술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시아는 지금'展, 부산시내 상업화랑 26개가 참여하는 '갤러리 페스티벌', 지역의 대안공간과의 제휴를 통해 실험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안공간 연

계전시', 시장을 생활공간으로 사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문전성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특별전시가 함께 펼쳐진다.

■ 본전시

- 부산시립미술관 : 자연과 도시속에서의 개인의 삶을 조명
- 수영요트경기장 : 끝없는 시간과 환경에서 되풀이 되는 삶과 죽음을 테마로 한 작품
- 광안리해수욕장 : 생명감과 장구한 시간을 테마로 한 작품
- 부산지역 내 : 도시환경의 변천과 인간존재를 테마로 한 대형 야외작품

■ 특별전 '아시아는 지금展'

- 韓·中·日 지금의 작가전
9월 12일(일)~9월 30일(토) 부산문화회관 대·중전시실
9월 12일(일)~11월 20일(토) 금련산 갤러리
- 韓·中·日 극사실 작가전
9월 12일(금)~9월 30일(목) 부산시청 전시실

■ 연계전시

- 갤러리 페스티벌
9월 1일(수)~11월 20일(토) 부산지역 내 26개 참가 화랑
- 대안공간 전시
8월 1일(일)~11월 20일(토) 오픈스페이스 배,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2010 문전성시 프로젝트 - 시장통비엔날레

■ 관람료 : 일반 7,000원 · 학생 4,000원 · 4인가족권 15,000원(예매시 일반 5,000원 · 학생 3,000원 · 가족권 12,000원)

■ 문 의 :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503-6111, www.busanbiennale.org)

부산문화회관 문화대학에서 만나는 철학자 강 유 원

고전을 읽는 것이라기보다는 음미하는 것



철학, 역사, 문학, 정치,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유기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철학자 강유원이 부산문화회관 제 4기 문화대학 강사로 부산을 찾는다.

쉽고 호탕하고 유쾌한 강의와 글쓰기, 번역을 통해 인문학 공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강유원을 문화대학 개강에 앞서 지면으로 먼저 만나본다. 9월 1일 '자각적 삶을 위한 인문학 공부'의 명쾌한 답을 들려줄 철학자 강유원과의 일문일답. 그와의 특별한 만남이 기다려진다.

오랜만에 찾은 부산 부산은 2008년과 2009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교사연수를 하러 4주 정도씩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어디나 낯선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이 편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이런 낯설음을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딜 가든지 내가 여기 오는 게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작년에 부산이 마지막이라 생각했는데 올해 가을 초입에 다시 가게 되어 또다시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월 1일 '자각적 삶을 위한 인문학 공부'에 대해 인문학 공부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는 자신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도구적 성격이 가장 약한 학문입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텅 비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자신의 참모습을 온전하게 대면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들입니다. 그러한 대면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갈 것인지를 깨닫게 될 듯합니다.



인문학적 교양인이 되기 위한 고전읽기의 자세 고전은 ‘읽는 것’이라기보다는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어 시험을 치를 일이 없으니, 이 책이, 이 구절이 내 삶의 어느 부분과 맞닿아 있는지를 궁리하면서 찬찬히 읽으면 됩니다. 그러다 문득 한 구절이라도 마음 한 구석에 남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문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 일단 책을 사두고 정말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아무 곳이나 펼쳐서 소리 내어 읽어 보라고 합니다. 그래도 별 감흥이 없으면 덮어 두었다가 죽기 전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해보라고 합니다.

‘회사원 철학자’ 강유원, 안경알을 갈면서 철학을 한 스피노자, 그 힘의 원천은 박사학위를 받은 뒤 먹고 살 길이 탄탄하지 않아 시간강사를 하면서 부업삼아 하던 회사 일을, 지도 교수님 퇴직 후에는 전업으로 한 바 있습니다. 15년쯤 했나봅니다. 이젠 그마저도 몇 년 전에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스피노자가 안경알을 갈 것은 당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첨단기술이지만 저의 회사생활은 그저 생계의 압박에서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하하...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한마디로 ‘생계의 필연성’입니다. 달리 말하면 ‘굶어 죽지 않으려면 뭐든 해야 한다’겠지요.

인문학 공간 홈페이지(<http://allestelle.net>) allestelle는 이탈리아어 alle stelle를 붙여 쓴 것인데 ‘별을 향하여’라는 뜻입

니다. 단테의 서사시 <신곡> 연옥편 마지막 33곡의 구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그 성스러운 물결에서 돌아왔고/ 새로운 잎사귀로 새롭게 태어난/ 나무처럼 순수하게 다시 태어났으니 / 별을 향하여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기서 ‘별’은 신성한 것 또는 고귀한 것을 가리킵니다. 인문학의 궁극 목적은 그 별에 이르는 것이겠으나 우리 인간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저 별을 향할 뿐입니다. allestelle.net은 1년 후에는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10년 전 쯤에 인문학 공부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이후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적 삶을 살기 위한 추천도서 호메로스의 서사시들, 즉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 플라톤의 대화편들, 특히 <국가>와 <향연>, 단테의 <신곡>은 꼭 읽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작품 중에서는 <맥베스>가 좋습니다. <논어>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철학자 강유원의 최종 목표 집필이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해보고 힘 떨어지면 조용히 물러나려 합니다. 인간이므로 당연히 저의 최종 목표는 죽음입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고 72살에 깔끔하게 죽고 싶습니다.

철학자 강유원은 9월 1일 오후 2시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만날 수 있다.

미나리 꽃밭에서의 눈물과 작별

정일근 _ 시인, 경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사진/정일근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 은현리에 미나리 꽃이 일었습니다. 미나리 꽃 하얀 꽃이 미나리짱마다 하얗게 일어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논둑에 쪼그리고 앉아 미나리 꽃을 보며 당신을 생각합니다. 제게 언제나 눈물로 피는 꽃인 당신을 생각합니다.

미나리 꽃의 뿌리는 여름에서 시작했지만 꽃은 가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릇 어느 한 계절만을 소유하는 꽃은 없습니다. 꽃도 그러하기에 사람의 마음속에도 단 하나의 사랑으로 담아 채울 수도 없습니다.

대저 꽃은 필 때가 아닌 질 때가 그 꽃의 시간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눈물로 지우며 작별할 때가 그 사랑의 온전한 시간입니다.



은현리 풍경에서 詩를 읽다

지난 겨울의 미나리밭을 기억합니다. 얼음이 팡팡 언 미나리밭에서 푸른 향기의 몸을 가진 미나리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미나리는 제 몸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시절에 가장 향기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봄 미나리만 기억할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나리 꽃이 이는 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건 사람의 식탐이며 죄입니다. 미나리 꽃을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진정한 눈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란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1998년의 영화이니 이미 12년 전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카피처럼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짧지만 아름다운 사랑’이 은현리에서는 미나리 꽃입니다.

태어나서 미나리 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은현리에서 미나리 꽃을 만난다면 두 귀를 두 손으로 모아 가까이, 더욱 가까이 대어 보세요.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처럼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 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라는 미나리 꽃이 사람에게 전하는 작별 인사가 들릴 것입니다.

8월과 9월 사이 나는 미나리 꽃밭을 보며 눈이 내린 것 같은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은현리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긴 편지를 당신에게 몇 번이나 쓰다 찢어버렸습니다. 미나리 꽃을 보지 않은 사람에게 8월과 9월 사이의 저 눈꽃을 이야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올 여름이 무더웠기에 누구나 가을을 기다리는 일이 간절할 것입니다. 간절하다는 것, 절실하다는 것의 끝에는 언제나 눈물이 납니다. 살다보면 남 몰래 눈물 흘리는 일이 있습니다. 미나리 꽃밭도 눈물 흘리기 좋은 배경입니다.

미나리 꽃은 하얀 꽃입니다. 하얀 꽃은 사람의 눈물과 함께 피는 꽃입니다. 사람의 눈물이 꽃으로 피는 일입니다. 미나리 꽃은 혹독한 겨울농사가 끝난 뒤에 피는 사람의 눈물인 동시에 다음 겨울에 찾아올 더욱 혹독할 겨울을 예감하는 꽃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떠나는 여름에게 작별 인사를 합시다. 기다렸던 가을에게 환영 인사를 합시다. 미나리 꽃밭에서 떠날 것은 떠나게 하고 올 것은 돌아오게 합시다. 떠나는 것들에게는 사랑했다는 인사를, 돌아오는 것들에게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인사를 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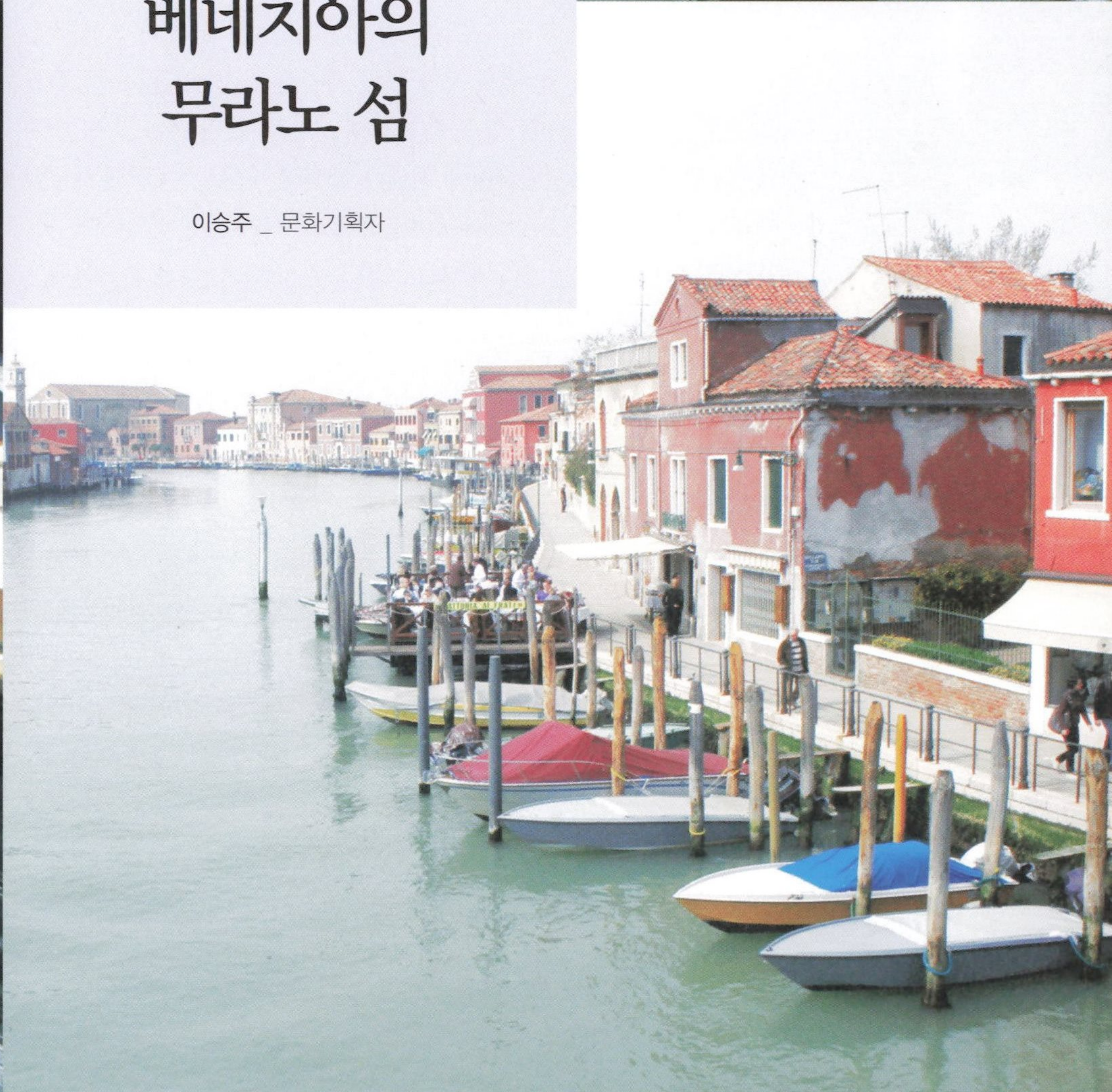
오늘은 은현리 미나리 꽃밭에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별을 합시다.



오랜 세월 열정의 희생으로
갈고 닦여진 장인의 섬

베네치아의 무라노 섬

이승주 _ 문화기획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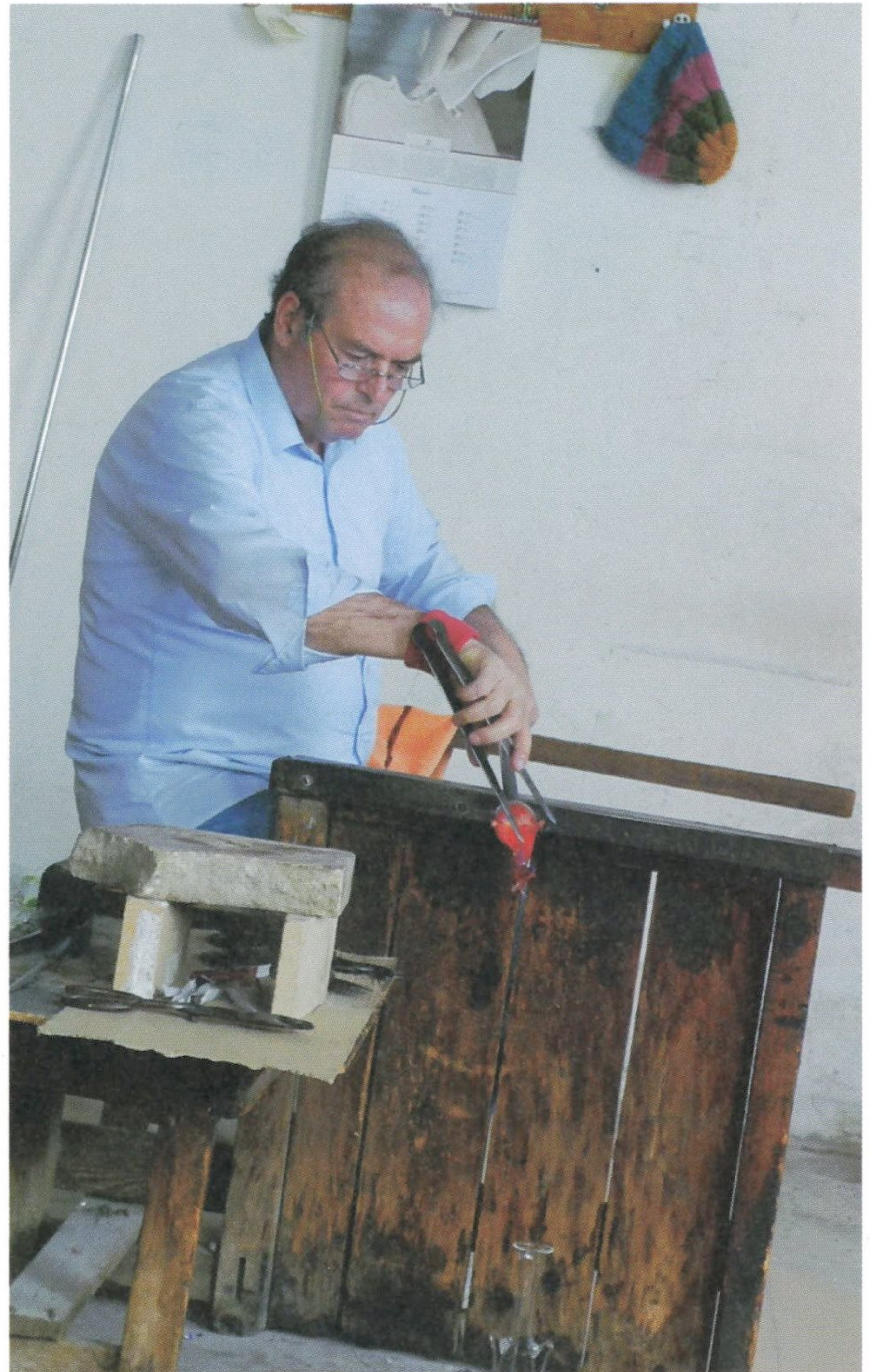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피렌체를 거쳐 베네치아 기차역에 내리는 순간, ‘아...이곳은... 어느 나라일까’ 동화 속 나라로 들어온 기분이다. 무엇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을까.

눈앞에 펼쳐진 바다의 트임과 시원함이 코를 자극한다. 그것들로 눈이 시원해진다. 이곳의 상쾌한 바다내음이 나를 설레게 만든다.

수상버스를 타고 흔들리는 햇살에 몸을 맡겨본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인 무라노 섬을 가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 전 세계 유리공들이 기교와 예술정신을 배우기 위해 장인을 찾아 헤매이는 곳, 그곳으로 간다.

무라노 섬은 베네치아 유리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명소이다. 유리는 ‘모래와 재로 만들어진 불사조’로 불리울 만큼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10세기 이후부터 베네치아의 사람들은 유리나 크리스탈을 만들어 왔다.



▲ 무라노섬에는 유료 또는 무료로 유리 세공 공장을 견학할 수 있다.

유리 세공업이 베네치아의 주요한 수익창출 수단으로 떠올랐고 13세기에 유리 세공업은 무라노 섬으로 이전하였다. 베네치아 본 섬에는 나무로 지은 건물이 많아서 유리공예에 적합하지 않아 무라노 섬으로 유리세공업자들이 이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공업으로 만든 유리 세공품들의 예술적 화려함은 전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베네치아로 모으는 원동력 중 하나이다.

특히 무라노 섬의 유리 세공 공장에 가면 직접 입으로 유리를 불어 작품이 나오는 공정을 볼 수도 있다.

몇 초가 지났을까? 일 분이 지나가기도 전에 달리는 말이 하나 완성된다. 마술의 움직임 같다. 내가 보지 못한 사이에 뭔가 속임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눈조차 깜빡일 수가 없다. 이 짧은 순간에 수십 세기가 담겨져 있는 듯 해서 나도 모르게 환호성이 나온다.



운하의 양쪽 길에는 빼곡하게 유리공예 상점들이 들어 서있다.

이 섬에는 유리 공예의 역사와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 유리박물관(Museo dell'Arte Vetrario)이 있다. 박물관에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정교한 유리 세공품과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베네치아 지방 특유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유리 세공품을 볼 수 있다.

수로들을 끼고 있는 거리에는 다양한 아트샵들이 그들의 개성을 뽐내고 있다. 관광객을 위한 기념 소품에서부터 유리 화병 등의 장식용품, 귀걸이나 시계 등 액세서리, 대형 샵들리에 같은 조명기구까지 다양하다. 가격대 역시 몇 천원부터 수백만 원대를 호가하는 제품까지 천차만별이다. 거리 중앙에는 유리로

만든 커다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거리의 모든 것이 말하고 있다. '이곳이 바로 유리의 섬 무라노' 라고...

이곳의 유리 공예품들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만들어진다. 무라노 유리가 1000년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끔 유럽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말한다. 이들은 과거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현재를 사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즉, 과거를 먹고 산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문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유리공예 작품들



화유산을 보존하기에 힘쓰고 있으며, 장인정신과 예술정신에 문화적 자부심으로의 끊임없는 개발이 지금의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현 것에 비해 새 것이 좋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 역시 조금은 불편해도 쓰면서 정이 가고 몸에 붙는 듯한 느낌이 드는 물건에 손이 가듯이, 문화도 그런 듯 하다.

오랜 세월 변화의 세월을 거치면서 갈고 닦아진 지금의 그것들이 다시 한번 걷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꼭 다녀가야 할 그런 공간들로 되어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 즐겨보던 만화영화의 주제곡이 생각난다.

“카피카피룸룸 카피카피룸룸 이루어져라~ 모래요정 바람들이 신기한 친구 가자가자 미래로 재밌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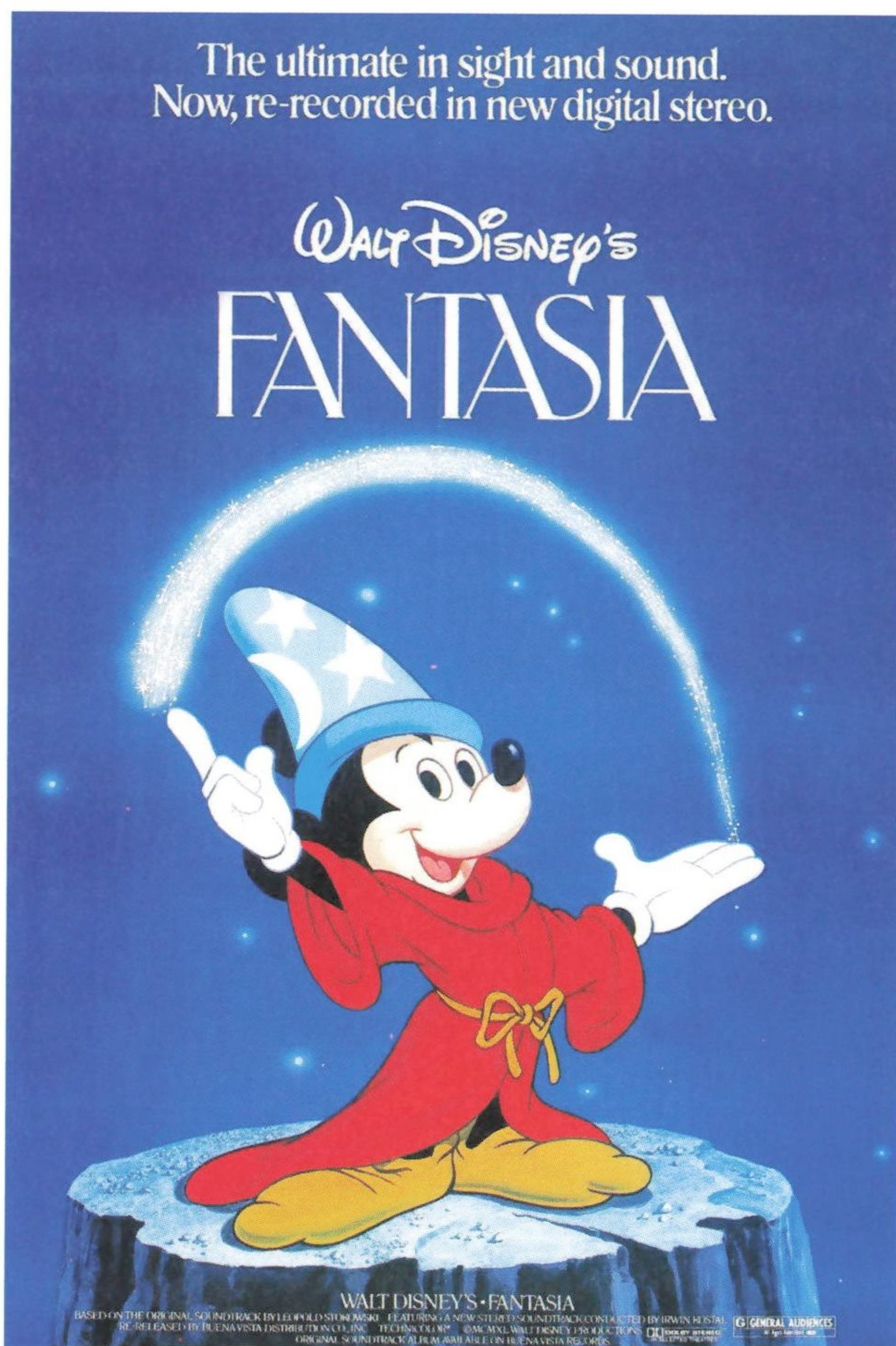
주문을 외우고 나면 원하는 다른 세계로 이동할 수 있었던 바람돌이와 그의 친구들처럼, 주문만 외워서 과거와 미래의 어디론가 훌쩍 떠날 수 있다면... 생각만해도 기분 좋아진다.

장인의 땀과 노고가 고스란히 베어있는 이곳 아름다운 유리의 섬 무라노가 있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로 오게 된 것처럼 말이다.



영화 판타지아

이동신 _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1940년에 개봉된 <판타지아>는 '음색의 지배자'라 불리는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영화이다.

1940년에 개봉된 <판타지아>는 '음색의 지배자'라 불리는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영화이다. 8곡의 클래식음악을 배경으로 구성된 각각의 장면에서 표현되는 상상력은 만화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개봉 당시 비평가와 관객들의 반응은 냉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오늘날 이 영화는 영화예술이 이룩한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로 높이 평가된다.

월트 디즈니는 1937년 최초의 극장용 장편만화영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개봉했고 이 작품의 성공에 힘입어 <피노키오>와 <밤비> 그리고 <판타지아> 등 세 편의 장편 만화영화를 동시에 제작하려는 계획에 착수했다. '콘서트 영화'라는 가제가 붙은 <판타지아>의 제작에는 무려 300만 달러 이상의 비용과 천여 명의 스태프가 동원되었고 기간도 2년이나 걸렸다. 디즈니는 영화 <오케스트라의 소녀>에 직접 출연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고 할리우드와도 친분이 있던 필라델피아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스토코프스키와 교류하며 영화의 장면들을 구상했다. '판타사운드'라는 직접 고안한 초기 스테레오 시스템으로 편집했기 때문에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진 극장에서만 상연이 가능하였기에 초기에는 불과 14개의 극장에서만 제대로 개봉할 수 있었다. 6개의 독립적인 사운드 채널을 활용해 음악에 입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음향효과의 기술발전에 기여한 이 작품은 1941년 아카데미영화제에서 기술상을 받았다.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로 시작하는 <판타지아>는 지휘자의 뒷모습과 오케스트라의 연주장면을 실루엣으로 처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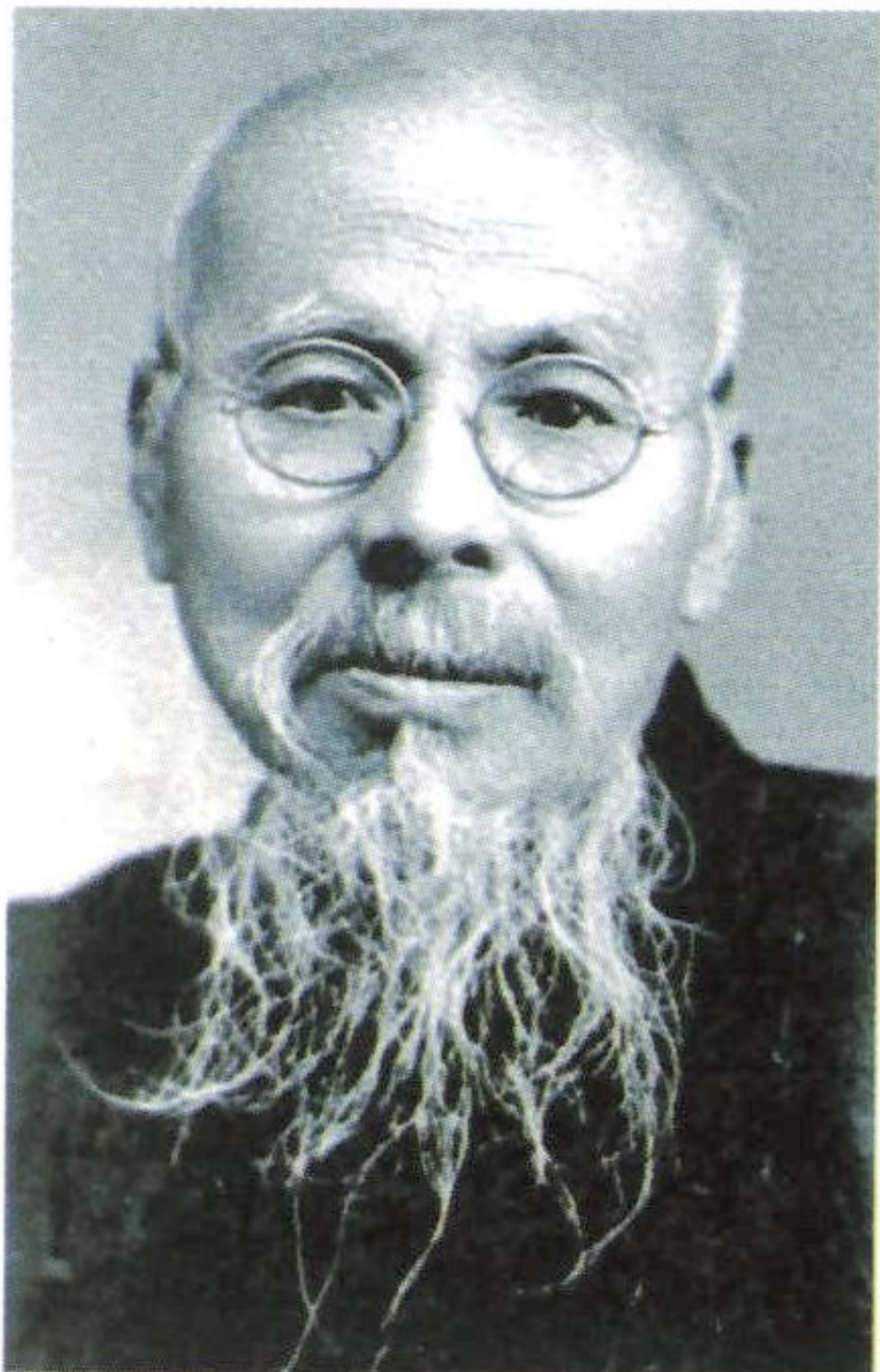
현재 우리가 보는 <판타지아>는 1990년에 영화 발표 50주년을 맞아 음악을 새로 녹음하고 손상된 필름을 첨단기술로 복원한 작품이다.

뒤, 독일의 실험주의 예술가 오스카 휘싱거의 추상 애니메이션을 통해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음악과 새로운 영상예술인 애니메이션의 조화를 보여준다. 두 번째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발레모음곡 ‘호두까기인형’인데, 요정 퉁커벨이 유도하는 자연의 축제장면은 이후에 제작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무용장면들의 화면구성에 전형적인 모범으로 재활용된다.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세 번째 장면은 뒤카의 표제음악 ‘마법사의 제자’로, 미키마우스가 마법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봉변을 당하는 마법사의 수련생-수련생의 이름 ‘Yen Sid’는 ‘Disney’를 거꾸로 쓴 것이다-으로 등장하여 미키마우스에 대한 디즈니의 애착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스트라빈스키의 발레음악 ‘봄의 제전’에서는 천지창조를 연대기적으로 구성하고, 베토벤의 6번 교향곡 ‘전원’에 이르러서는 그리스 신화와 만화영화의 접목을 코믹하게 시도하며, 뒤이어 폰키엘리의 ‘시간의 춤’에서는 코끼리, 악어, 하마 등이 벌이는 향연을 영상화한다. 음악이 무소르크스키의 관현악곡 ‘민둥산의 하룻밤’으로 이어지면 영화는 죽음을 부르는 악마의 몸짓을 보여주고 그것이 사라지면서 신을 경배하는 길고 긴 촛불 행렬로 이어져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의 선율만 남긴 채 끝이 난다.

개봉당시 비평가들은 각각의 음악에 이미지를 규정하는 것과 이미지를 위해 음악을 임의로 뜯어고친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했다.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대부분의 극장에 스테레오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점, 그리고 클래식음악에 대한 거리감

은 대중의 무관심을 초래했다. <판타지아>의 재정적 실패는 이후의 영화제작에 어려움을 초래했고 디즈니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 재개봉된 상영관에는 관객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1991년에 출시된 비디오는 무려 1400만장 이상이 팔려나감으로써 이 영화는 비로소 재평가 받는다. 현재 우리가 보는 <판타지아>는 1990년에 영화 발표 50주년을 맞아 음악을 새로 녹음하고 손상된 필름을 첨단기술로 복원한 작품이다.

윌트 디즈니의 명작들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판타지아>는 눈으로 보고 귀로 즐기는 영화이다. 당대 최고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클래식명곡들과 화려한 영상이 만난 이 영화는 그때까지의 애니메이션의 개념을 훌쩍 뛰어넘은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오리지널로부터 60년이 지난 뒤 나온 후속편 <판타지아 2000>은 정확히 2000년 1월 1일에 아이맥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개봉했는데, 본편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인 ‘마법사의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첨단 컴퓨터 그래픽 작업으로 채운 속편 역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치바이스

김남희 _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치바이스(1864-1957). 우리에게서 제백석(齊白石)으로 더 익숙할지 모르겠다. 본명은 제황(齊璜). 족보에는 순지(純芝), 어릴적 이름은 아지(阿芝)이다. 자는 위청(渭淸), 호는 난정(蘭亭), 빈생(瀕生)이고 별호가 백석산인(白石山人)이다. 백석포에 산다하여 붙여진 별칭인데, 세상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 치바이스(齊白石)가 그 이름이다. 그 밖에도 齊大(제씨네 맏이), 湖南湘潭人(호남성 상담 사람), 木人(목인-목수 출신을 빗댄), 木居士(목거사-목수), 借山翁(차산옹-산을 빌려 사는 늙은이, 세 들어 살 때), 寄園(기원), 寄萍堂主人(기평당주인) 등은 고향을 떠나 산다는 의미이고, 魯班門下(노반문하-그 옛날 노반이 목공 출신이었고 자신 역시 그렇다는 의미), 三百石印富翁(도장 돌의 수가 300개, 돌 도장 부자가 되다) 등 수많은 별호들을 썼다. 이 별호들의 내력을 파헤쳐보면, 그의 인생역정이 고스란히 들어난다. 중국인들의 이름, 명분에 대한 집념을 보는 듯하다. 공자님 말씀이 “名不正이면 言不順이라”하지 않았던가! 이 또한 중국의 문화를 해독하는 하나의 코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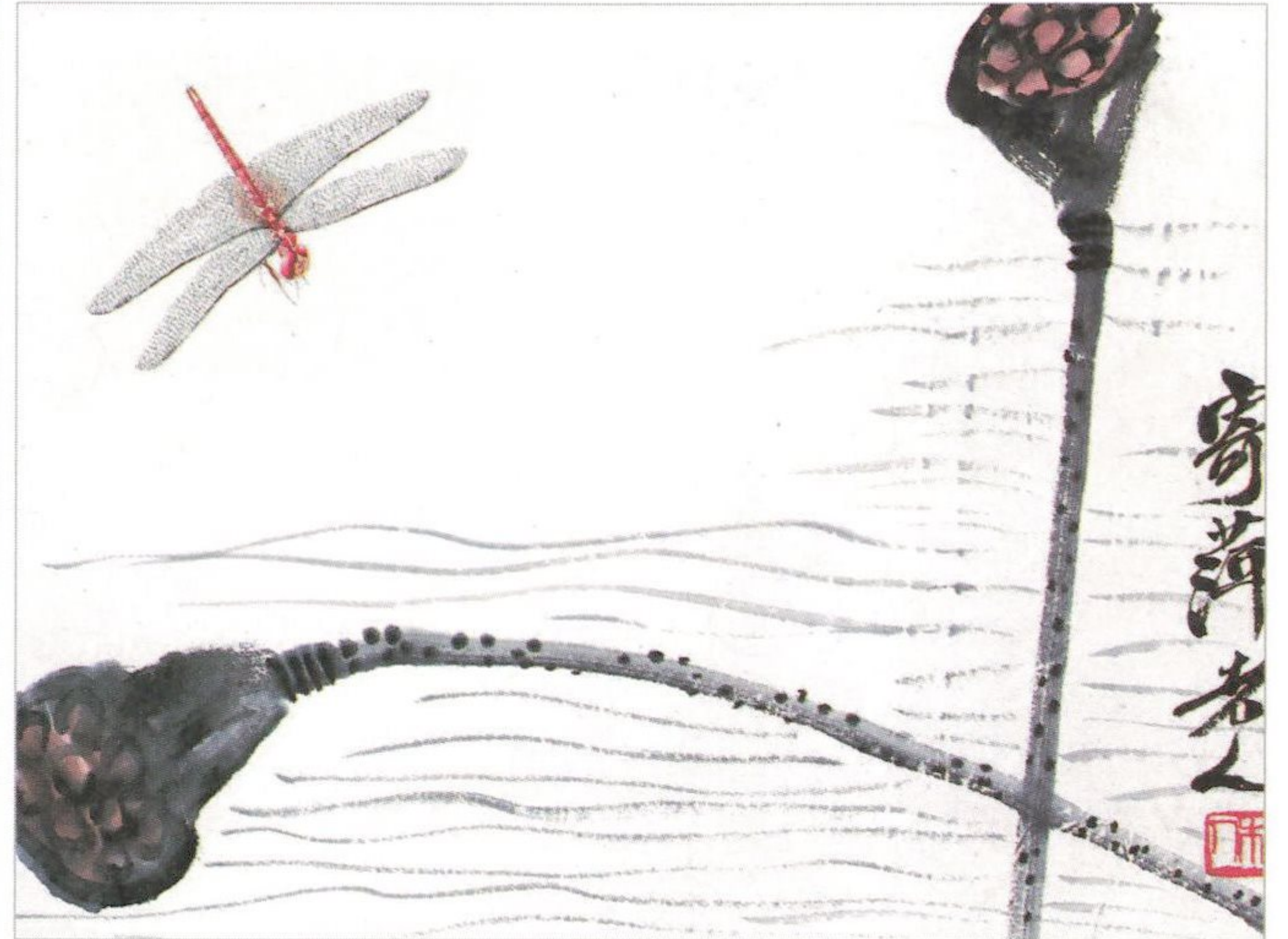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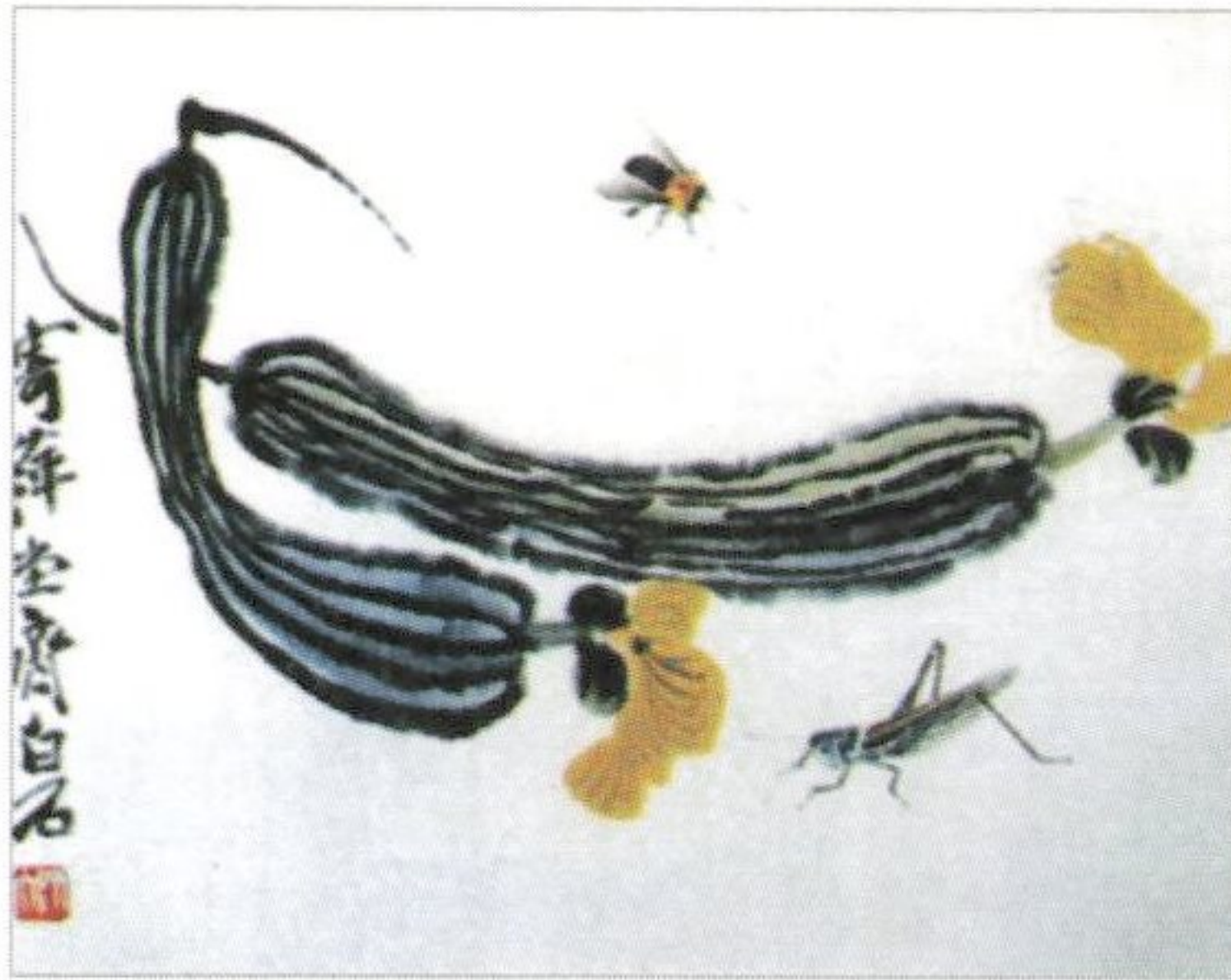
치바이스의 예술세계의 넓이와 깊이, 양과 질을 헤아려보기 위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구의 예술가에 비유해 본다면, 다빈치나 피카소 정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목공에서 회화, 서예, 전각, 그리고 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을 두루 섭렵한 거장 중의 거장이다. 그것은 유구한 중국의 미술사나 예술사에서 전무후무한 존재인 것이다. 무엇이 그를 이렇듯 위대한 예술가로 만들어 주었을까? 오늘날 그의 예술과 삶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의 작품에 열광을 하는 현상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중국은 물론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도 시, 서, 화 그리고 전각이라는 영역은 신분과 학식이 높고 부유한 이들의 전유물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秀才 또는 奇才라고 칭송되는 치바이스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또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자면 우선 그의 출생과 유년시절부터 살펴보고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선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그의 제자 장차계(張次溪)가 받아 적어 책으로 엮은 〈白石老人自述〉¹⁾이 있다.

치바이스는 청(淸) 말인 동치(同治) 2년, 즉 1864년, 12월 13일, 중국 호남성 상담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가 손이 귀한 농부 집안의 맏이로 태어났다. 외아들인 그의 아버지는 무던하고 무능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강인하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네 살 이전의 유년은 줄곧 병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도 그의 신체는 왜소하고 나약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의 겉모습일 뿐, 어찌면 아버



지의 유전요소가 신체로 나타났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마음가짐과 활동상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다.

그의 맨 처음 글 선생은 친할아버지였다. 배운 글자의 수는 모두 300여 자. 손자와 할아버지가 아는 글자의 수가 같아져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된 할아버지는 고심 끝에 이웃 마을에 있는 외할아버지의 서당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그것도 할아버지가 친히 데리고 공부하러 다녔다.

送學圖, 2008년 옥선에 나온 송학도는 그의 유년시절 배움에 대한 기록을 사실적이면서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공부하러 먼 길을 가야하는 어린 아이의 고달픔이 아주 사실적으로 전달되는 그림이다. 그 당시의 기록을 그림으로 많이 남겼다. 그의 인물화의 한 테마이기도 하다.

화제시를 해석해보면, 이렇다 :
여기저기 아이들이
아침마다 놀고 있는데
이 할애비 정말 못 되었네

너만 선생한테 데리고 가다니
글공부 나쁜 것 아니다.
어미 곁을 잠시 떠났다 오는 것이니
배움의 두 줄기 눈물이
네 붉은 옷을 적시는 구나.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과 아침마다 엄마 곁을 떠나야하는 아이의 눈물이 오롯이 담겨져 있어서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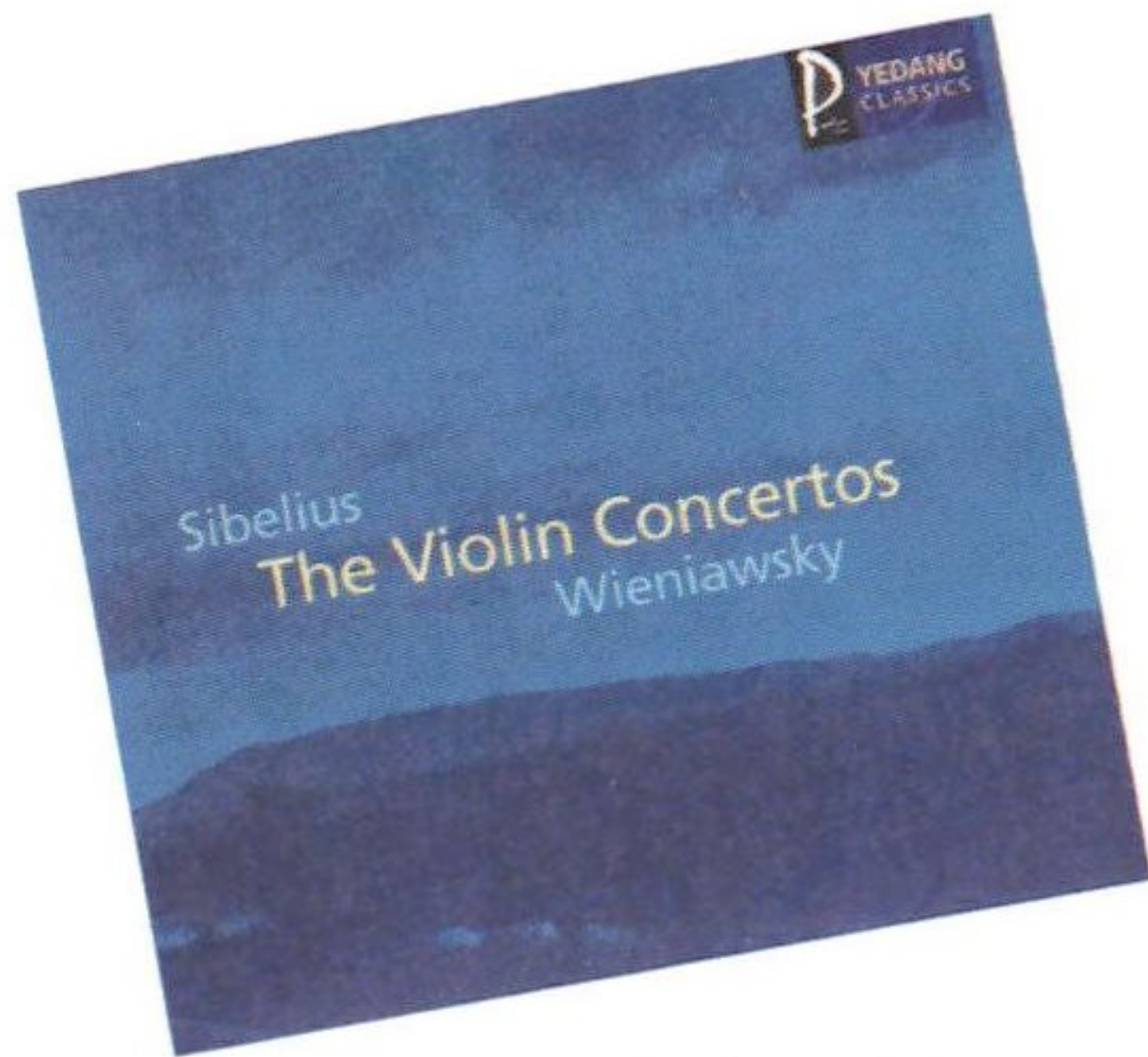
그는 건강이 좋아진 4살 때, 친할아버지가 장작집게로 다 타고 난 재 위에 글을 써서 이름자를 가르쳐 준 것을 시작으로, 8세부터 3리길을 오가며 외할아버지의 정식 제자가 된다. 묘흥지²⁾에 붓글씨를 읽히고, <삼자경>, <백가성>, <천가시>와 <논어>를 읽고, 다 쓴 금전출납부에 그림을 그렸다. 글씨 연습을 하고 난 묘흥지에도 그림을 그렸다. 눈으로 본 것은 제법 쉽게 그려졌다. 서당에서 아이들이 서로 그려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작은 화가의 탄생! 그러나 그의 화가로서의 삶은 아직 멀고도 한참 멀었다.

1) <白石老人自述>, 산동화보출판사, 2000. 한국어번역본, <쇠뿔 화로에서 향내 나다>, 김남희 역, 도서출판 학교재, 2003.

2) 중국에서 처음 쓰는 이를 위한 붓글씨 교재. 글씨의 테두리를 붉은 색으로 둘러주어 그 안에 먹으로 글씨를 쓰게 하는 종이. 지금도 구할 수 있다.

극광의 신비 시벨리우스 바이올린협주곡

김익호 _ 삼성여고 교사



한 여름, 북극권의 날씨는 변화무쌍하다. 조금 전까지 맑았는데 이나리호수에 비가 내린다. 세찬 빗줄기는 호수 면에서 춤이 되어 튀어 오른다.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3악장이다. 활은 짧고 빠르게 다운-업을 반복하며 격렬한 리듬으로 폴로네이즈를 춘다.

핀란드를 알아야 시벨리우스가 보인다. 푸른 숲과 맑은 호수가 전부인 나라. 핀란드에는 18만 개가 넘는 호수가 있다. 하얀 바탕에 파란색 국기도 깨끗하고 맑은 호수를 뜻한다. 핀란드의 자연과 전설은 그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작품의 기반이 된다. 또 핀란드는 오랫동안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지배아래 시련을 겪었다.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이들의 몸부림, 그 중심에 시벨리우스가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숲을 거닐 때에도 조국 땅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했다”고 말했다. 그의 음악은 핀란드를 깨우는 갓밤이었다.

낭만과 후기에 나타난 새로운 음악가들은 그들만의 독특함이 넘치는 기법-그들의 멜로디는 특별한 화성의 구속을 받아 그런 화성에 익숙해진 사람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으로 보편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 독특함을 국민악파라 부른다. 그들의 음악은 민족을 결합시키지만 그 결합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점이 국민악파가 고전 음악이나 낭만파 음악에 비해 제한적 사랑을 받는 이유다.

시벨리우스가 러시아 5인조나 여타의 국민악파 작곡가를 뛰어넘는 것은 그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가치 때문이다. 조국의 자연과 그에 따른 전설, 민요는 그의 음악의 제재가 된다. 그러나 그 어떤 요소도 표면적으로 묘사되어 드러나지 않았다. 그의 뛰어난 상상력과 창의력이라는 프리즘을 거치며 단

순하지만 서정이 넘치는 선율로 거듭난다.

그는 서유럽에서 선진음악을 배우고 헬싱키음악원으로 돌아와 바이올린과 작곡을 가르치면서 국민적 대 서사시 ‘칼레발라’ 연구에 열중하며 성장기를 보낸다. 이 서사시를 바탕으로 한 클레르보교향곡을 시작으로 민족어법이 강조된 교향시와 교향곡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국내외에 그의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며 절정기를 맞는다. 이 절정기의 문을 여는 작품이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흔히 북구의 암울함을 시벨리우스의 정서로 표현하지만 러시아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그의 음악은 긴 터널의 끝, 빛을 향해 에너지를 분출한다. 긴 겨울을 나아가는 핀란드에 여름날 백야는 빛의 축복이다. 어둠에 빛이 비치자 일순간에 어둠은 사라진다. 그의 음악은 극광의 빛이 서린 신비로운 백야다. 민족혼을 깨우는 ‘핀란드야’의 끝부분, 장중하고 생동감 넘치는 ‘핀란드야 찬가’는 바로 그 빛이다. 바이올린협주곡의 모든 모티브는 은밀하게 결합되어 유기적으로 발전한다. 이 결합에서 빛의 세계로 향하는 어둠속의 꿈틀거림, 시대적 갈망을 느낄 수 있다. 동기를 내밀하게 결합하여 발전시키는 작법은 후일, 단일악장 형식으로 작곡된 마지막 교향곡 7번에서 빛의 절정에 이른다. 특히 그의 바이올린협주곡은 동시대의 모든 바이올린협주곡을 뛰어넘는다. 달이 해를 가린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 이후, 핀란드는 러시아로부터 독립한다.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것. 그로부터 그의 샘은 서서히 말라버린다. 시련은 절정의 백야처럼 빛났고, 지나친 햇살이 사막을 만들었는가? 끝자락! 생의 삼분의 일은 겨울의 침묵이 되었다.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구소련의 보관소는 저장들의 40여만 곡의 연주음원이 보관된 보물창고다. 숲을 빼앗고 팀파니의 울림조차 시원의 춤이 느껴지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협주곡. 일라 그루베르트가 연주한 이 음반은 시간의 창을 통해 영원히 이어지는 보물중 하나다.

An American Wedding

미국식 결혼

다이앤 스틸명크스 _ 국제부인회 회원, 미국인

한국이든 미국이든 딸이 있으면 언젠가는 신부의 어머니가 되기를 꿈꿉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 봄 나의 역할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역할은 대단한 일이어서 마침내 신부의 어머니가 된 것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결혼식은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것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나의 드레스였습니다. 부산국제여성회 회원인 나는 올해 초 회원들과 실크페스티벌에 갔습니다. 결혼식 드레스가 생각나 실크쇼핑에 나섰지요. 부산에 돌아와서는 친구들이 부산진시장 근처 양장점에 데리고 갔습니다. 카트린느가 나를 위해 드레스 디자인을 보내왔지만 실크에는 다른 디자인이 더 어울릴 것 같으며 그곳 디자이너가 다시 디자인을 해주었지요. 그런 드레스를 결혼식에서 입게 된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여기 한국과는 다른 전통과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연습하는 결혼식 리허설을 갖습니다. 결혼 당사자와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 모두 결혼 전날 저녁 교회에 모여서는 어디에 앉고 설 것인가 등등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모두 같이 저녁식사를 하러 갑니다. 결혼식 전에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무척 좋습니다.

한국전통혼례의 '근배례'는 없지만 결혼식은 교회에서 행해집니다. 결혼식이 시작되면 신랑과 신부 어머니는 가족을 대표하는 촛불을 하나씩 밝힙니다. 식이 진행되면 신랑과 신부는 그 두 개의 촛불을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촛불을 밝힙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화합의 촛불밝힘>이라고 합니다. 식이 끝나면 신부, 신랑과 그 부모들은 모두 한 줄로 교회 문 앞에서서 결혼식에 와준 축하객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곤 사진을 찍은 후 신부와 신랑이 교회 문을 나갈 때 축하객들은 한국에서처럼 밤과 대추가 아닌 쌀을 던져 축복과 행복을 기원하고는 피로연 장소로 향합니다.

피로연은 아주 성대한 파티로 보통 식사가 포함됩니다. 국수와 떡은 없어도 돼지고기구이, 닭고기구이, 감자, 야채샐러드와 결혼케이크 등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축하객들은 가져온 선물을 들어오는 문 옆에 놓아 둔 테이블 위에 놓게 됩니다. 카드와 현금을 선물로 준비한 사람들을 위한 바구니나 상자가 또한 테이블 위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의 선물은 신랑신부를 얼마나 잘 아는가에 따라 보통 3만원에서 25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웃이나 친구는 좀 적게, 가까운 가족, 친구나 친척은 좀 더 많이. 하지만 선물로 물건도 주고 또 현금도 주지는 않고 하나만 합니다.

미국에서는 신부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골라 홈플러스 같은 상점에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좋아하는 침대시트나 믹서모델 같은 것들. 친지들이 그 물건들 중 골라 구입한 선물들은 결혼식전에 곧바로 신부 집으로 보내거나 피로연으로 가져옵니다. 또한 보통 방명록이 준비되어 축하객들이 사인을 합니다. 대체로, 카트린느의 결혼식은 꽤 전형적인 미국식 결혼이었습니다.

부산 친구들이, 전혀 만난 적도 없는 아이오와에 있는 나의 딸에 대해 관심을 보여 주어 무척 감동했습니다. '예비신부 축하선물파티'에서 여기 한국의 모든 훌륭한 친구들이 준 선물들을 발표하면서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 부산에서 이러한 멋진 우정으로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문화향기 가득한

도요예술인촌



가야국 김수로왕의 전설이 서려있는 무척산을 끼고 휘감아 도는 낙동강 끝자락에 자리한 한적한 시골마을 '도요마을'. 최근 이 곳에 예술공동체인 '도요예술인촌'이 조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던 비도 돌아간다'는 이 외진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분 것은 지난해 봄, '문화게릴라' 이운택 씨와 그가 이끄는 연희단거리패가 이 곳에 등지를 틀면서 부터이다. 지난해 개촌 10주년을 맞아 연극 메카로 거듭난 밀양연극촌을 대신해 새로운 예술공동체를 모색하던 이운택 씨가 김해 출신의 판화가이자 시인인 주정이 씨의 권유로 '도요마을'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마을 전체라 해봤자 모두 50여 가구. 조용하기만 하던 마을에 도요예술인촌이 조성되면서 마을 어르신들의 생활에도 차츰 변화가 생기고 있다.

폐교가 된 이 마을 이작초등학교 도요분교에 종합예술 창작공간인 '도요창작스튜디오'가 문을 열었다. 한 때 김해창작스튜디오가 들어서기도 했으나 활동이 뜸해 결국 문을 닫으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건물이 이번에 새롭게 변신을 마친 것. '도요창작스튜디오'는 연극공동체로서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밀양연극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존 연극 작업 외에도 문학, 출판,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진지한 성찰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종합예술 메카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도요창작스튜디오가 정착되면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창작 프로그램, 체험 학습의 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도요창작스튜디오에는 연기훈련장인 '액터스 스튜디오'와 배우들의 생활공간인 '배우의 집', 도요나루 도서관과 도서출판 '도요' 등이 들어서 있다. 지난해 3월 첫 발을 내딛은 도서출판 '도요'는 이운택씨가 발행인, 시인 최영철 씨가

도요림 전경



편집주간을 맡아 인문학과 예술전반을 아우르는 '도요상상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도요'는 그동안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주정이 산문집 '적막'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브레히트를 연구해온 이원양 씨의 에세이 '이원양 연극에세이'까지 총 6권의 책을 출간했다. 1만여권의 장서와 넓은 열람 공간으로 꾸며진 '도요나루 도서관'은 앞으로 인근 주민들에게도 개방해 지역의 '작은 도서관'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또한 밀양연극촌에 있던 '한국브레히트연극연구소'를 이 곳으로 옮겨 현대 세계 연극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브레히트를 지속적으로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예술인들의 주거공간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도요림'은 최근 입주를 시작하면서 '도요예술인촌'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8월 9일 이사를 마친 이운택 씨까지 현재 도요림에는 도서출판 '도요'의 최영철 시인과 부인인 소설가 조명숙 씨, 극작가 박현철 씨, 가마골소극장 대표 이윤주 씨, 연희단거리패 배우 김소희, 이승현, 변진호, 홍승주 씨 등이 입주해있다.

지난 7월 10일에는 '도요림' 입주를 기념하는 '도요북콘서트'가 도요림 마당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번 '도요북콘서트'에서는 최근 '도요상상총서'로 발간됐던 '햄릿과 마주보다(이운택 작)', 한국전쟁의 애환이 서린 국제시장 1세대들의 증언을 담은 '굳세어라 국제시장(이상섭 작)'의 책 소개와 낭독, 연희단거리패의 연극 '햄릿' 주요장면 공연, 저자의 뒷이야기 등이 펼쳐졌다. '도요북콘서트'는 지난해 10월 31일 '아버지가 된 남자의 아버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처음 펼쳐져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글, 사진/정복엽)

■ 문의/도요예술인촌(blog.daum.net/doyo2009)



도요 창작 스튜디오 연습실 내부



7월 10일 도요림에서 북 콘서트가 열렸다.



‘부·울·경’ 꿈의 합창축제

하순봉 _ 작곡가

‘2010년 부산·울산·경남 교류 음악회’란 타이틀로 부산, 울산, 창원 3개 시립합창단이 8월 19일 저녁 시민회관에서 합동 연주를 가졌다. 지휘는 창원시립의 지휘자 윤의중이 맡았고 금관5중주 팀이 특별출연했다. 이 3개 도시 연합 합창연주는 벌써 몇 년째 지속되어온 행사이다. 사실 영남권이 인구나 여러 규모면에서 수도권과 유일하게 비교될 수 있는 문화권이란 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그런 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음악적 역량이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음악회란 생각이 들었다. 사실 전국교향악 축제, 전국 합창 축제 등이 이미 있어 왔지만 다 수도권에서 개최되고 수도권의 사람들만을 위한 축제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이 부울경 합창축제는 좀 더 규모 있게 계획되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큰 행사로 거듭 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전체 프로그램은 대중성과 작품성을 안배한 선곡으로 무난해 보였다. 오프닝인 존 루터의 글로리아는 역시 종교음악의 대가다운 훌륭한 작품으로서 이번 연주의 압권이라 할 수 있었다. 오르간과 금관, 타악의 반주도 신선하고 인상 깊었다. 개선행진곡과 축배의 합창은 워낙 알려진 유명한 곡으로 나무랄 데 없는 연주였다. 문제는 남성합창이었다. 아무런 감동이나 인상을 주지 못했던 진부한 무대였다. 무엇보다 연습이 제대로 안됐고 늘 보여주던 남성합창단의 익살, 웅장함 같은(그것도 식상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재미조차 보여주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악한 편곡으로 된 곡 선정이 문제였던 것 같다. 음악적 변화나 긴장감도 없고 산만하고 핵심이 없었다. 부르는 단원들 스스로도 아무 감동이 없어 보였다. 또 곡 중 솔로는 연주력이 불안했다. 그에 반해 여성합창은 좋았다. 세련된 곡 선정과 연주가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사족격이지만 프로그램에 좀 문제점이 보였다. 이 음악회의 의의나 연혁, 그 간의 성과 등을 설명하는 인사말이나 소개가 전혀 없고 그냥 3개 합창단의 자화자찬과 지휘자의 화려한 약력만 전부였다. 그 흔한 시장의 인사말하나 없다. 그리고 오기

가 너무 많았다. 곡 글로리아는 당연히 각 악장의 소제목 표기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반주를 맡은 오르간, 타악, 금관 연주자 이름이 무슨 이유인지 다 누락되어 있다. 특별출연한 금관앙상블도 연주자 이름과 곡목이 적혀있지 않다. 그리고 브라스밴드란 표기보단 금관5중주나 브라스앙상블로 표기되어야 한다. pucini → puccini 로, nesun dorma → nessun dorma 로 표기돼야 한다. 이런 유명 작곡가의 이름이나 곡목이 오자로 나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얘기이다. 프로그램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단 느낌이 들었다. 물론 이 기간은 모든 시립연주단들이 휴가가 끝나고 막 복귀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시립합창단은 프로이다. 음악회 준비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사실 외국의 경우 오페라단에 주로 전문합창단이 있고 일반 합창단은 의외로 아마추어 단체가 많다. 이런 시립합창단 세 단체가 한꺼번에 연주하는 모습을 보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연합 합창단이 모일 때는 어떤 필연성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벤트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작은 합창단으로 다루지 못하는 웅장하고 규모 있는 대곡이라든지 또 평소에 각자의 정기연주회 때 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무대의 볼거리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면에선 글로리아를 제외하곤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홍보와 청중동원에서도 좀 실패한 듯 보인다.

최근 경남권에는 거대한 일련의 일들이 많다.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과 거제도과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 울산과 부산의 고속도로 개통, 경남권을 아우르는 신공항 추진 등 무언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권에서 거대한 융틀임이 느껴진다. 최근 드라마 김수로가 유행하고 있다. 최인호는 소설 ‘제4의 제국’에서 가야를 재조명 하였다. 가야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최고였고 악성 우륵이 나온 문화강국이다. 최근의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며 우리 가야문화권의 거대한 웅비가 아닌가 하고 나는 느낀다. 부분적인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연합합창단의 연주를 보며 나는 그런 우리 가야권의 음악의 결집을 보았고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제5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만난 작품들

김희진 _ 영화감독



‘이야기 속의 우주’ 2010년 다섯 번째를 맞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의 슬로건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그 이야기들 속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여기

에 어린이도 예외는 아니다. 어린이들이 바라보고 느끼는 우주는 어른들의 느낌보다 풍부할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올해 영화제의 개막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만난 작품은 <엘리사의 생일>이었다.

러시아의 장편 애니메이션은 처음이었다. 본격적인 영화제의 개막에 앞서 진행된 보수동 책방골목 비키골목극장에서 본 러시아 단편 애니메이션 <마샤와 곰> 시리즈에서 받은 즐거움 때문이었는지 무척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다. 게다가 미래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 애니메이션이니 말이다.

먼저 공식 상영작이기도 한 <마샤와 곰>에 대한 느낌을 먼저 밝혀야겠다. 울창한 숲 속 나무로 집을 짓고 사는 곰 미시카에게는 언제나 그를 귀찮게 하는 꼬마 소녀 마샤가 나타난다. 마샤는 미시카에게 항상 놀아달라고 투정을 부리고 미시카는 마샤의 부탁을 절대 거절하지 못한다. 가끔 꾀를 부려 보기도 하지만 마샤는 항상 미시카의 머리(?) 위에 있다. 천방지축 마샤의 사고를 무마해내려는 미시카의 힘겨운 노력은 이 작품의 재미이며 어린이를 동반하고 극장을 찾은 모든 어른들의 처지와 같다. 그럼 당연히 마샤는, 영화를 보는 아이들 그 자체다. 절대로, 네버, 미시카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마샤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들 모습이고, 바로 그 악동이다. <마샤와 곰>은 사고뭉치 마샤의 행동이 언제나 세상의 조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결국 미시카가 염려하고 보호하려고 한 모든 상황들은 마샤의 순수함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는 동안 이미 어른이 되어 버린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된 <마샤

와 곰>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허락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줬다.

<엘리사의 생일>에도 <마샤와 곰>에서 보았던 발랄함이 있었다. 미래의 아이들은 학교생활과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궁금증은 <엘리사의 생일> 첫 부분에서 해소된다. 역시 난장판이다. 아이들은 질서 속에 갇혀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 다시 증명되었다. 미래, 바이러스로 멸망한 소행성을 타임머신을 이용해 구해낸다는 지극히 만화적인 설정보다 나에게 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언제나 낙천적이고 활달한 애니메이션 속 아이들이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에 반응하는 관객인 아이들이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엎어지고 뒤엎길 때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아이들의 욕구를 러시아의 애니메이션 작가들은 너무도 잘 간파하고 있구나 하고 느낀 순간이다.

두 작품과 함께 이번 어린이영화제의 기쁨은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영화들을 본다는 것이다. [영화공간 보기드문]을 상영관으로 한 ‘어울림’ 섹션의 작품들은 어린이영화 경쟁 부문인 ‘레디-액션’으로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의 모음이다. 이 작품들을 직접 상영하면서 아이들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 그들이 가진 생각과 표현 욕구, 그리고 작품을 만들 당시의 즐거움 등을 느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든 아이들이 자신의 영화를 보며 보이는 반응의 순수함은 영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의 기능을 한다는 사회적 역할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언제나 영화제는 모든 영화를 다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접근해야 한다. 못 본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본 것에 대해 곱씹어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이번 제5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역시 아이들의 순수한 표정이 기억에 남는 영화제였다. 그 모습들을 보며 영화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깊이 논의되어야 함을 느끼고 어린이를 향한 영화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영화의 기능이라는 믿음을 재확인 했다. 결국 어린이처럼 된다면 애니메이션 속 어른들처럼 더 이상 어린이들에게는 당하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으로 올해도 어린이 영화제를 마감하고 말았다.

연극과 소통하는 아마추어 연극인 모임 부산연극지기



연극인과 관객이 함께하는 연극축제 '2010 소극장 페스티벌'의 막이 올랐던 지난 8월 7일 소극장 실천무대. 무대 위 불이 켜지고 배우들이 등장하자 관객들의 박수소리가 터져나온다. 이날 개막작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부산연극지기 아마추어 연극모임'. '관객'이 아닌 '소비자'로 전락해가는 지금의 연극문화 현실에 반기를 들고 올바른 관극문화 조성을 위해 결성된 아마추어 연극인 동호회이다.

'부산연극지기' 결성에는 극단 새벽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극아카데미'가 교두보 역할을 했다. '연극아카데미'는 연극이 대중의 삶에 다가서고 관객이 스스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 연극'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극단 새벽이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해온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연극지기' 회원의 대부분은 '연극아카데미' 출신들이었다. 지금은 그 뜻을 같이하는 일반인들이 참여하면서 현재 카페에 등록된 회원수는 170여명에 달한다.

이렇듯 '부산연극지기'가 관극 위주의 여타 동호회와는 차별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로서의 관객이 아닌 연극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수용자'로서의 아마추어 연극인을 지향하는데 있다. 이렇게 탄생된 것이 바



부산연극지기는 연극과 소통하는 '수용자'로서 올바른 관극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10 소극장페스티벌'을 통해 배우로 직접 무대에 선 부산연극지기 아마추어 연극모임

로 '부산연극지기 아마추어 연극모임(이하 아마추어 연극모임)'. 아마추어 연극모임은 이번 '2010 소극장 페스티벌' 개막 무대에서 연극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로 관객이 아닌 배우로 직접 무대에 섰다. 연기 뿐 아니라 기획, 음향, 조명, 무대 제작까지 모든 준비를 회원들이 맡으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서툴다는 뜻으로 왜곡되어 있는 아마추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번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공유하고 싶었다”는 극단 새벽의 연출가 이성민 씨. 이번 작품의 연출자로 배우들의 연기지도 맡았던 이성민 씨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단지 전업이나 비전업이냐의 차이’일 뿐이라 잘라 말한다. 이성민 씨는 이번 무대를 계기로 아마추어 연극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마추어 연극모임’은 앞으로도 일년에 한번씩은 작품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부산연극지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올바른 관극활동이다. ‘연극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부산연극지기’ 회원들은 1회성 소비로 그치고 마는 단순한 관극활동이 아닌, 좋은 작품을 찾아 관람하고 적극적으로 비평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연제작에도 직접 참여하는 ‘좋은 관객’이 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는 침체되어 있던 오프라인 모임을 활성화시켜 적극적인 관극활동과 함께 포럼 개최, 사전제작 지원을 통한 극단 후원 등으로 진정한 부산연극 지킴이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번 '2010 소극장 페스티벌' 개막작인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극중 '경숙'역을 맡아 연극무대에 섰던 회원 구현정

씨. 극단 새벽의 '연극아카데미' 출신인 구현정 씨는 신인답지 않은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고등학교 시절 연극부 활동을 통해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지난해 '연극아카데미' 16기생으로 연극과의 못다 이룬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

“경숙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부터 세세한 리액션까지 하나하나 고민이 많았다”는 그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시간을 갖지 못한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회원 배민수 씨에게도 이번 작품의 의미는 남다르다. 지금까지 연기자로 무대에 서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 작품에서는 기획을 맡아 동분서주했다. 대학시절 마당극패 회원으로 연기를 시작한 배민수 씨는 지난 2000년 연극아카데미 전신인 연극교실을 수료하면서 극단 새벽과 인연을 맺었다. 한때 대학로에서 연기자로 지내기도 했으나 취직과 결혼을 하면서 한동안 연극과 멀어졌던 그는 지난해 4월 연출가 이성민 씨의 권유로 다시 무대에 섰다. 연극아카데미 동문 합동공연인 '뿌띠 부르주아의 결혼'을 통해 배민수 씨는 아마추어 연기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고 한다.

현재 '부산연극지기' 운영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배민수 씨. 이번 '소극장 페스티벌'이 끝나고서 부쩍 더 고민이 많아졌다는 그는 이번 작품 활동을 계기로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부산연극지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중이다.

■ 문의/부산연극지기(cafe.daum.net/saebyeokad)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2010 부산마루국제음악제 Pre Fringe Concert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연주회

9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2010년 새롭게 시작하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에 앞서 음악축제의 분위기를 돋우어줄 프린지콘서트.

그 첫 무대로 1989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정우영의 제자들로 결성된 부산클라리넷 콰이어가 감미로운 클라리넷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교향곡 제 40번(편곡/한상헌)
바르톡/루마니아 포크 댄스(편곡/H.이와이)
슈만/트로이메라이
피아졸라/리베르탱고 등 수곡

- 지휘/정우영
- 관람료 무료
-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070-7687-8292)

제 2회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9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부산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헨델의 Rodelinda를 시작으로 같은 가사, 다른 멜로디로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김순남 작곡 산유화, 이현철 작곡 산유화와 화려한 콜로라

투라 소프라노 아리아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Zum leiden bin ich auserkoren(나는 괴롭다)' 등을 들려준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엄남이(010-7519-9843)

하지희 가야금 독주회 어느 푸른 날

9월 3일 금요일 오후 7:00 소극장



국립국악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출신 가야금 연주자 하지희 독주회.

산조가야금, 25현금, 북한악기 옥류금으로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대풍류
북한의 가야금산조/안기옥류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김미정/33현의 울림과 2현의 흘림(초연)
이지혜/아리랑을 펼치다_ 진도(부산초연)

- 관람료 전석초대
- 문의 하지희(010-9310-3966)

2010 부산마루국제음악제 Pre Fringe Concert 로제앙상블 연주회

9월 5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2010년 새롭게 시작하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에 앞서 음악축제의 분위기를 돋우어줄 프린지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서영희, 박민경, 김상



희, 비올리스트 조진영, 한동민 등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고 패기 넘치는 클래식 연주자들로 결성된 로제앙상블이 활기찬 축제를 열어준다.

작품

멘델스존/현악 8중주
생상/동물의 사육제

- 관람료 무료
-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070-7687-8292)

테너 오동주의 2010 September Story

9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경성대학교와 이탈리아 루이자 단눈치오 국립음악원, 이탈리아 페스카라 국립아카데미 오페라 연기과를 졸업하고 귀국, 부산시립합창단 기획,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목련합

창단 지휘자, 남성성악앙상블 4+1, 이태리음악연구회 회원 등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오동주 독창회.

프로그램

라라/그라나다
G. 푸만티/고요한 저녁바다
나운영/달 밤
최석태/참 좋으신 주님, 갈보리의 사랑
레온카발로/오페라 '팔리아치' 중 'Recitar!.. Vesti la giubba(의상을 입어라)'

- 특별출연/소프라노 최선희, 테너 이영일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오동주(010-4556-5058)

소프라노 김윤희 독창회

9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고신대학교, 이태리 Salerno 국립음악원, 이태리 Romana delle Arti Musicali 아카데미 연주자과정, 오페라 해석 및 연구과정을 졸업하고 서울 펠리체 앙상블 단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김윤희 독창회.

이태리 로마와 부산에서 3회의 독창회를 가진 바 있는 김윤희는 이태리 Roma La Vetrina dell'Opera(문화예술협회) 주관 Opera 'Mese Mariano'를 비롯해 부산콘서트콰이어 주최 Opera 'Amahl and the night visitors', 고신대학교 교회 음악과 30주년 기념오페라 '사랑의 원자탄'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 H. 퍼셀/오페라 '디도와 에네아스' 중 '그대의 손, 벨린다여! 내가 땅에 묻힐 때'
- J. 브람스/집시의 노래 작품 103
- 라벨/Chant populaire 민요 노래-스페인 노래, 프랑스 노래, 이탈리아 노래, 히브리 노래
- L.로날드/삶의 여정-전주곡, 봄, 여름, 가을, 겨울
- C.구노/오페라 '사바의 여왕' 중 '마침내 나 홀로 남았네... 더욱 위대하게, 알 수 없는 암흑 속에서'
- 피아노/이영민(성신여대 대학원 반주과 교수)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한 퍼포먼스 컴퍼니 기획공연 한수정의 ICE BABY

9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10여 년간 부산시립무용단, 울산시립무용단 단원으로 활동해온 한수정이 창작 작업을 위해 시립무용단 생활을 접고 새롭게 출발하는 첫 무대 'ICE BABY'.

한 퍼포먼스컴퍼니를 결성, 정기공연을 비롯해 금정산생명문화축전 2004, 부산 NGO 축제 개막



식 공연, 목포 전국우수마당극제전에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해온 한수정은 이번 무대에서 기계 문명과 순수이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그 물음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대응을 퍼포먼스 'ICE BABY'에 그려냈다.

작품

- Prolog Destructive Instinct 파괴본능
- Episode 1 공(空)의 경계(境界)
- Episode 2 흩뿌려진 혼(魂)
- Episode 3 ICE BABY
- Episode 4 Missing link-Sediba

잃어버린 고리 - 원천(源泉)인류

- 안무/한수정 · 대본, 연출/윤준호
- 음악편집/김성태
- 출연/한수정, 안주현, 임선희, 지숙정, 진현주
- 관람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한수정(017-575-2147)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3 정재형이 만드는 음악회 Le Petit Piano 그 첫 번째...

9월 10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무대와 객석이 친밀한 소극장 특성을 활용해 뮤지션과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소극장

콘서트 문화를 열어온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 아래 그 콘서트' 열 세번째 주인공 '정재형' 첫 부산 단독 콘서트.

뮤지션으로 가수, 작곡가, 에세이스트, 영화음악감독에서 피아니스트로 돌아온 '정재형'은 1995년 혼성 그룹 '베이스스'로 데뷔한 이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 영화 음악과 작곡을 공부했으며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영화음악 작곡과 자신의 정규 앨범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지난 4월 발매한 '르 뷔띠 피아노(Le Petit Piano)'는 정재형이 직접 작곡하고 연주한 8곡의 피아노 연주곡이 실린 4집 정규 앨범으로 클래식 차트 6주간 정상에 차지하며 그의 음악적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30회 정기연주회

창작 가족오페라 **공쥐팔쥐**

9월 11일-12일 토-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전상철 오정국 최석태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주제인 권선징악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 '공쥐팔쥐'를 창작 가족 오페라로 재구성, 새롭게 선보이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30회 정기연주회.

부산문화회관 재개관을 기념하며 준비한 이번 무대는 '인류 최초의 키스' 'BC 2430' '길 끝에서' '얼굴 없는 피카소' '그 섬에서의 생존방식',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출판 '이쁜이 시집가는 날' '장화 흥련' '평강과 온달'등을 연출한 오정국이 대본과 연출을 맡아 청소년들에게 선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합창단원 전체가 주역 및 조역으로 독창, 중창,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합창, 연기, 춤 등을 선보인다.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대본, 연출/오정국 · 작곡/최석태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바리톤/서관수 · 신디사이저/문지은
- 특별출연/장용균, 강은태, 최춘식, 김웅태, 최성규, 이형성, 오동주

■ **관람료** 균일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서윤진 피아노 독주회

9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서울대학교와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윤진 독주회.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Concerto Competition에서 모든 악기부분 1위를 차지, UT Symphony Orchestra와 협연무대를 가진 서윤진은 Young Texas Artists Music Competition 특별상, Sidney M. Wright Endowed Presidential Scholarship Competition in Piano Accompanying 3위, 예술문화교류 국제협회 음악콩쿠르 대상, 이태리 Valeria Martina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모든 악기 부분 최고점으로 전체 1위, Italian Festival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1위, Bartok-Kabalevsky-Prokofiev 국제 피아노 콩쿠르 프로코피에프상, IBLA 국제콩쿠르 수상 등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
브람스/환상곡 작품 116
알베니스/이베리아 중 Pavana - Capricho, T. 48
히나스테라/피아노 소나타 등

프로그램

브람스/환상곡 작품 116

알베니스/이베리아 중 Pavana - Capricho, T. 48

히나스테라/피아노 소나타 등

■ **관람료** 전석 20,000원(학생 50% 할인)

■ **문의** 서윤진(019-353-5930)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제3회 정기연주회

9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2008년 부산대학교 최정순 명예교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제 3회 정기연주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자들이 관객 우선의 친근한 클래식 음악을 나누기 위한 무대를 펼친다.

작품

생상/로맨스

쇼팽/스케르쑈 3번, 발라드 1번

피아졸라/그랜드탱고

거쉰/‘포기와 베스’ 테마에 의한 판타지 등 수곡 출연

피아니스트 최은주, 김은희, 정자영, 이영희, 기타리스트 고충진, 플루티스트 김선영, 테너 윤정윤 등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노은주(010-2565-9780), 이혜경(010-2881-5921)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6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9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지휘 김봉미

차세대 음악가들의 등용문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6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유망주들이 김봉미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다. 김봉미는

2007년 독일에서 귀국, 세련된 바톤 테크닉과 활력 넘치는 음악, 섬세하면서도 전체를 장악하는 카리스마를 지녔다는 호평을 받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중 제 1악장

칼리보다/오보에 소협주곡 중 제 1악장

브루흐/바이올린협주곡 중 제 1악장

그리그/피아노협주곡 중 제 1악장

랄로/스페인 교향곡 중 제 1악장

모차르트/플루트협주곡 중 제 1악장

차이코프스키/로코코 주제 변주곡 중 서주와 주제, 제 1, 2, 3, 7번주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 지휘/김봉미(서울필하모닉 전임지휘자, 시흥시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협연/김경지(바이올린, 부산예고 3년), 박인영(오보에, 부산예고 2년), 강인애(바이올린, 남문초 6년), 김소정(피아노, 부산예고 1년), 임정은(바이올린, 부산예중 2년), 김여진(플루트, 부산예고 3년), 박혜진(첼로, 부산예고 3년), 김민경(바이올린, 부산예고 2년)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김영미 플룻 독주회

9월 18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서울대학교와 프랑스 Ecole Normale de Music de Paris, Le Diplome Superieur d'execution de Flute(수석 졸업), Le Diplome Superieur d'execution de Music de chambre(수석 졸업), Ecole National de Music de Val maubee를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플루티스트 김영미 독주회.

일본 국제 Convention 콩쿠르 3위, 특별 연주상, France U.F.A.M 국제콩쿠르 1위, 동아콩쿠르 최고성적에 입상한 바 있는 김영미는 그동안

KBS교향악단, 사라예보 필, 체코 체코보헤미안 필, 불가리아 Plovdiv State필하모니, Tokyo Prime필하모니, 유라시안필하모니, 서울 심포니 에타, 서울심포니 등과 협연한 바 있다.

KBS교향악단 수석주자를 역임한 김영미는 현재 앙상블 tukutuku 음악감독, 유로아시안 페스티벌 감독, 계명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르클레르/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 8번
사장조

가네/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안단테와 스케르조
바르톡/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Suite Paysanne
Hongroise'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20,000원(학생 50% 할인)
- 문의 김수경(010-9443-9911)

뮤클합창단 제 5회 정기연주회 포레 레퀴엠

9월 25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노래에 대한 흥미와 열정으로 출발한 뮤클합창단의 제 5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민합창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뮤클합창단은 영광도서 연주회, 문화행사 등에 참석하며 인지도를 높여 왔다.

지난해 모차르트의 레퀴엠 작품에 이어 올해는 포레의 레퀴엠을 들려준다.

- 지휘/엄현섭
- 피아노/이은혜 · 소프라노/박미경
- 바리톤/김진용 · 해설/김희성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뮤클합창단(010-2307-6922)

동그라미 노래모임 제 15회 정기공연

9월 26일 일요일 오후 4:00



하비비, 도시의 그림자, 작품 하나 등 1980년대 대학 음악동아리 출신들이 의기투합, 아름답고 서정적인 노래를 창작, 보급하며 사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그라미 노래모임의 제 15회

정기공연.

이번 공연 수익금은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기금으로 쓴다.

프로그램

계절이 가는 강가에서, 사랑 그리고 이별, 수풀을 헤치며, 뚜벅 뚜벅 등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윤용록(017-554-0408)

제14회 조현선 피아노 독주회

9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Muse Trio 창단 멤버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해온 경성대학교 조현선 교수의 제 14회 피아노독주회.

조현선 교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부산심포니오케스

트라, 모차르트챔버오케스트라, Moscow String Quartet, New York Phil. String Quartet, Ars String Quartet 등과의 협연무대, 미국 Delta Omicron 초청 연주, 광복 50주년기념 대한민국 작곡대제전, 한국작곡가협회, 한국피아노학회, 여성작곡가회, 부산국제음악제, 제1회 부산현대음악제, 광주국제음악제, 대구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등의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라벨/라발스
라흐마니노프/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쇼팽/폴로네이즈 판타지 작품 61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KV.570

이상근/파랑새 변주곡

쇼팽/녹턴 작품 9 제 2번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독우회 제 41회 정기연주회

9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독일에서 공부한 음악가들로 구성된 독우회의 정기연주회 무대로, 1Piano 4hands, 피아노 트리오 등 다양한 형태의 피아노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1Piano 4hands 소나타 K.381

슈베르트/판타지 작품 103

쇼팽/피아노트리오 작품 8

데메르스만/플룻, 오보에, 피아노를 위한 윌리엄 텔

- 연주/이문숙 & 김지민, 김남숙 & 강혜경
- 정희경 & 이광식 & 김판수
- 곽윤희 & 정옥경 & 권성은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소프라노 김지현 프렌치 샹송과 아리아

9월 28일 화요일 오후 8:00 소극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와 Long Island

리셉션·식사·각종모임 예약 80석

MOZART

모짜르트 레스토랑
예약문의. 051) 622-1465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University에서 음악수업을 한 소프라노 김지현이 들려주는 프랑스 상송과 아리아의 밤.

이번 연주에서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곡가 포레, 뒤파르크, 쇼송, 드뷔시, 풀랑 등의 가곡과 프랑스 특유의 오페라(대합창, 대오케스트라)를 발표한 대표적 작곡가 구노, 오펜바흐, 샤르팡티에의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포레/꿈꾸고 난후

쇼송/별새

드뷔시/별이 빛나는 밤

풀랑/사랑으로 가는 길

구노/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나는 꿈속에서 살고파라'

오펜바흐/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서나무 울타리의 새' 등 수곡

· 피아노/양경호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지현(010-3504-3201)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36회 정기연주회 프랑스 음악의 밤

9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동신

김영립

이은정

프랑스 19~20세기 초기에 작곡된 작품성 뛰어난 프랑스 명곡들을 들려주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36회 정기연주회.

고전적인 틀에서 벗어나 프랑스적 음악을 추구하였으나 고전 음악과의 절제와 조화도 잘 되어 있는 구노, 드뷔시와 더불어 인상주의 대표 작곡가 라벨, 독일 작곡가를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

은 프랑스 작곡가이기를 자처한 댕디의 작품을 통해 전통과 새로움에서 고민한 작곡가들을 만나본다.

프로그램

구노/'파우스트' 중 '발레음악' 발체

라벨/서주와 알레그로

댕디/프랑스 산 사람들의 노래에 의한 교향곡 작품 25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김영립(하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이은정(피아노,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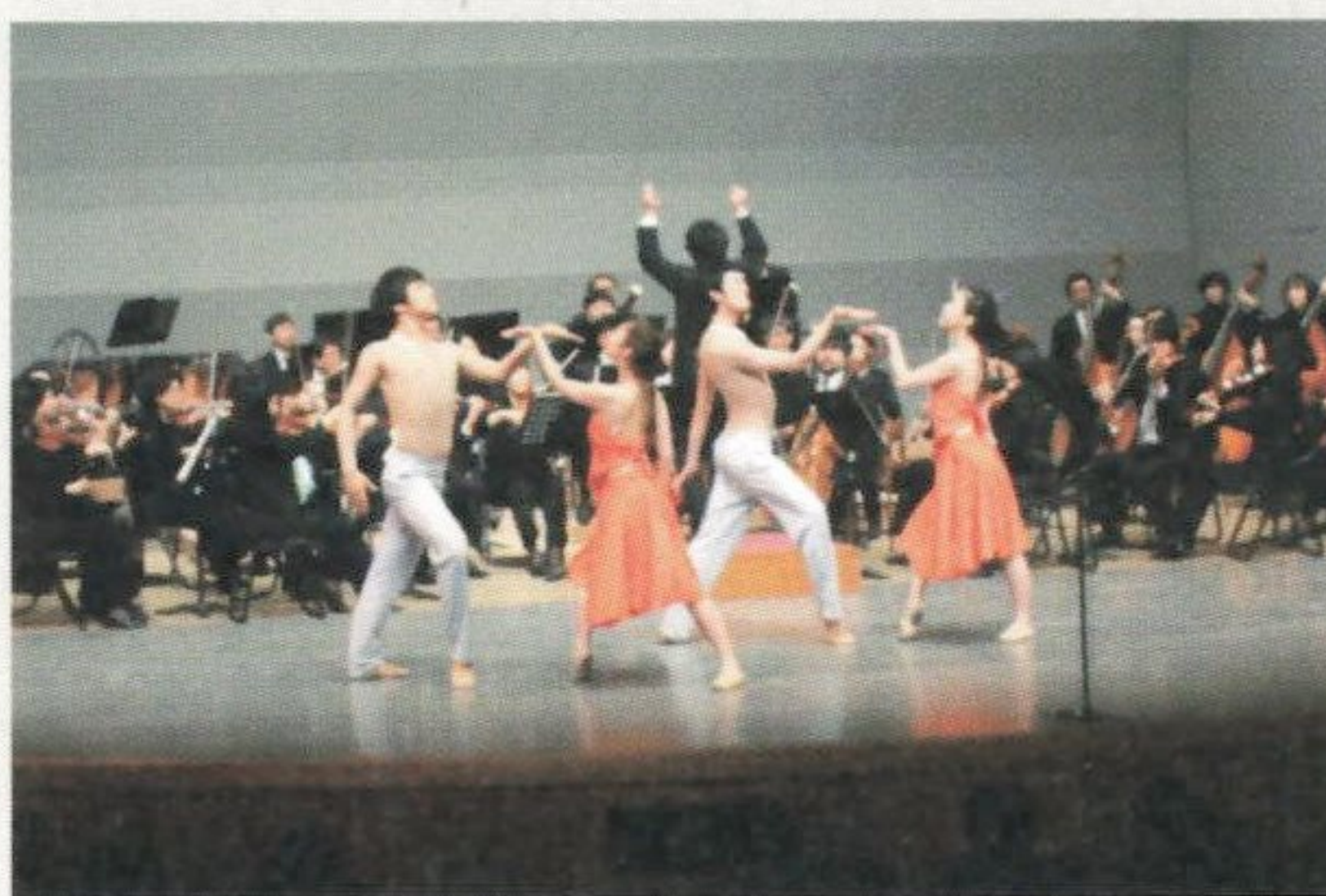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0 웰빙콘서트 Dance in Classic III

미뉴에트와 스케르초 - 교향곡의 식구가 된 댄스

9월 30일 목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0 웰빙콘서트 Dance in Classic' 세 번째 무대.

클래식 음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다소 평가절하된 춤곡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2010 웰빙콘서트 시리즈 Dance in Classic'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이동신의 지휘, 음악칼럼니스트 김문경의 해설과 아름답고 흥겨운 클래식 선율과 어우러지는 발레리나 김희쟁의 화려한 댄스를 더해 미뉴에트와 스케르초 춤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교향곡 제39번 내림마장조 작품 543

장-필립 라모/'우아한 인도의 나라'중 '미뉴에트' 헨델/수상음악 모음곡 제1번 중 '미뉴에트' 모차르트/협주곡 제 5번 가장조 '터키' 작품 219 베토벤/교향곡 제 1번 다장조 작품 21

멘델스존/'한여름밤의 꿈' 작품 61 중 '스케르초'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 9번 내림마장조 작품 70

· 지휘/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해설 및 진행/김문경

· 바이올린/이은옥(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안무 및 댄스/김희쟁

■ 관람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마임이스트 김세진 마임 10주년 기념 지니 마임페스티벌 II New & Joy

9월 30일-10월 1일 목-금요일 오후 5:00, 8:00 소극장



부산의 대표적인 마임이스트 김세진의 마임 10년을 기념하는 지니마임페스티벌.

지난해 세계 델픽대회 즉흥마임부문 동메달을 수상한 김세진이 지니마임페스티벌 I -

Old & Best(9월 2일~3일, 부산시민회관)와 지니마임페스티벌 II -New & Joy(9월 30일~10월 1일, 부산문화회관)로 마임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일상의 한 단면을 마임 작품화한 옴니버스 형식의 창작 마임을 엮은 New & Joy에서는 TV 동영상, 강아지, 버스정류장, 새, 그 남자 그 여자 등을 선보인다.

부산시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김세진은 그동안 전주국제마임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부산국제연극제, 춘천마임축제, 헤이리 예술인마을 등에서 공연을 가지며 전국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 연출/김세진

· 출연/김세진, 이현남, 이은주

■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5시 공연은 균일 10,000원)

■ 문의 극단 세진(623-0678)

2010 이명진 첼로 독주회 2B+S 두 번째 시리즈

10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2009년 베토벤, 브람스, 슈만(Beethoven, Brahms & Schumann) 작품으로 마련한 2B+S 무대에 이어 2010년 2B+S 두 번째 시리즈로 마련하는 동아대학교 이명진 교수의 첼로 독주회.

이명진 교수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나탈리아 구트만이 극찬한 우리나라 최고 첼리스트 중 한 명으로, 독일 Folkwang 콩쿠르에서 16년 만에 첼로 부문이 대상을 거머쥐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베를린 필 지휘자 Claudio Abbado가 대표로 있는 Oleg Kagan 국제음악제에 1999년부터 정기적으로 초청되어, 바리톤 Dietrich Fischer-Dieskau, 바이올린 K. Blacher(베를린 필 악장), Nigel Kennedy, 피아노 V. Lobanov, 비올라 V. Mendelssohn, 첼로 N. Gutman, F. Helmerson, 조영창, 소프라노 Dame Mararet Price 등 대가들과 실내악 연주를 함께하며 국제적으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함께 연주하는 올리버 케른(Oliver Kern)은 베토벤과 브람스 연주에 독보적인 피아니스트로 현재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4번

브람스/소나타 1번

슈만/환타지

· 피아노/올리버 케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2010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아시아는 지금'展

▶ 9월 12일~11월 20일(70일간)

부산문화회관, 부산시청 전시실, 금련산갤러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청 전시실 : 9월 12일~9월 30일)

- '진화속의 삶(Living in Evolution)'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부산비엔날레의 특별전 '아시아는 지금'展이 부산문화회관, 부산시청 전시실,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 동아시아의 지역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대 아시아 미술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보여줄 '아시아는 지금'展은 한·중·일 3개국의 젊고 실험적인 작가 180명이 그들의 최근 작업경향을 보여줄 대표작품 1점씩을 출품, 동시대 아시아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한자리에서 보여준다. 특히 이 전시는 부산비엔날레 본 전시와 같은 주제전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현대 아시아 미술의 조망을 위해,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와 표현방법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한국 작가 144명, 중국 작가 29명, 일본 작가 7명이 참가한다.



■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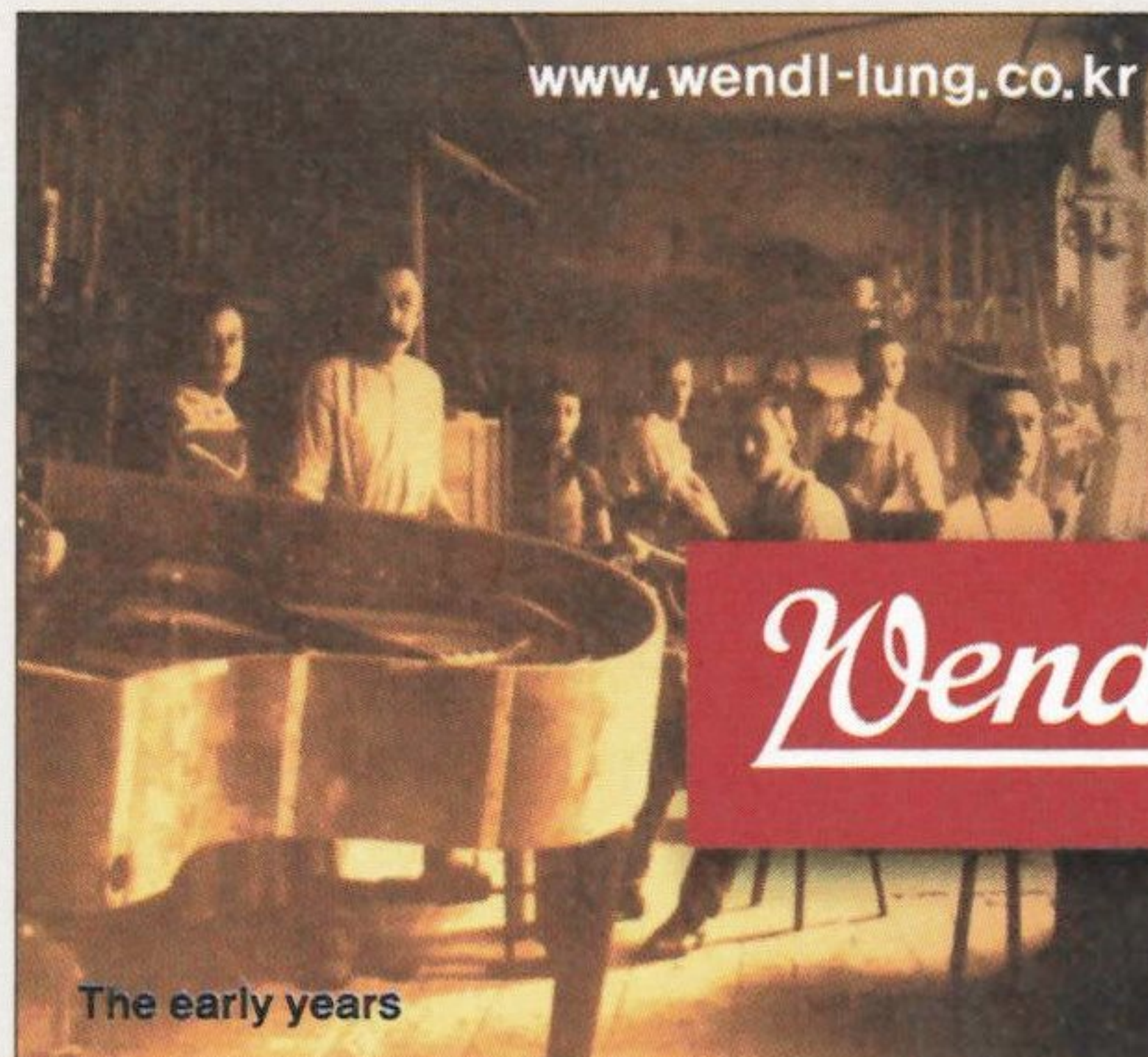
韓·中·日 지금의 작가전

- 기간 9월 12일~11월 20일(부산문화회관 9월 12일~9월 30일)
-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중전시실, 금련산 갤러리
- 규모 136명 136점(한국 83명, 중국 26명, 일본 7명)
- 내용 한·중·일 젊은 현대미술 작가들의 근작들을 통해 아시아 미술의 오늘을 총 망라해보는 전시

韓·中·日 극사실 작가전

- 기간 9월 12일~9월 30일(19일간)
- 장소 부산시청 전시실
- 규모 44명 44점(한국 41명, 중국 3명)
- 내용 현대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흥미와 관심을 위해 실시하는 한·중·일 극사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전

■ 문의 :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051-503-6579, www.busanbiennale.org)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1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Program 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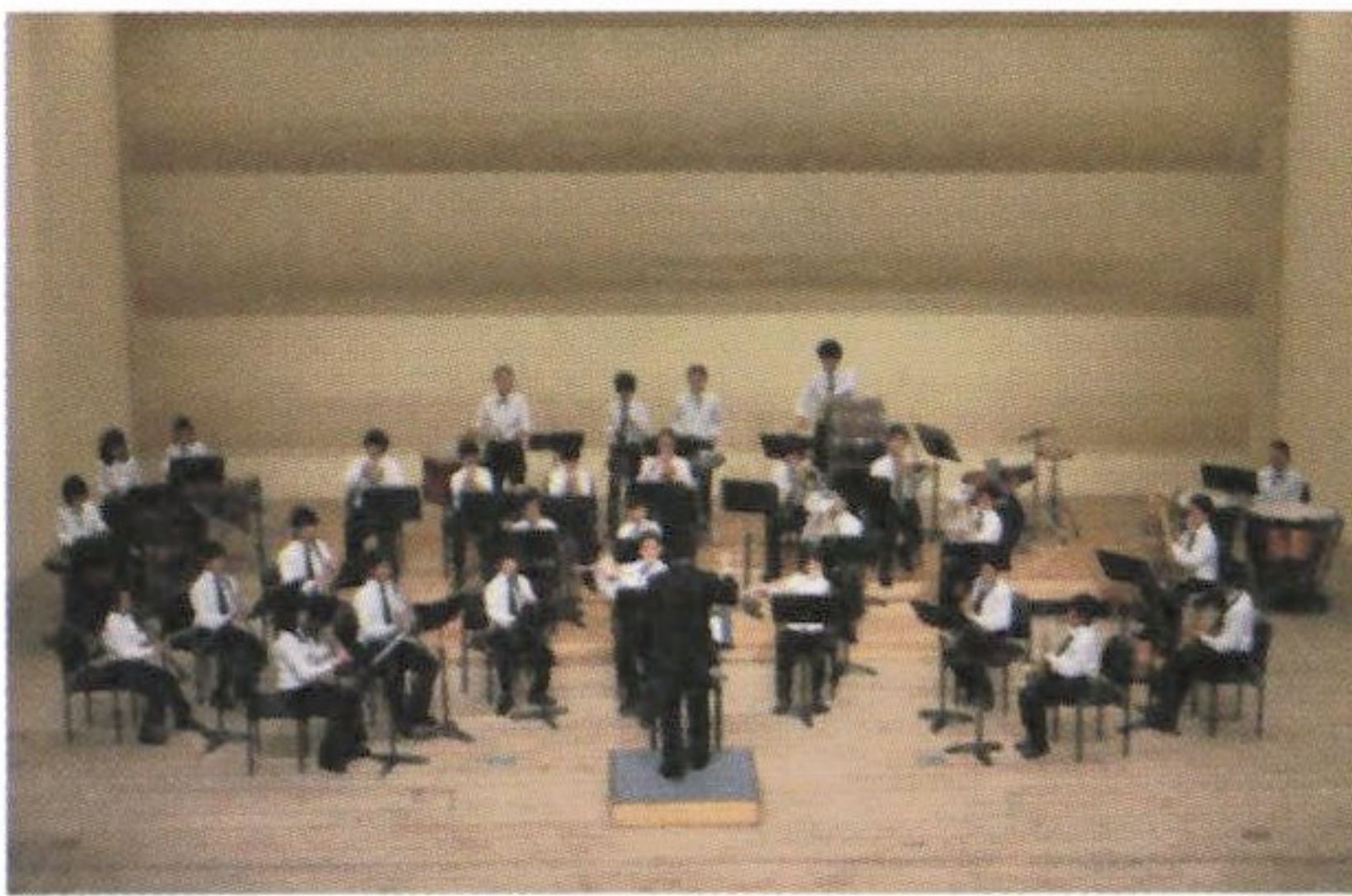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MUSIC

2010 제 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콘서트

9월 1일(수)-11일(토)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을숙도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외



동성드림윈드오케스트라

제 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최를 기념해 부산, 경남지역 42개 연주단체가 참여하는 프린지 콘서트.

▶1일(수)

- 오전 10:30 부산혜성학교-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 오후 7:00 백양로총성교회 -기독교대 교수선교찬양단
-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클라리넷콰이어

▶2일(목)

- 오전 10:30 송운초등학교-ACC양상블
-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YMCA오페라합창단

▶3일(금)

- 오후 3:00 광안리해수욕장-브로큰피스
- 오후 3:00 그랜드자연요양병원 -일파가야금합주단
- 오후 6:00 대동병원 로비-대동윈드오케스트라
- 오후 6:00 서면밀레오레 야외무대-카를체르니
- 오후 7:30 온천천 세병교-부산그린뮤직

▶4일(토)

- 오후 3:00 김해2171부대-에코플루트콰이어
- 오후 3:00 해운대 대천공원 -부산뮤즈플루트앙상블
- 오후 5:00 스포원파크-부산색소폰합주단
- 오후 5:00 글로빌 아트홀-콰르텟아이네
- 오후 5:00 범어사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 오후 6:00 민락수변공원-모노부산아카펠라
- 오후 7:00 온병원 지하강당 -동성드림윈드오케스트라
-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YMCA부산오페라합창단
- 오후 7: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색소폰콰이어
- 오후 7:00 해운대해수욕장-젠크소폰앙상블
- 오후 7:30 온천천 세병교-부산그린뮤직

▶5(일)

-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로제앙상블
-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신라윈드오케스트라

▶6(월)

- 오후 3:00 백병원 해운대-플루트콰르텟 '클랑'

▶7(화)

-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YMCA부산오페라합창단
- 오후 7: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마사모연주단

▶8(수)

- 오전 11:00 해운대역 광장-ACE 목관5중주

▶9(목)

- 오전 11:00 부산시립미술관-부산챔버앙상블
- 오전 11:00 용두산공원-다이내믹 금관5중주
- 오후 4:00 동아대병원 로비-부산여성합창단

▶10(금)

- 오전 11:00 부산시립박물관-미포 현악4중주
- 오후 2:00 부산역 역사-그린챔버앙상블
- 오후 3:00 부산역 광장-부산YMCA 네오피하 모닉오케스트라

- 오후 3:00 서면밀리오레-브로큰피스

▶11(토)

- 오전 11:00 수자원공사 물문화관-재즈공감밴드
- 오후 1:00 춘해병원 강당-부산플루트앙상블
- 오후 3: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문향예술연구회
- 오후 3:00 서면지하철역 8번출구-4크라베이스
- 오후 3:00 해운대 대천공원 -부산뮤즈플루트앙상블
- 오후 3:00 기장군청 대강당 -기장군소년소녀합창단
-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브릴란트앙상블
- 오후 3:00 서면밀리오레 야외무대 -부산 팝&재즈빅밴드
- 오후 6:00 연안부두 광장 -YMCA부산오페라합창단

- 관람료 무료

-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 (070-7687-8292, www.bmimf.co.kr)

아르고 윈드오케스트라 제 3회 정기연주회 영화음악이 있는 가을의 향기

9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영상이 있는 영화음악까지 다채로운 연주곡을 들려주는 아르고 윈드오케스트라(지휘/이상용)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 협연/소프라노 남지희, 테너 이민호

- 관람료 무료

- 문의 이상용(010-4576-4844)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22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일 박성희의 소리판

대통령상 수상 기념 판소리 다섯마당 눈대목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퓨전국악단 '타로' 공동대표로 있는 소리꾼 박성희가 2010 장흥 전통가무악전국대전 대통령상 수상을 기념해 심청가, 춘향가 등 판소리 다섯마당 중 주요 눈대목을 들려준다.

- 교수/신문범(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특별출연/퓨전국악단 타로

▶8일 '4인 4색' 성악 연주회

소프라노 신정순, 메조소프라노 이민정, 테너 이한성, 바리톤 고봉수가 들려주는 '4인 4색' 무대.

▶15일 소프라노 강부영 초청 귀국독창회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대, 밀라노 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강부영 초청무대.

▶29일 제 4회 꿈유빌로합창단 정기연주회

객석과 교창하는 미사곡 '천사미사'

폴리포니를 중심으로 무반주합창을 들려주는 꿈유빌로 합창단의 4번째 정기연주회.

- 지휘/이창룡(동아대학교 교수)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국립부산국악원 청소년예술단 창단공연

9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이 전통공연예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결성한 국립부산국악원 청소년예술단 창단공연.

- 관람료 무료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BN그룹과 함께하는 제 3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9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오충근 유미숙 박현재

'유럽 음악여행'이라는 테마로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음악여행을 떠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작품299
마스카니/오페라 '라미코 프리츠' 간주곡
라벨/라 발스 등

- 지휘/오충근(고신대학교 교수)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협연/소프라노 유미숙, 테너 박현재, 플루티스트 박지은, 하피스트 박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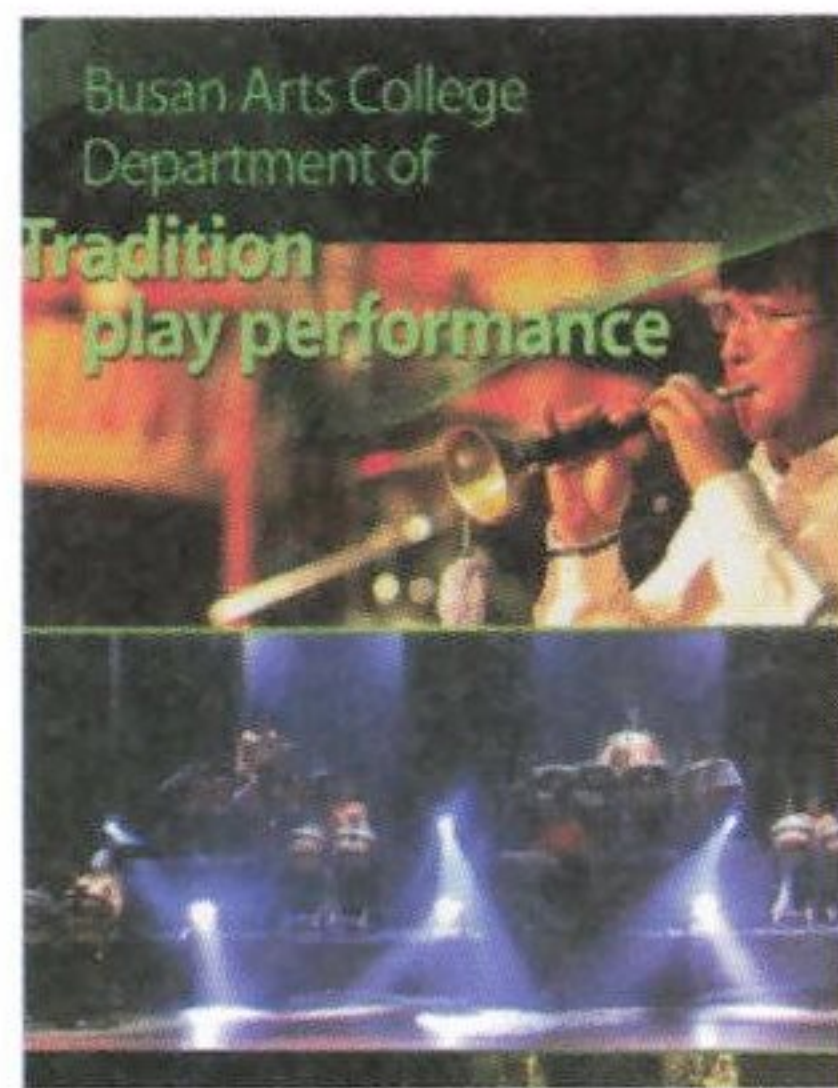
- 관람료 VIP 1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KNN(1577-7600)

부산예술대학 전통연희과 신설기념 교수 음악회

9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2011년 신설되는 부산예술대학 전통연희과 설립을 기념해 마련되는 교수음악회.

- 해설/정영진(부산시 문화재 전문위원)
- 연출/강열우(부산예술대학 교수)

- 관람료 무료(당일 선착순 좌석배정)
- 문의 부산예술대학(628-3991)

스크린과 함께하는 피아노음악회

9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프랑스 파리 에콜노르말을 졸업하고 현재 창신대학 겸임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지선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음악을 스크린 영상과 함께 들려준다.

- 영상, 편곡/김병기

- 찬조출연/전재우(바이올린), 김진욱(더블베이스)

- 관람료 무료
- 문의 이지선(017-553-7772)

한국어린이문화연구회가 만들어가는 제 5회 부산사랑 창작동요발표회

9월 3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1년 부산, 경남지역 동요작가들로 결성된 한국어린이문화연구회가 교과서에 등장하는 시와 부산사랑을 노래한 작가 선용의 시에 곡을 부친 창작동요를 들려준다.

- 작곡/류지원(회장), 신진수, 김성덕, 우덕상, 안진현, 안성주, 오희섭, 조혜진, 서필상, 최원웅, 장신영

- 특별출연/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 우정출연/용문초등학교 합창단

- 관람료 초대
- 문의 류지원(010-3864-9889)

Saratomi 愛Say... 사라토미 사랑을 말하다

9월 4일 토요일 오후 7:00 MBC롯데아트홀



부산 출신의 퓨전 바이올리니스트 사라토미와 피아니스트 문효진, 가야금주자 장원희, 춤꾼 이윤정이 펼치는 4인 4색 무대.

- 찬조출연/부산진구 어린이합창단, 고충진

창업 55주년 (1955년 2월 1일)

문우당서점 지도센터
에서 연구 개발하여 획기적인 세계지도 발명특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 나온 세계지도입니다

이 세계지도는 문우당서점에서만 판매하나, 서점, 문구점에서 판매를 원하시면 도매합니다 (소매가격 ₩7,000)

전화 241-5555(대표)

전국최고의 종합지도센터!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Since 1955

문우당서점

남포동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문의: 241-5555(대표) / 241-5555(1F) / 051045-1187, 051043-2332

Since 1955

문우당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

남포동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미니를 건너편]

각종 공연 예매처
CGV 10%적립, 통도원타자, 경주월드 할인판매처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클래식기타솔리스트), 박창길(웨스턴 팝 바이올리니스트), 까뮤(탱고 댄서)

- 관람료 VIP 50,000원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문의 유니세프 부산사무소(501-0087)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4일 프로그램

우조시조 '월정명', 살풀이, 진주교방굿거리춤, 실내악 '민요연곡', 거문고협주곡 '강상유월' 등

▶11일 프로그램

향발무, 대금산조, 학춤, 실내악 '동천', 동부민요 '쾌지나칭칭나네' '옹헤야', 설장구 합주 등

▶18일 프로그램

경풍년, 태평무, 가야금병창 '상사천리봉' '풍년 노래', 해금 협주곡 '세상풍경', 강강술래 등

▶25일 프로그램

포구락, 생소병주 '수룡음', 한량무, 실내악 '월광', 좌수영어방놀이 '어부춤', 풍물놀이 등

- 관람료 1층 8,000원 · 2층 6,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백경클래식기타연구회 30주년 기념연주회

9월 4일 토요일 오후 6:00 시민회관 소극장

부경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결성된 백경클래식기타연구회가 결성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무대.

- 관람료 무료
- 문의 회장 한재영(010-6668-3459)

피아니스트 진보라 리사이틀

9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국악과 재즈를 접목한 '보라표 재즈'로 뮤지컬, 영화,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는 연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작, 편곡 실력과 타고난 스

윙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 문의 공연기획 예성(1599-8733)

콰르텟 아이네 연주회

9월 4일 토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부산시티오케스트라 단원 김신실, 전지원, 박유진, 고정임으로 결성된 콰르텟 아이네(Quartet Eine)는 그동안 부드러운 음색과 파워풀한 연주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스메타나/현악4중주 제 1번 '나의 생애로부터'
피아졸라/탱고 발레

- 관람료 무료
-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김윤영 · 황혜영 피아노 리사이틀

9월 5일 일요일 오후 6: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으로, 현재 동대학원에 재학중인 피아니스트 김윤영, 황혜영 리사이틀.

프로그램

슈만/노벨레트 작품 21 제 8번

슈만/교향적 에튀드 작품 13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작품 31 제 2번 등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윤영(010-8931-0809)

독일 용에 윈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9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1983년 젊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올해로 25주년을 맞는 독일 용에 윈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부산연주회.

- 지휘/마르크 마스트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문의 코리아뮤지카(02-2272-6516)

명창 박성희와 함께하는 후콘서트 '홍보가'

9월 7일 화요일 저녁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불꽃같은 카리스마로 무대를 휘어잡는 명창 박성희가 2010 장흥 전통가무악 전국제전 판소리부 대통령상 수상을 기념해 마련하는 '홍보가' 완창무대.

박성희는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퓨전국악단 타로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교수/신문범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11~4)

테마가 있는 브런치 콘서트 퓨전국악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9월 7일 화요일 오전 11: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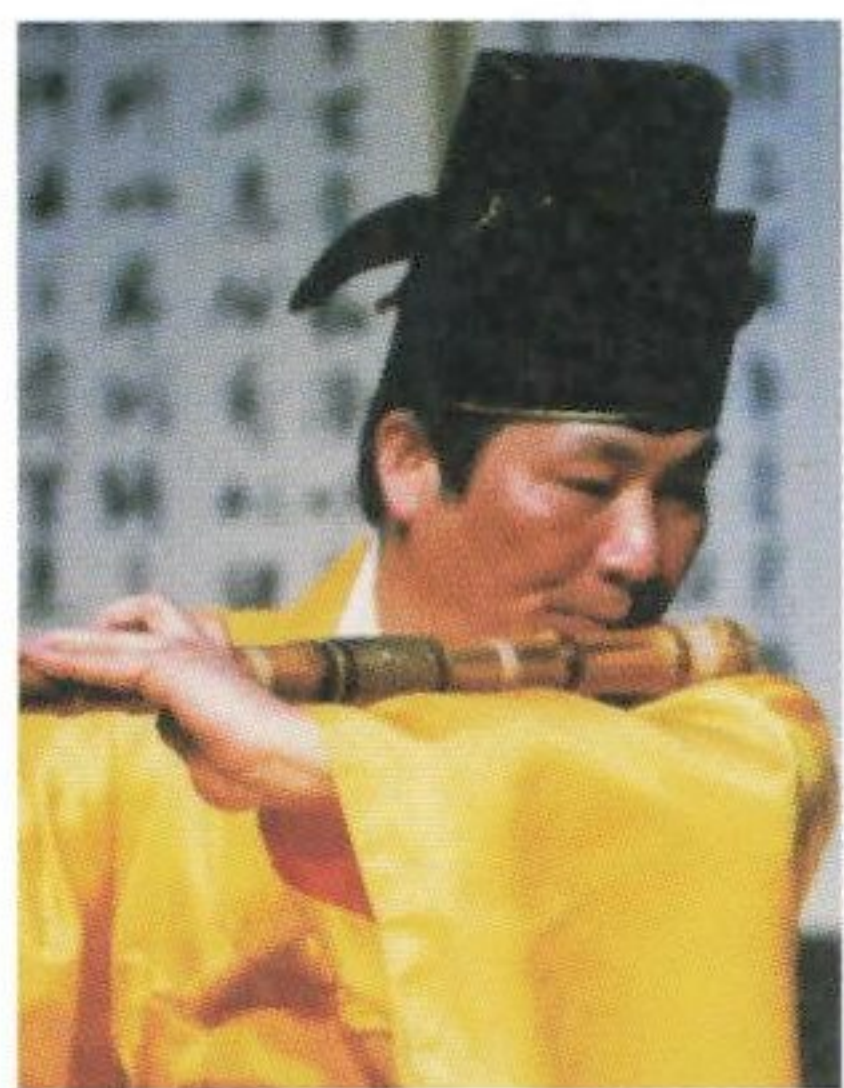
퓨전국악연주단인 '음악대륙 가이아'가 출연, 여행자, 꽃날, 문리버 등 우리 귀에 익숙한 현대곡을 국악으로 연주하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 7일 유경조 대금독주회



서울대학교 국악과와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국악실내악단 '풍류송아'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금주자 유경조의 독주회.

▶ 14일 장인숙 전통춤

제 17회 서울국제무용제 개인연기상, 제 28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장인숙의 전통춤 무대.

▶ 28일 ARANG Movement

전통음악에서부터 창작곡, 퓨전음악까지 다양한 무대로 관객과 만났던 아랑국악연주단의 무대.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38)

2010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페스티벌 수영구민을 위한 한마음 음악회

9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수영구 문화예술회 음악회(회장 최인식)가 수영구민을 위해 마련하는 한마음 음악회.

프로그램

쿨라우/여름의 마지막 장미 변주곡
최인식/백두산

웨버/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 등 수곡
· 출연/수영구여성합창단,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 남천2동 국악팀 · 고전무용팀, 최인식(작곡), 장극태(플루트), 박광하(테너), 엄현섭(테너), 박미경(소프라노)

- 관람료 무료
- 문의 최인식(019-9752-3242)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8:00(21일 공연없음)
가톨릭센터 소극장

▶ 7일 2인 음악회 '쇼팽과 리스트'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한스아이슬러, 네델란드 마스트리트 국립음대 동문인 피아니스트 구정희, 김은주가 마련하는 2인음악회.

▶ 14일 듀오의 재발견Ⅲ '베토벤의 밤'

서울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동문인 바이올리니스트 황순빈과 피아니스트 이진성이 마련하는 듀오무대.

▶ 28일 셀라챔버콰이어 & 오케스트라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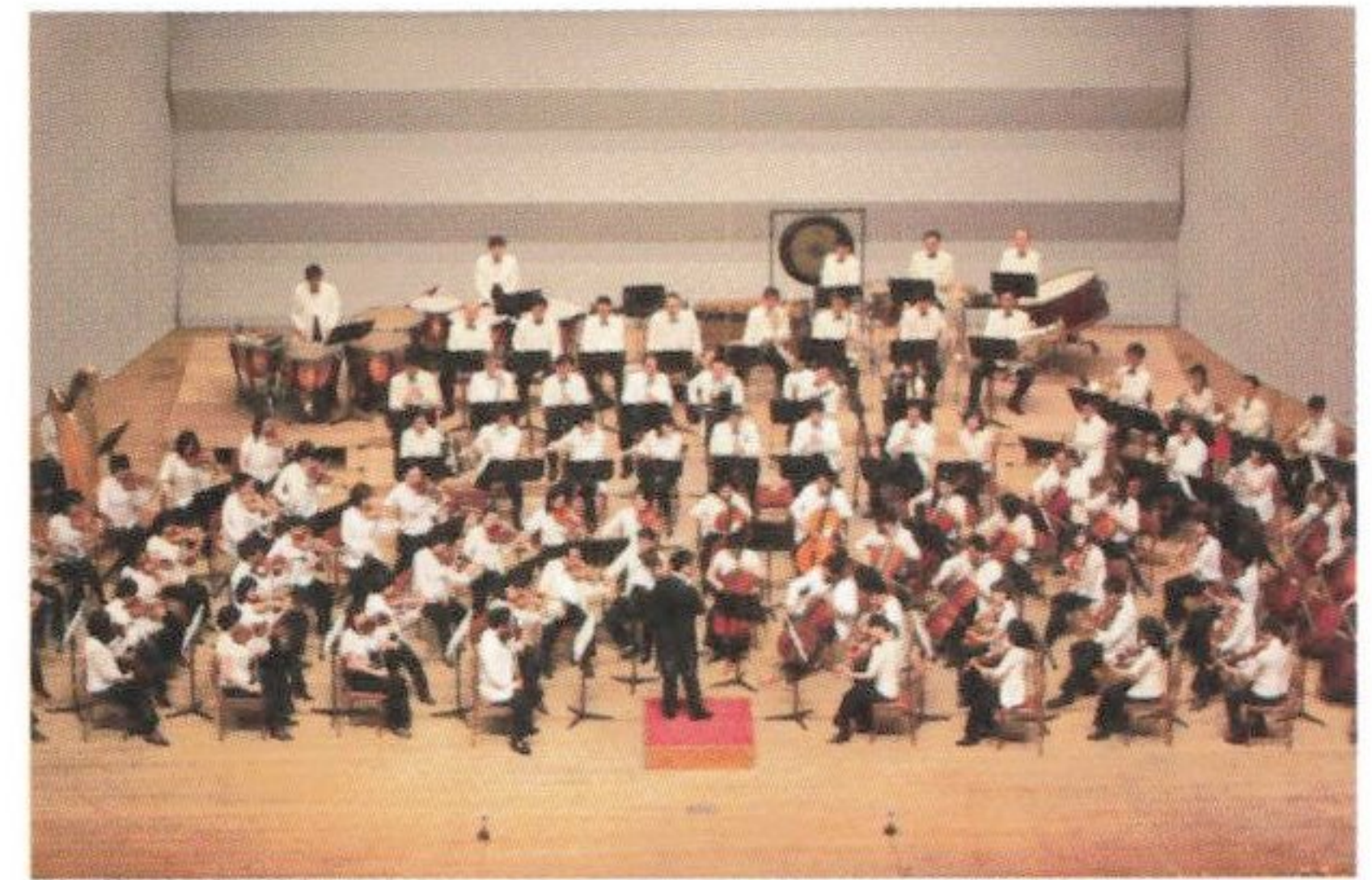
1984년 창단된 문화예술선교단체인 셀라챔버콰이어 & 오케스트라의 무대.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가톨릭센터(441-3788)

2010 제 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9월 8일(수)-12일(일) 시민회관, 을숙도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외

부산의 초가을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물들일 2010 제 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시립교향악단

초대 음악감독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을 비롯해 개폐막 연주를 맡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상하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화음챔버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김영호, 파스칼 드보이용, 바이올리니스트 박재홍, 첼리스트 엠마뉴엘 베르트랑, 이명진, 비올리니스트 김상진, 김가영, 클라리네티스트 로망 귀요 등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이 부산을 찾는다.

주요일정

▶ 8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개막연주

프로그램

베토벤/피델리오' 서곡 마장조 작품 72c
슈만/첼로협주곡 가단조 작품 129
로시니/클라리넷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서주와
테마, 변주곡 내림다장조 등

· 출연/부산시립교향악단(지휘/리 신차오), 엠마뉴엘 베르트랑, 로망 귀요

▶ 9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프로그램

드보르작/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장조 작품 100

브람스/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위한 3중주 가단조 작품 114 등

www.glovil.org/email:glovil@paran.com

제10회 글로벌전국 음악콩쿨 2010. 9. 25 (토)

글로벌아트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Tel. 051-505-5995 Fax. 051-505-5935

- 부 문 : 피아노, 작곡, 성악, 현악, 관악, 실내악, 국악, 실용음악
 - 대 상 : 유·초·중·고(재수생포함) · 대 · 일반
 - 과제곡 : 자유곡 1곡(작곡은 홈페이지 참조)
 - 접 수 : 9월 1일 ~ 9월 22일
인터넷 또는 팩스 우편접수
 - 시 상 : 전체대상 부산대학교총장상
(개인연주회 개최, 유학오디션용 CD 또는 국제콩쿨오디션용 CD 제공)
- ※ 각 부문별 학년별 금상 은상 동상(행복음악회 출연 자격)

· 출연/강동석, 박재홍, 파스칼 드바이용, 김영호, 김상진, 엠마누엘 베르트랑, 로망 귀요

▶ 10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프로그램

뿔랑/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차이코프스키/현악6중주 '플로렌스의 추억' 등

· 출연/강동석, 박재홍, 파스칼 드바이용, 김영호, 김상진, 김가영, 엠마누엘 베르트랑, 이명진, 로망 귀요

▶ 11일 오전 11: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프로그램

도호나니/현악3중주를 위한 세레나데 작품 10

드보르작/바이올린 소나타 사장조 작품 100 등

· 출연/강동석, 박재홍, 김영호, 김상진, 김가영, 엠마누엘 베르트랑, 이명진, 로망 귀요

▶ 11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프로그램

멘델스존/현을 위한 신포니에타 제 10번 나단조

김성기/화음프로젝트 작품 86 '백 투 더 퓨처' 등

· 출연/화음첼버오케스트라, 강동석, 김영호

▶ 12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상하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폐막연주

프로그램

로시니/세빌라의 이발사 서곡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 5번 마단조 작품 64 등

· 출연/상하이페스티벌오케스트라(지휘/슈 쩡), 파스칼 드바이용

·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 (070-7687-8292, www.bmimf.co.kr)

부산 S Modern Percussion Ensemble 창단 연주회

9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부산지역 타악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7명의 젊은 타악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 S Modern Percussion Ensemble 창단 연주회.

· 연주/송희철(리더),

공소성, 채광호, 이요섭, 양진일, 김효원, 이찬욱

· 피아노/송학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양진일(010-2881-8764)

제 4회 베이스 김태형 독창회

9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외래교수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베이스 김태형이 모차르트, 벨리니, 도니제티, 고메즈, 베르디의 오페라 아리아를 자막과 함께 상

세한 해설로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김태형(010-2339-1973)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전통음악연주회

9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국악원 연악당

정악과 민속악을 한 무대에서 함께 들려주는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제 2회 전통음악연주회.

프로그램

관악합주곡 '해령', 현악합주 '도드리', 가곡 '편수대엽', 푸살, 신민요 '금강산타령, 풍년가' 등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대학교 국악학과(510-1379)

이은재 피아노 독주회

9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한양대학교와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악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슈테츠 회장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은재 독주회.

프로그램

슈만/나비 작품 2

슈만/빈 사육제의 어릿광대

슈베르트/즉흥곡 작품 90 등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프렉스(757-7570)

윤지은 피아노 독주회 - 부산

쇼팽·슈만 탄생 200주년 '축제'

9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대학교와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석사), 일리노이 주립대학교(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노을트리오 멤버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윤지은 독주회.

프로그램

쇼팽/왈츠 내림가장조 작품 34 제 1번

슈만/다비드동맹무곡 작품 6 등 수곡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지클레프(02-515-5123)

2010 부산생활음악축제

9월 11일-12일 토-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브라부라 색소폰 앙상블

아마추어 연주인들의 음악축제 2010 부산생활음악축제.

▶ 11일 출연팀

퓨전시나위 예타래, 브라부라 색소폰앙상블, 노래패 민들레, 다나 불교어머니합창단, 종군밴드

▶ 12일 출연팀

노래모임 '노래야 나오너라', 부산교대평생교육원 음악치료사모임연주단, 국악연주단 청, 클

래식기타 앙상블, 부산통기타리스트 '월차'

- 관람료 무료
- 문의 김철옥(010-3273-6582)

토요해피콘서트

9월 11일(토), 25일(토)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마련하는 앙상블 무대가 펼쳐진다.

▶11(토) 그란디아 목관앙상블

미션 임파서블, I Believe, Memory, 헨델 '수상 음악', 하이든 5중주 등 수곡

▶25(토) 아르피아 현악4중주

미뉴엣, 유모레스크, 생일축하 변주곡, 피치카토 폴카, 영화 '대부' OST, 마법의 성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부산심포닉밴드 제 8회 정기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9월 11일 토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여행가 도용복과 함께 떠나는 부산심포닉밴드 '세계로 가는 음악여행'.

프로그램

하이든/트럼펫 협주곡 내림마장조
베르디/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
필모어/라수스 트럼본

- 지휘/이기균(상임지휘자)
- 협연/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문영선(트럼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손정경(017-559-9063)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제 7회 정기연주회

9월 12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8년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부산을 대표하는 청소년교향악단을 육성하기 위해 창단한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의 7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비제/모음곡 '아를르의 여인' 등 수곡
· 지휘/김용문(동아대학교 교수)
· 협연/임원정(플루트), 오유리(바이올린)

- 관람료 초대
- 문의 장은정(017-842-6688)

아마빌레 색소폰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추억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9월 12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2002년 창단 후 클래식과 팝, 영화음악, 가요 등 친숙한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만나온 아마빌레 색소폰오케스트라와 떠나는 추억의 음악여행.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김형욱(011-9044-7576)

이은옥 바이올린 리사이틀

9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대학교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앙상블 '디 마레' 리더, 비르투오조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옥 독주회.

프로그램

코렐리/라 폴리아 제 12번 작품 5
모차르트/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내림나장조 KV.378

슈베르트/환타지 다장조 D.934 등

- 피아노/김미현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제 49회 한낮의 유U:콘서트 세비리아의 결혼식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1:00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로시니 오페라 '세비리아의 이발사'와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등장하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로 꾸며지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 지휘/박성완
- 출연/소프라노 김유섬, 변향숙, 테너 장진규, 바리톤 조현수, 베이스 유형광
- 연주/YMCA네오피하모니오케스트라
- 관람료 균일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국제신문(500-522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교향곡 시리즈 II

9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체코의 민족주의음악을 세계적으로 알린 작곡가 드보르작의 작품세계를 선보이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교향곡시리즈 두 번째 무대.

프로그램

- 드보르작/슬라브무곡 작품 46 제 1번, 첼로협주곡 작품 104, 교향곡 제 8번 작품 88
- 지휘/이기균(경성대학교 교수)
 - 협연/양욱진(첼로, 인제대학교 교수)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61~5)

2010 제3회 피아노 그랜드페스티벌

9월 14일-15일 화-수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100여명이 참가, 독주와 2중주, 3중주, 5중주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주는 피아노 그랜드페스티벌.

▪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2010년 이라희 바이올린 독주회 테마 독주회 III '프랜치 슈크'

9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라희의 4번째 독주회.

세련된 음악적 정서와 이국적인 정취가 가득한 프랑스 작곡가 생상, 프랑크, 라벨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생상/하바네라 작품 83

라벨/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 2번 등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이라희(010-4604-7040)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제 3회 정기연주회 영남 風流(풍류)에 뜻을 달다 - 두 번째 이야기

9월 16일-17일 목-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2009년 제 1회 정기연주회로 선보였던 '영남 風流(풍류)에 뜻을 달다' 두 번째 무대로 영남지역의 전통문화가 담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동래향제줄풍류, 남해안별신굿 수부시나위, 영남풍어제를 위한 연희 '대사 산이', 영남들노래 모음곡, 창과 관현악 '釜山타령' 등

▪ 관람료 1층 8,000원 · 2층 6,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바리톤 박기국과 가을에 함께하는 들국화와 허수아비

9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경성대학교 음악과와 스페인 바로셀로나 라몬울대학교 전문연주자 석사과정, 바로셀로나 루피에르 음악학교를 졸업한 바리톤 박기국 독창회.

· 특별출연/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 수 하모니카양상블

· 피아노/민강은 · 해설/김윤선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파인아트예술기획(010-5240-2383)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콘서트

9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퓨전국악연주단 '음악대륙 가이아'의 다채로운 무대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목요국악콘서트.

프로그램

Go with Us, 동쪽으로 가는 여행자, 드라마 OST '비익련리' '꽃날', 문리버, 마이웨이, 언더 더 씨, 아름다운 나라 등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

9월 26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시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상설무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관람료 무료

▪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제 1113회 MBC목요음악회 황장수 작곡발표회 초가을의 정취

9월 30일 목요일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코람데오합창단·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있는 작곡가 황장수 작곡발표회로 마련되는 제 1113회 MBC목요음악회.

황장수는 그동안 부산과 러시아 모스크바

에서 9차례 작곡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두 대의 플루트와 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에세이, 진달래꽃(김소월 시), 낙화(김정순 시), 정호승 시 '어른을 위한 동시'에 의한 어린이 독창 등 수곡

· 연주/코람데오 합창단·챔버오케스트라

· 찬조출연/소프라노 김미리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 문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소프라노 고은주 독창회

9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신라대학교 음악학과와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두실초등학교 교사, 부산여교사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고은주 독창회.

· 찬조출연/두실초등학교 중창단

▪ 관람료 초대

▪ 문의 고은주(011-9317-2625)

광남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0월 2일 토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광남초등학교 학생들로 결성된 광남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지휘/윤강수)의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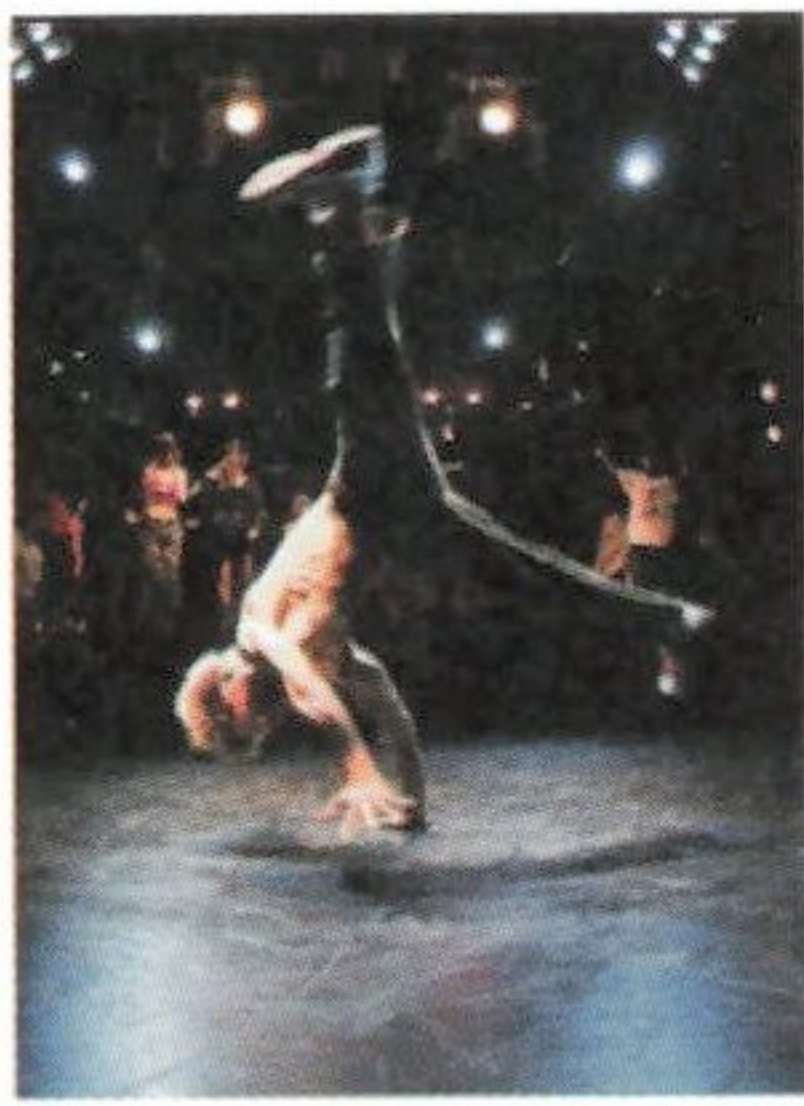
▪ 관람료 초대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PLAY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009년 12월 18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휴관) BB씨어터



비보이와 사랑에 빠진 발레리나가 비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005년 초연 이후 우리나라에 비보이 열풍을 일으키며 국내외 무

대에서 꾸준한 호평을 받아왔다.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B씨어터(804-2252)

호민의 모노드라마 닭잡아 먹고 오리발

7월 16일(금)-10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4:00 (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오늘을 살아가는 나약한 현대인의 자화상을 그린 극단 아센 대표 호민의 세태풍자 모노드라마.

- 작/김문홍 · 연출/구민주, 최성우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 의 미리내소극장(1600-1716)

뮤지컬 락시터-즐거운 시절

8월 6일(금)-9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남시터에서 만난 60대와 30대 두 남자의 대화를 통해 바라본 우리시대 자화상을 유쾌하게 그려낸 창작뮤지컬 '락시터'.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코믹극 뉴보잉보잉

8월 10일(화)-9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휴관) 솜사탕아트홀

3명의 스텐디스를 약혼자로 둔 바람둥이 주인공의 아슬아슬한 연애행각이 코믹하게 펼쳐지는 코믹극 '뉴보잉보잉'.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솜사탕아트홀(922-4545)

극단 동녘 바리데기

8월 20일(금)-9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청춘나비소극장

부모를 살리기 위해 저승으로 향하는 소녀와 저승가기 싫어 발버둥치는 귀신들과의 요절복통 이야기 '바리데기'.

- 연출/박용헌
- 출연/유하나, 이대호, 이동욱, 백승현, 김은혜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극단 동녘(751-0858)

오즈의 마법사-도로시 따라가기

8월 31일(화)-11월 30일(화) 매주 토-일요일 오후 2:00 솜사탕아트홀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오즈'에 가게된 도로시와 그의 친구들이 펼치는 꿈과 모험의 세계가 영어대사로 펼쳐지는 영어연극.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솜사탕아트홀(922-4545)

방바닥 굶는 남자

8월 25일(수)-9월 5일(일)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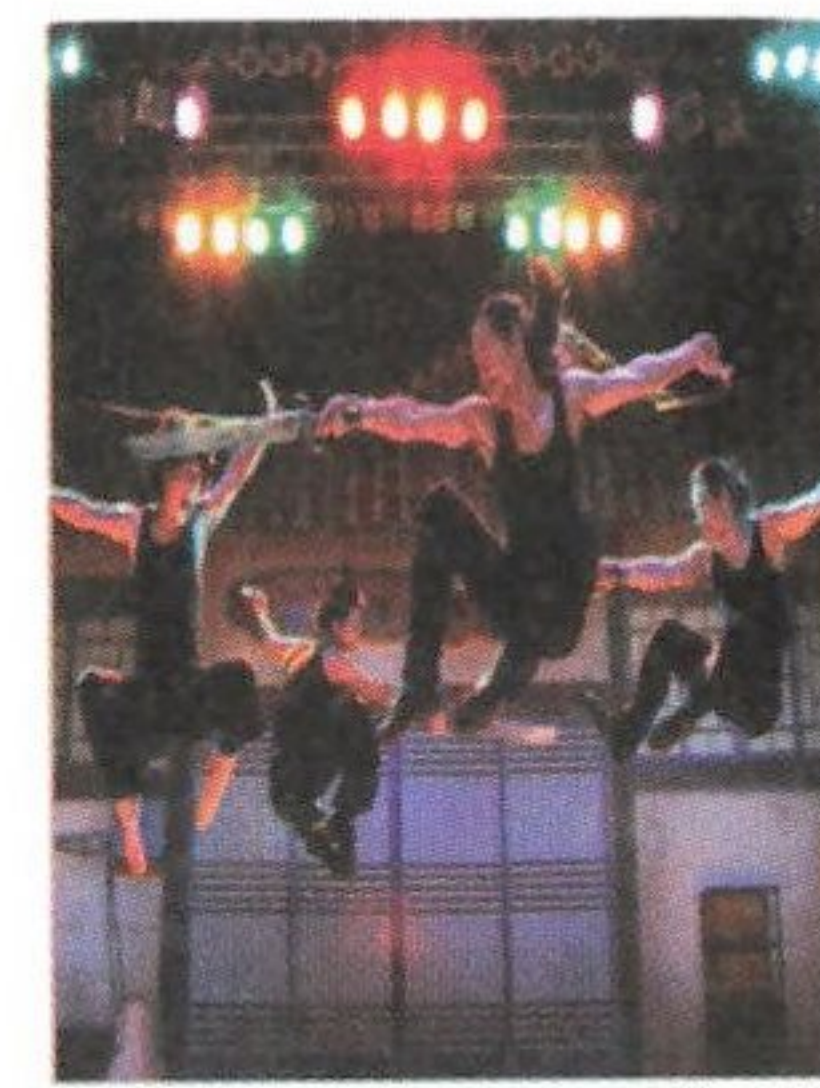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부 인생으로 밀려나버린 4명의 주인공들이 펼치는 진지한 놀이극.

- 작/김지훈 · 연출/이윤주
- 출연/홍민수, 조승희, 김철영, 김호윤, 김지현, 천석기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2010 점프 부산

9월 1일(수)-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 IBK 점프부산전용극장(해운대 그랜드호텔 B1)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난버벌 퍼포먼스 '점프'.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744-4885)

마임이스트 김세진 마임 10주년 기념 지니 마임 페스티벌 I

9월 2일-3일 목-금요일 오후 5:00, 8:00 시민회관 소극장

2009 세계델픽대회 즉흥마임부문 동메달을 수상한 마임이스트 김세진이 일상의 단면을 마임으로 표현한 옴니버스극을 선보인다.

-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오후 5:00 공연은 균일 10,000원)
- 문 의 극단 세진(623-0678)

대만 타이페이 Water-field Studio, 부산 연극놀이터 씬 국제교류 프로젝트 Performance Art Festival Via Busa

9월 3일-4일 금-토요일 오전 11:00
중앙동 40계단 앞 야외무대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예술문화 축전 일환으로 펼쳐지는 대만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 공연.

▶3일 프로그램

맛있는 얼굴 드세요(출연/Yi-ling CHEN), 아타알 속담(출연/Watan Uma), 한국에 도착하였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컷만 III (출연/Shih-Chun CHENG)

▶ 4일 프로그램

Sound(출연/Pei-Chun CHEN), 디지털 아티스트와 함께 낚시질하기(출연/Val Lee), American Beauty(출연/Mo-lin WANG)

- 관람료 무료
- 문의 심창신(010-4559-6441)

연극 옥탑방 고양이

9월 3일(금)-10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21일 오후 5:00, 23일 오후 3:00, 6:00, 22일·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화제의 인터넷 소설을 원작으로 동명의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 의도치 않은 동거를 시작한 두 남녀를 통해 솔직하고 당당한 신세대들의 사랑이

야기가 펼쳐진다.

- 작/박은혜 · 연출/김태형
- 출연/이동하, 박시범, 이호영, 전경수, 황선화, 이영운, 김태향, 김슬기, 김유진, 홍지원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연극 오구

9월 8일(수)-1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가마골소극장



팔손 노모의 죽음을 앞두고 벌어지는 헤프닝을 통해 무겁고도 엄숙한 죽음의 가치를 한국적인 해학의 정서로 그려낸 연희단거리페의 토종 코미디 '오구'.

- 작, 연출/이윤택
- 출연/남미정, 하용부, 배미향, 김소희, 윤종식 외
- 관람료 일반 30,000원 · 대학생 25,000원 초·중·고, 65세이상 20,000원
-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싸움터에서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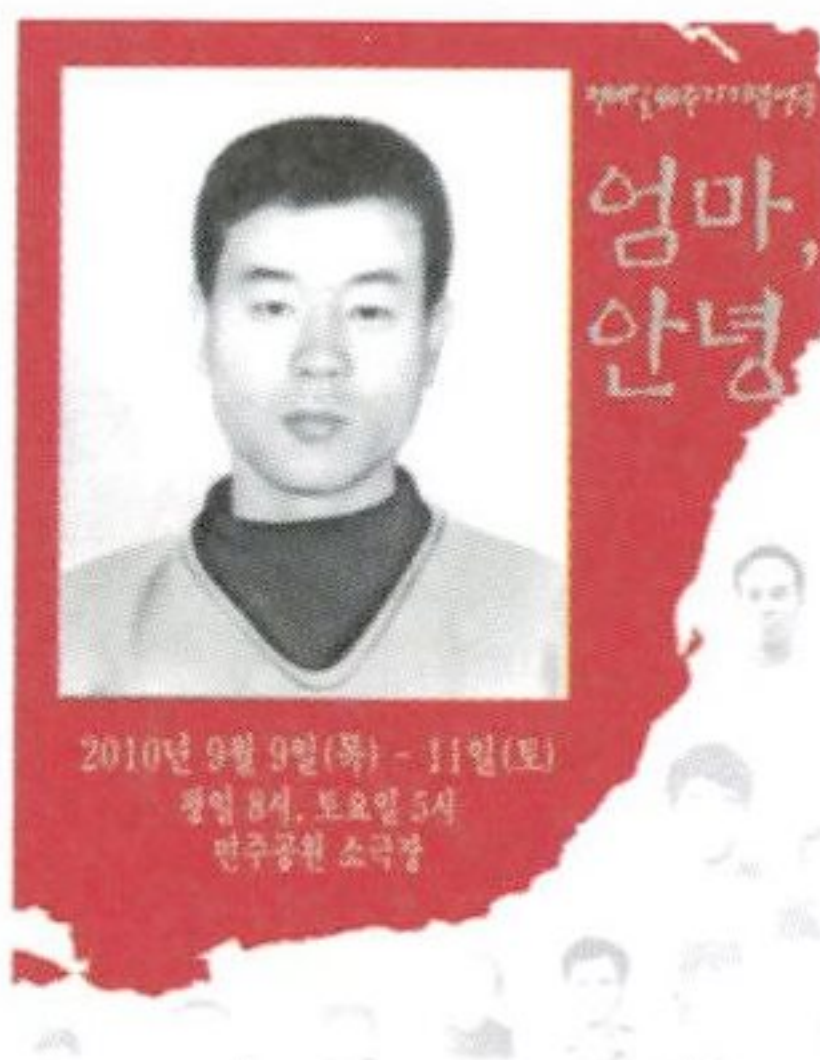
9월 8일(수)-10월 9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월요일, 9/22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전쟁의 공포와 한 가족의 즐거운 소풍을 대비시킨 반전적 내용의 풍자극 '싸움터의 산책'.

- 작/페르난도 아라발 · 연출/김만중
- 출연/임선미, 김성현, 박현민, 김정환, 박유진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30% 할인, 사랑티켓 참가작)
-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대만 타이페이 Water-field Studio, 부산 연극놀이터 심 국제교류 프로젝트 전태일 40주기 기념 연극 엄마, 안녕

9월 9일-10일 목-금요일 오후 8:00, 11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민주공원 소극장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아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구슬을 바탕으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기 전 어머니와 함께한 순간을 퍼포먼스 아트 형식으로 재현한 무대.

- 연출/Wang Mo Ling(대만)
- 드라마 트루기/백대현(한국)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의 심창신(010-4559-6441)

연극 오빠가 돌아왔다

9월 10일 금요일 오후 8:00, 1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2일 일요일 오후 2:00, 6:00
MBC롯데아트홀



'콩가루집안'을 그린 김영하의 소설 '오빠가 돌아왔다'를 원작으로 한 무대.

명품 조연배우 이문식, 이한위가 극중 나쁜 아빠 역을 맡아 개성넘치는 연기로 관객

들에게 웃음을 전한다.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창작뮤지컬 그라피아 빠빠

9월 10일(금)-10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 6:00(9/21일~23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각색한 창작 뮤지컬.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 갇힌 주인공이 어린 아들을 위해 펼치는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 진한 감동을 전해준다.

- 연출/장우성 · 작곡/정상일
- 출연/임진유, 고민규, 김효영, 안진희 외
- 관람료 일반 25,000원 · 중고생 20,000원
- 문의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070-4069-7100)

유순웅 1인극 엄마병이 유씨

9월 16일(목)-10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23일 오후 3:00, 6:00, 21일-22일·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우리전통의 장례문화를 소재로, 죽음을 통해 삶의 진정성을 감동적으로 풀어내는 유순웅 1인극.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어린이뮤지컬 브레멘음악대

9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6:00, 19일 일요일 오후 2:00, 5:00 시민회관 대극장

꿈을 찾아 떠나는 동물친구들의 신나는 모험 이야기가 화려한 영상과 무대, 아름다운 음악 속에 펼쳐지는 어린이뮤지컬.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라이브엔터(1644-4868)

2010 부산예술제 부산연극협회 합동공연 부산-후쿠오카 자매도시 연극교류 1.22

9월 28일-30일 화-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주민수가 적어 퇴출 위기에 놓인 마을을 배경으로, 우리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그린 창작극. 제목인 1.22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의미한다.

· 작, 연출/김익현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안상태 1인극 싸이코 코미디 상태 좋아?

10월 1일 금요일 오후 8:00, 2일 토요일 오후 4:00, 7:00, 3일 일요일 오후 2:00, 5:0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정신과 전문의로 분한 개그맨 안상태의 익살스런 처방극이 시종일관 웃음을 자아낸다.

- 관람료 균일 35,000원
- 문 의 SM기획(1600-1602)

2010 부산예술제 부산연극협회 합동공연 지상의 방 한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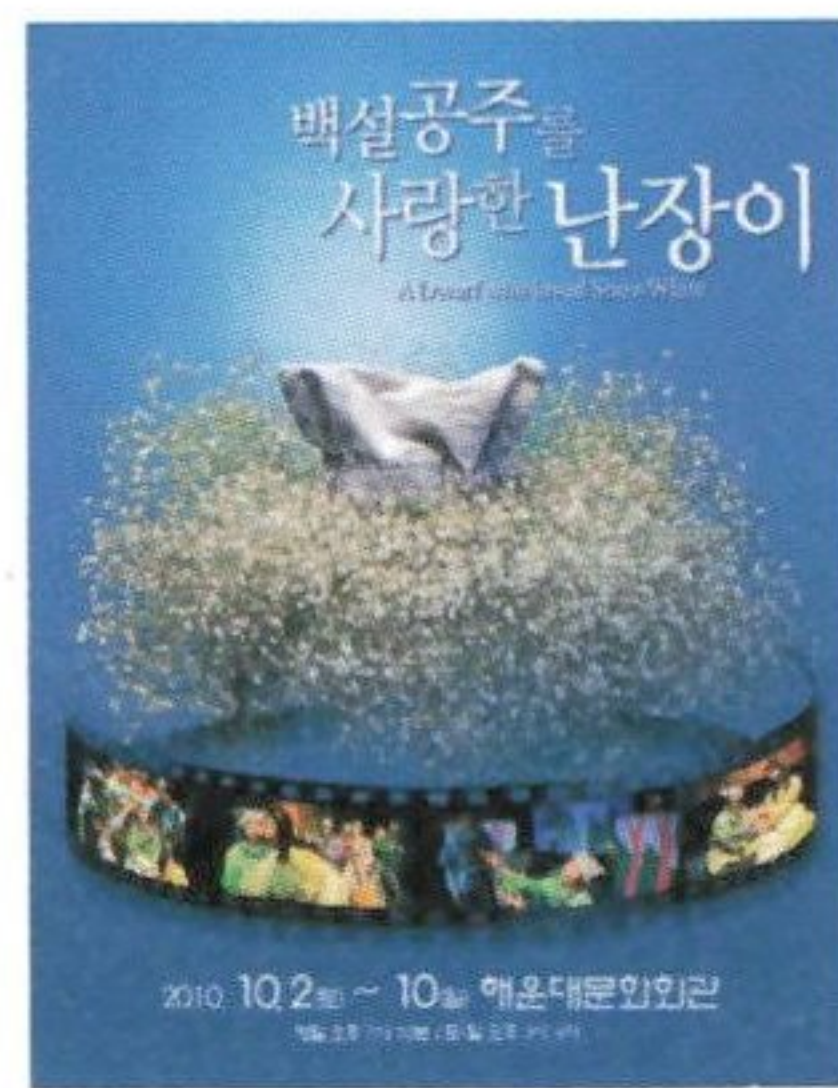
10월 2일 토요일 오후 4:00, 7:00,
3일 일요일 오후 4:00 시민회관 소극장

벼랑 끝으로 몰린 사람들이 실낱같은 희망의 빛을 찾아 모여드는 '희망의 집'을 배경으로, 삶의 무게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그린 창작극.

- 작/김문홍 · 연출/허영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부산

10월 2일(토)-10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 해운대문화회관



백설공주를 사랑했던 일곱 번째 난장이 반달이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 원작/서광현
- 작, 연출/박승걸
- 출연/김지선, 김소연, 고수연, 남수진 외

- 관람료 R석 33,000원 · A석 22,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5)

DANCE

제1회 이화성 발레 공연 나도 가끔은 백조를 꿈꾼다

9월 19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및 동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이화성이 경쟁사회 속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담아낸 모던 창작발레 '나도 가끔은 백조를 꿈꾼다'를 선보인다.

- 대본/이미연 · 안무/이화성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이화성(011-9147-2733)

2010 정귀인무용단 기획공연 강

9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정귀인 교수가 이끄는 정귀인 무용단의 창작춤 무대 '강'.

- 안무/정귀인
- 문 의 정귀인(010-5521-0603)

제 16회 동아발레단 정기공연

9월 29일 수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창작활동을 펼쳐온 동아발레단의 창작무대.

작품

관계(안무/이은교), 사랑의 페이지(안무/윤세희), 아직, 꿈꾸는 그대(안무/정영수)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중고생 10,000원
- 문 의 동아대학교 무용학과(200-7819)

김해성무용단 어린이를 위한 전통춤판

10월 3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속놀이 춤으로 신명을 선사해온 부산여자대학 김해성 교수가 마련하는 어린이를 위한 전통춤판.

- 안무/김해성 · 악사/버숨새예술단
- 특별출연/김진홍, 원향춤연구회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김해성(010-6668-1261)

CONCERT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콘서트

9월 3일 금요일 오후 7: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료 무료
- 문 의 국제신문(500-5222)

플라워 5집 발매 기념콘서트

9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7:30
동아대학교 석당홀

-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문 의 (주)WSM(1600-1716)

추가열 LIVE 전국투어

9월 11일 토요일 오후 2:30, 7:00
시민회관 대극장

- 관람료 VIP 70,000원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문 의 HBC기획(868-0055)

토크가 있는 추억여행-양현경

9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스웨덴의 대표감성 라세 린드 콘서트

9월 18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 관람료 R석 33,000원 · S석 22,000원
- 문 의 프리덤콘서트(752-5547)

2010 한가위 장운정 효콘서트

9월 25일 토요일 오후 3:00, 6:30
시민회관 대극장

-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66,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라이브엔터(1644-4868)

루시드폴 '목소리와 기타'

9월 25일 토요일 오후 6:00, 26일 일요일 오후 5: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 관람료 균일 33,000원
- 문 의 프리덤콘서트(752-5547)

EVENT

제 96회 시올림 시낭송회

9월 1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김금아, 박강우, 이영옥, 김희진(독립영화감독) 정신자, 정의태
- 사회/한창옥 · 음악/김찬식
- 관람료 무료
- 문 의 김예강(010-5516-1867)

2010 부산예술제

9월 24일(금)-10월 7일(목) 시민회관 대극장·소극장,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부산시청 전시실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큰 잔치 2010 부산예술제.

주요일정

- ▶ 개막식
'가곡과 아리아의 밤-한중일 교류음악회'
9/24일(금)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와 중국, 일본의 초청 성악가들의 무대로 마련되는 2010 부산예술제 개막무대.
- 연주/창원시립마산교향악단(지휘/백진현)
- ▶ 부산영상제: 9/26일(일) 시민회관 소극장
- ▶ 부산미술의 젊은 시선전
9/27일(월)-10/3일(일) 부산문화회관 대전전시실
- ▶ 부산-후쿠오카 자매도시 연극교류 공연 '1.22'
9/28일(화)-30일(목)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 ▶ 부산연극협회 합동공연 '지상의 방 한칸'
9/29일(수)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0/2일(토) 오후 4:00, 7:00, 10/3일(일) 오후 4:00 시민회관 소극장
- ▶ 2010 부산예술제 '춤 그리고 사랑'
9월 30일(목)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작품

- 부산무용단 '태평무', 할무용단 '활', 김정순무용단 '젠자노의 꽃축제', 강희정무용단 '로시난테의 편자-길에서 필요한 것은 그뿐이다'
- 특별출연/상하이무용단
 - 총감독/최은희 · 연출/서지영
 - ▶ 건축도시사진전
10/1일(금)-5일(화) 사직경기장 특설전시실

- ▶ 국악종합공연: 10/2일(토) 시민회관 대극장
- ▶ 실버가요제: 10/3일(일) 시민회관 대극장
- 문 의 (사)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631-1377, www.artpusan.or.kr)

GALLERY

최광호 사진전 사진적 사색

8월 14일(토)-10월 31일(일) 고은사진미술관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롯데갤러리 광복점 개관 특별전 1000일의 수도:부산과 미술

8월 25일(수)-9월 16일(목)

롯데갤러리 광복점

-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김환기, 이중섭, 장욱진, 천경자 등 1050년대 부산에서 활동했던 거장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 문 의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0)

안정숙 개인전

9월 1일(수)-9월 30일(목) 부산프랑스문화원

- 문 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변시지 개인전 검은바다

9월 10일(금)-9월 23일(목) 롯데갤러리

- 문 의 롯데갤러리(810-2328)

박진성&권효민 초대전

9월 11일(토)-10월 3일(월) 갤러리에가

- 문 의 갤러리에가(624-0933)

10Artists of contemporary展

9월 11일(토)-9월 28일(화) 김재선갤러리

- 참여작가/권혁, 김세한, 남철희, 류명렬, 변대용, 설종보, 손현욱, 이창현, 윤석남, 최윤정
- 문 의 김재선갤러리(731-5438)

부산시립극단 '조선형사 홍윤식'

일제시대 강점기를 배경으로 경성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유아 살인사건을 그 당시 일본형사가 아닌 조선형사 홍윤식이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연극이었다. 일본 경감에게 일본어로 다시 보고하는 유머러스한 과정에서 관객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왜 격동기의 일제시대를 재조명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갔다. 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관객에게 대사가 잘 전달되지 않아 안타까웠다.

- 박정희(동래구 안락1동)

2010 소극장 페스티벌 개막작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아마추어 연극인들의 무대라 혹시나 하는 기우 속에 찾았던 연극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아마추어'에서 연상되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한방에 날려준 다섯 명의 배우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옛 기억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동명의 드라마...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지' 고민하게 만든다.

- 정미란(양산시 남부동)

하늘아래 그 콘서트 '언니네 이발관'

이름만 알고 있던 '언니네 이발관'을 작년에서야 음악으로 만났다. 그리고 1년만에 콘서트 무대에서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가장 보통의 존재'를 노래하던 그들은 '보통의 존재'가 아니었다. 기타리스트 이능룡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콘서트에서의 수확. 그런데 '언니네 이발관'은 무슨 뜻일까?

- 백정선(해운대구 재송동)

부산국제어린이 영화제 '엘리사의 생일'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익숙한 우리에게 찾아온 러시아 애니메이션. 그것도 드넓은 우주, 미래의 공상과학 애니메이션이라니 기대가 컸다. 외계인 삼촌에게 생일선물로 콜리다 행성 우주여행을 선물 받은 엘리사. 그러나 콜리다 행성은 이미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어 삭막하기만 하다. 행성을 구하기 위해 타임머신을 타고 바이러스가 변지기 전 과거로 가는 이야기라 초등학생 아이가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웠지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덕에 아이와 함께 먼 미래의 우주로 날아갔다.

- 김미정(사하구 하단동)

푸른 하늘 은하수

초등 2학년짜리 아들이랑 보러갔었어요~ 아들 또래 아이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것도 신기하고, 영화랑 다르게 배우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점이 색달랐답니다. "동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극중 대사도 기억에 남네요.^^ 좋은 연극 보구 동심도 찾고, 방학이 지겨워진 아들 데리고 즐거운 경험 했습니다.

- 박자영(동래구 사직3동)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곰탕 전문점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님께 처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NEW MUSIC

문희정 _ 지엠뮤직



18세기 나폴리 플루트 협주곡집

연주/카를로 이파타(바로크 플루트), 아우세르 무지치

▶ 수록곡

데 마요: 플루트 협주곡 G장조 / 라바: 플루트 협주곡 B단조 / 프로타: 플루트 협주곡 C장조 / 옴멜리: 플루트 협주곡 D장조 / 파렐라: 플루트 협주곡 2번 G장조

보케리니 플루트 5중주집으로 Hyperion 이적 데뷔를 하고, 2009년 체스티의 오페라 '사랑의 불행'을 부활시키는데 성공한 카를로 이파타와 아우세르 무지치. 바로크 플루트에 있어 세계적인 비르투오조이기도 한 리더 '카를로 이파타' 자신이 솔리스트를 맡아 나폴리의 플루트 협주곡을 탐구한다. 이탈리아 후기 바로크의 대가 '포르포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18세기 이탈리아 음악의 산지 나폴리에서 활약한 5인 작곡가들의 플루트 협주곡은 당시 나폴리가 얼마나 풍부한 음악적 토양이었는지를 음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2009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개막콘서트

연주 /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지휘)

▶ 수록곡

슈베르트: 6개의 독일춤(베베른 편곡) / 요제프 슈트라우스: 여자의 마음 폴카, 델리리엔 왈츠, 뒤죽박죽 폴카
슈베르트: 교향곡 9번 '그레이트'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마에스트로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2009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개막콘서트를 지휘하였다. 베베른이 근대적인 감각으로 편곡한 슈베르트의 6개의 독일춤과 형의 높은 명성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왈츠와 폴카들로 구성된 전반부 프로그램은 새로운 레퍼토리에 대한 이 노거장의 부단한 탐구정신을 보여준다. 콘서트의 후반부는 '그레이트'라는 부제에 걸맞은 스케일과 완성도를 갖춘 슈베르트의 마지막 교향곡으로 장식되었다.



첼리스트 이명진 First Album

연주 / 이명진(첼로), 올리버 케른(피아노)

▶ 수록곡

베토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 3번 / 슈만: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 브람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 2번

2009년 2B + S 시리즈 첫 번째 무대로 베토벤, 브람스, 슈만(Beethoven, Brahms & Schumann)의 작품들을 연주한 이명진의 2009년 독주회 연주실황이 음반으로 나온다. 스승인 세계적인 첼리스트 나탈리아 구트만으로부터 "보석과 같은 기교를 갖춘 깊은 음악성을 가졌으며, 그녀의 음악적 해석과 연주는 항상 청중을 매료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동아대학교 이명진 교수와 베토벤과 브람스 연주에 독보적인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올리버 케른 교수의 환상적인 하모니를 들을 수 있다. 이번 음반은 최근 대한민국 클래식 열풍의 트렌드에 편승하지 않으면서, 가볍지 않은 진정한 전통 클래식 레퍼토리로 채워져 있다.(CD 녹음 : 2009년 6월 29일 서울 세라믹 팔레스홀 독주회, 2009년 12월 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독주회)

NEW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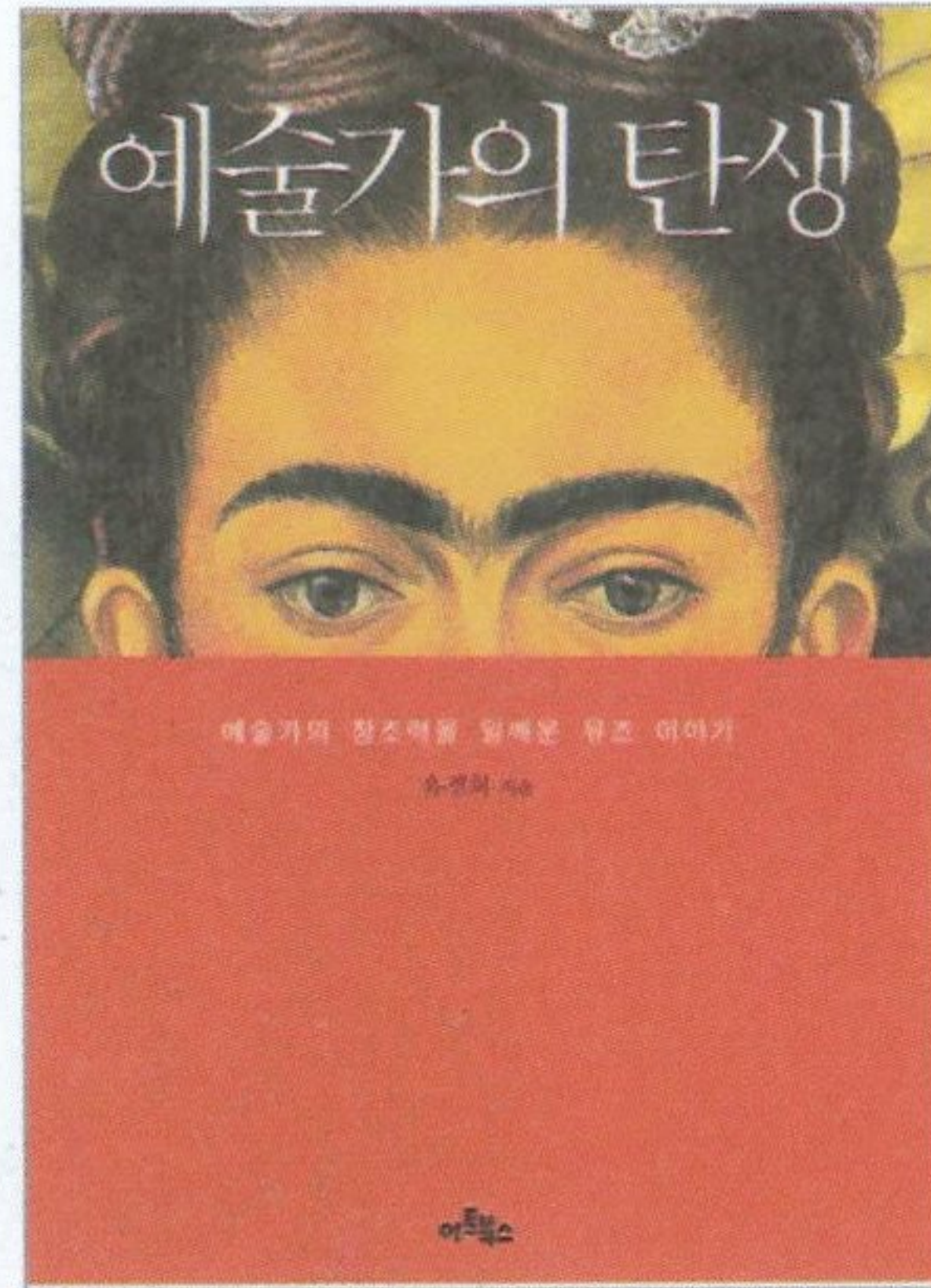
박현주 _ 동보서적 <웹진 책소식> 편집장



나의 사랑, 백남준

구보타 시게코, 남정호 지음
이순 / 374p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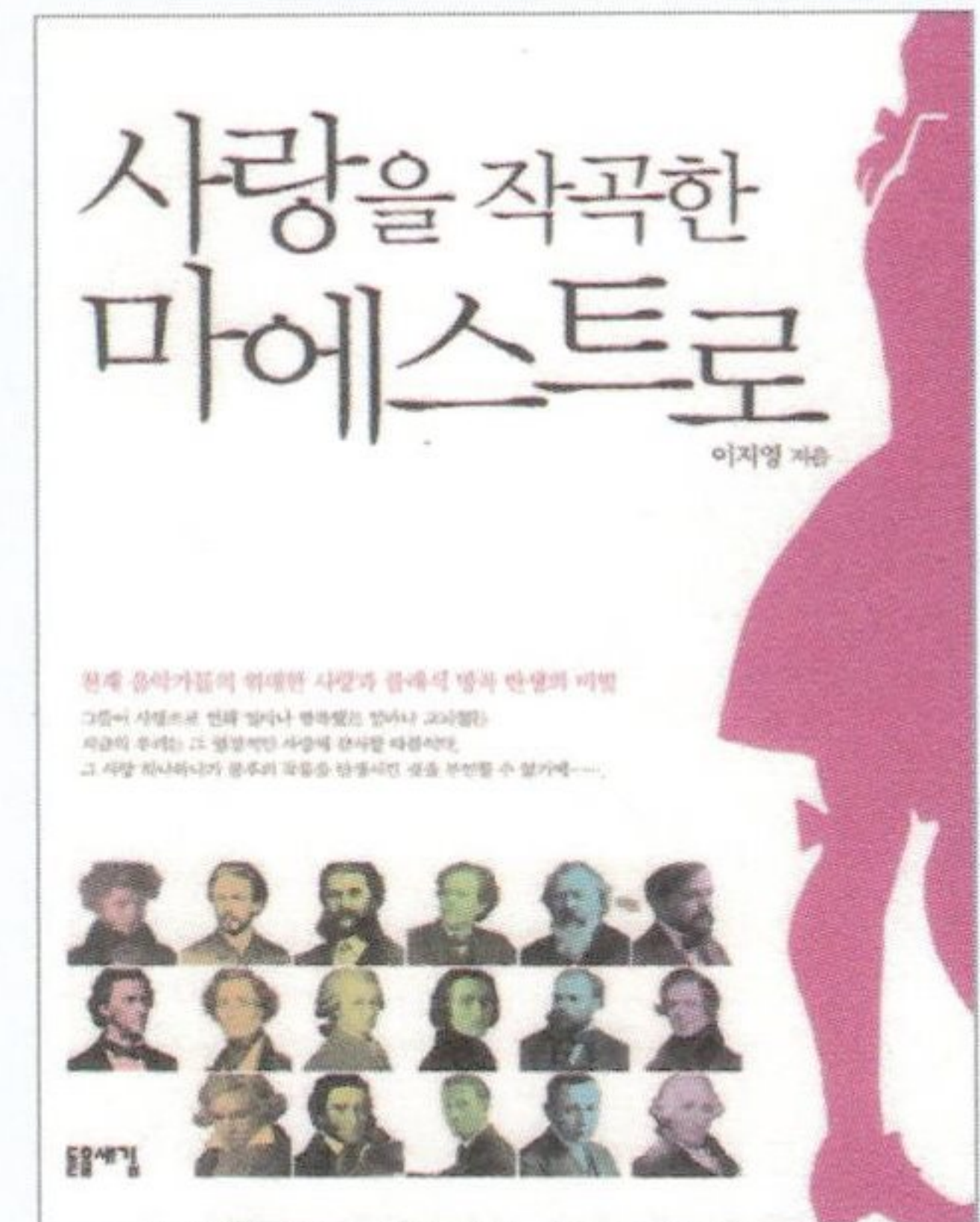
백남준의 연인이자 아내이자 예술적 동반자로 40여 년을 함께한 구보타 시게코가 생생한 육성으로 백남준과 함께한 삶, 사랑, 예술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백남준의 삶을 재구성하고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살려본다. 열여덟에 고향을 떠나 세계를 떠돌며 살아온 백남준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예술가가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극적인 삶,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라는 명성 뒤에 가려진 백남준의 땀과 눈물, 가난과 외로움, 좌절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들의 사상을 관통했던 플럭서스(Fluxus) 운동에 얽힌 수많은 예술가들과 에피소드도 들려준다. 독일에서 태동한, '흐름'이라는 뜻의 이 운동은 의외성을 기초로 한 반자본주의적 성향의 예술적 행동주의로 정의된다. 한국 최초의 '재벌'로 불렸던 백낙승의 막내아들로 태어났지만 형들의 연이은 사업실패로 가산을 탕진해 가난과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시간, 재료에만도 큰 비용이 소요되는 비디오 아트를 했던 탓에 늘 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삶, 그리고 왼쪽 팔다리가 마비된 채 구겐하임 프로젝트인 <야곱의 사다리>를 힘겹게 완성해낸 일화는 백남준이란 거장 이면의 고뇌와 고통이다.



예술가의 탄생

유경희 지음
아트북스 / 317p / 16,000원

미학자 유경희가 구스타프 클림트, 조지아 오키프, 프리다 칼로, 잭슨 폴록, 폴 고갱, 앤디 워홀 등 세계적 예술가 13명에게 창작의 욕망을 불태울 영감을 준 매혹적 뮤즈의 존재를 소개한다. '뮤즈(Muse)'는 제우스가 기억의 여신 므네모시네와 동침해 낳은 아홉의 자매로 올림포스 신전에서 아폴론을 도와 음악을 연주하는 등 세상의 온갖 예술을 담당하게 된 여신들을 일컫는다. 이 책에서 '뮤즈'는 예술가들이 지닌 창작의 욕망에 불을 붙이고 고무하는, 즉 영감을 고취하는 그 무엇이다. 저자가 예술가들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역사가 사랑에 미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예술은 뮤즈라는 존재 없이는 한 치도 진보할 수 없다"이다. 뮤즈는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인 양상으로 드러난다. 어떤 예술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 또는 이를 수 없는 사랑이 뮤즈가 되기도 한다. 때로는 신체적 아픔과 고통, 장애를 창작의 근원으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철학 자체를 예술의 근원으로 삼은 예술가도 있다. 예술적 영감의 점화제가 된 사람과의 관계부터 그가 원했던 이상과 그에 대립된 현실, 그가 운데 탄생한 예술의 가치를 짚어보고 있다.



사랑을 작곡한 마에스트로

이지영 지음
돋을새김 / 272p / 13,000원

평범한 작곡가였던 24살의 베를리오즈는 1827년 파리의 오데옹 극장에서 영국극단이 초연한 <햄릿>에서 오페리아를 연기한 해리엇 스미스슨에게 한눈에 반해버렸다. 유명 여배우에게 5년 동안 끊임없이 편지로 구애를 펼친 그는 당시의 사랑과 고뇌, 망상과 꿈을 이야기로 엮어 곡을 만들어냈다. 베를리오즈의 대표작인 <환상 교향곡>이 그것이다. 플루티스트 이지영이 클래식 거장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랑 이야기를 통해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의 세계로 안내한다. 드러낼 수 없는 동성애에 아파했던 차이코프스키, 은사의 아내를 사랑했던 브람스, 친누나를 사랑했던 멘델스존, 많은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지만 결국은 사제가 된 리스트, 사랑하는 여인의 언니와 결혼한 하이든. 그들을 세계적인 음악가로 만든 것은 영혼을 뒤흔든 여인들에게 바친 사랑이었다. 저자 이지영은 위대한 작곡가들이 그들의 연인에게 바치는 명곡과 그에 얽힌 숨겨진 사연, 음악적 느낌과 해설을 상세히 전달해준다. 이 책을 읽다보면 단순히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의 사랑이야기 뿐 아니라, 클래식 음악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감수성을 이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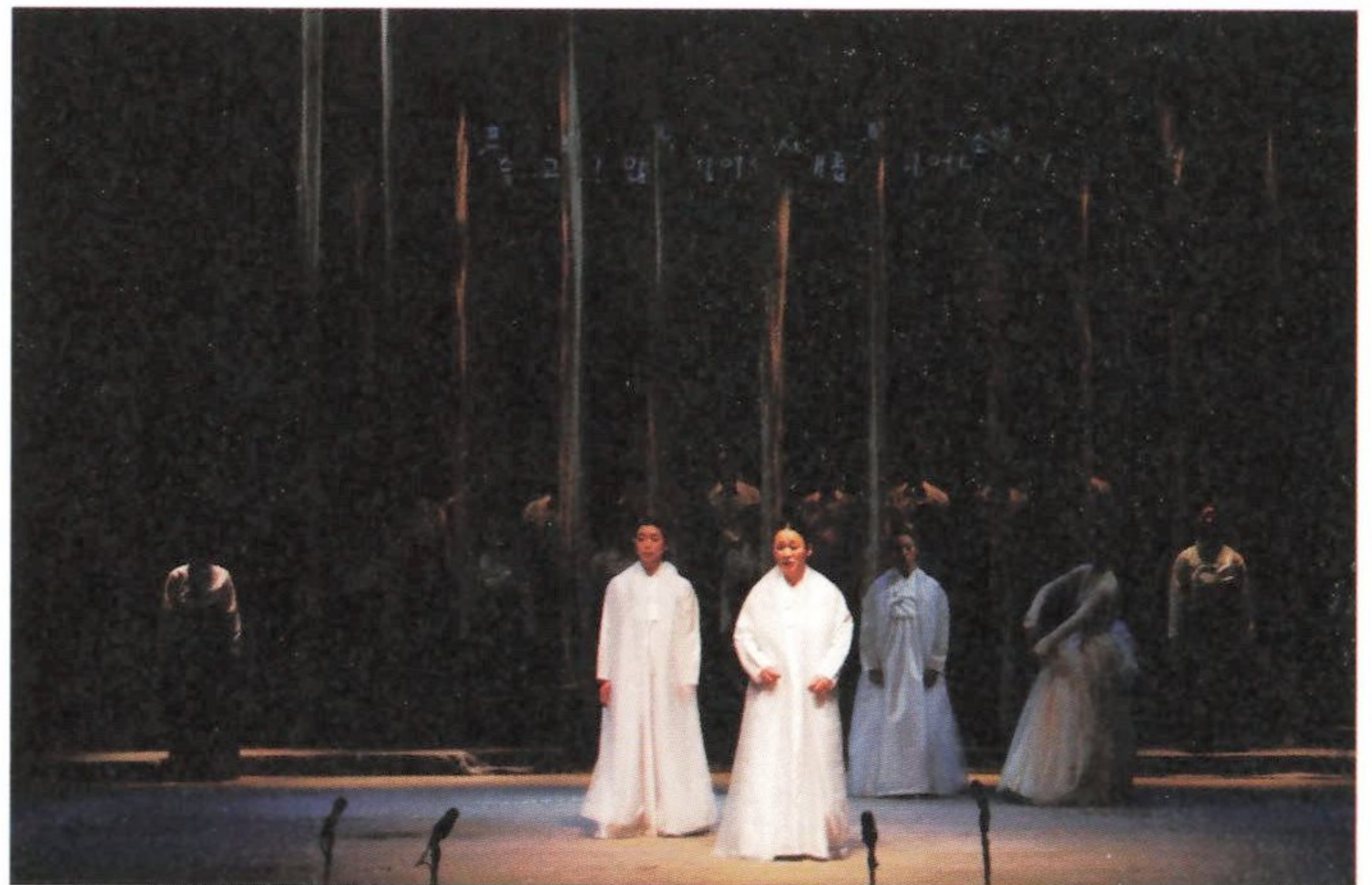
부산시립합창단 서울 공연 길에 오르는 오페라 음악극 '梨花이야기'

9월 15일 수요일 오후 8:00 충무아트홀

3월 부산시립합창단 제 132회 정기연주회 무대로 올려져 화제를 모았던 <오페라음악극-이화이야기>가 9월 15일 충무아트홀에서 초청공연을 갖는다.

2010년 발족한 사단법인 송의문화재단 출범을 기념하는 초청공연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무대는 전쟁은 끝이 났지만 우리 속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잊혀 지거나 묻어버릴 수 없는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을 과감하게 재조명한 이용주의 오페라 음악극이다.

수석지휘자 김강규를 비롯한 부산시립합창단 단원들은 부산 무대의 감동을 서울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현하기 위해 땀 흘리고 있다.



9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9월 공연 일정이 확정되었다. 두송중학교, 물운대초등학교 등에서 열리는 청소년을 위한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을 비롯해 내사랑 부산공연, 근로자를 위한 활력공연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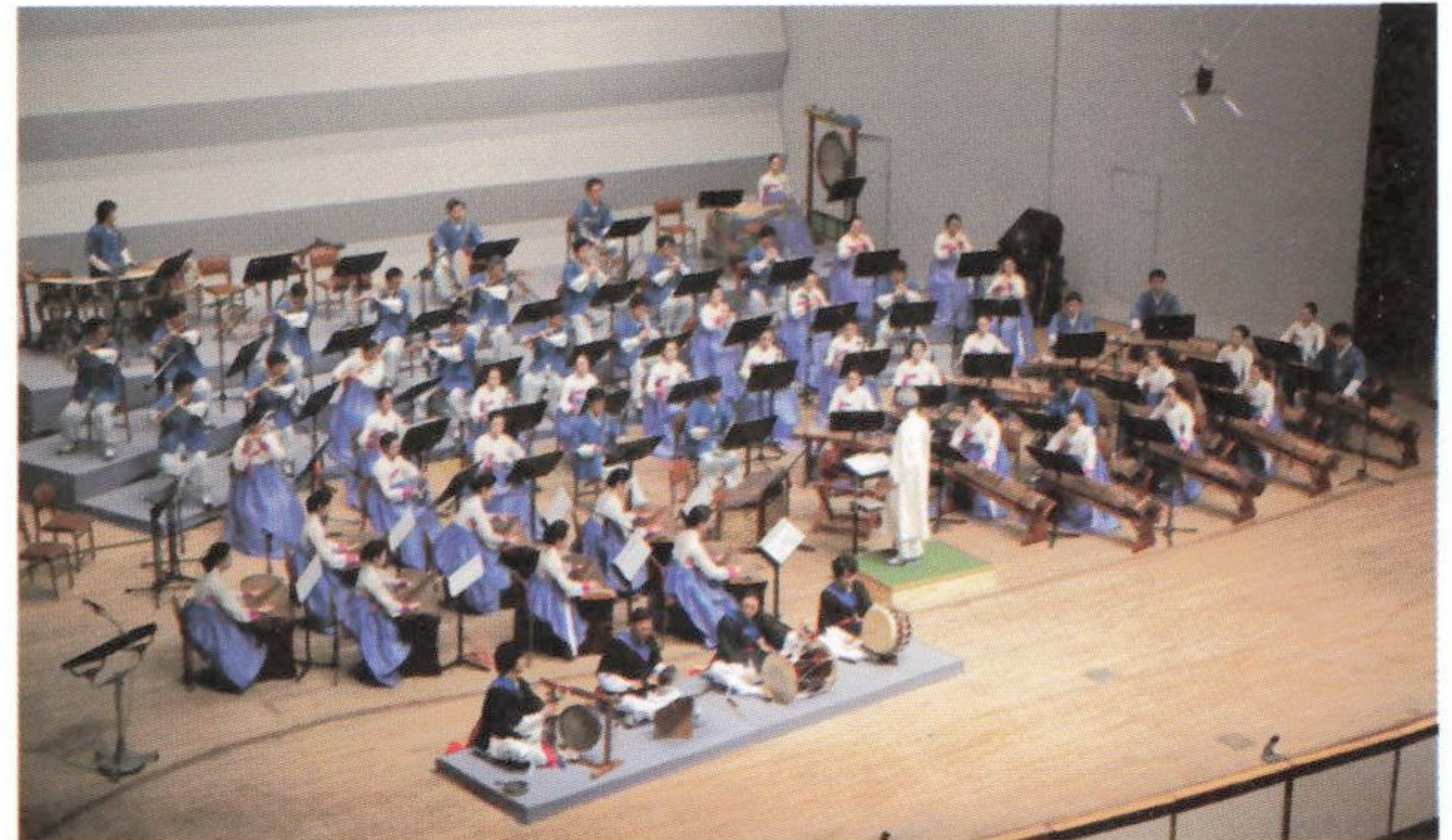
- | | |
|-------------------------|---|
| 9월 2일(목) 오후 7:00 | 연산동 농협 근로자를 위한 활력공연 '농협콜센터 직원과 함께' (출연/교향악단) |
| 9월 3일(금) 오후 2:00 | 두송중학교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두송중학교와 함께' (출연/국악관현악단) |
| 9월 6일(월) 오전 10:40 | 물운대초등학교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물운대초등학교와 함께' (출연/무용단) |
| 9월 8일(수) 오후 12:30 | 시청로비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 (출연/극단) |
| 9월 9일(목) 오전 10:30 | 부산두레학교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부산두레학교와 함께' (출연/교향악단) |
| 9월 11일(토) 오전 10:00 | 구덕운동장 내사랑 부산공연 '서구 그린스타트 축하 공연' (출연/국악관현악단, 교향악단) |
| 9월 11일(토) 오후 4:30, 7:00 | 구덕야영장 내사랑 부산공연 '구덕골 문화제공연' (출연/국악관현악단, 무용단) |
| 9월 28일(화) 오후 7:00 | GS홈쇼핑 근로자를 위한 활력 공연 'GS홈쇼핑 직원들과 함께' (출연/교향악단)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34회 청소년 협연의 밤 협연자 모집

- **공연일시** 2010년 10월 21일(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자 모집개요 •

- **대상** 전국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학중인자로 학교장(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응시곡목** 협주곡(자유곡) 1곡
- **전형위원** 7명
- **모집부문** 전파트(관악, 현악, 타악, 성악, 특수악기-생황, 비파, 양금)
- **모집인원** 6명 이내



• 전형개요 •

- **전형일자** 2010년 9월 8일(수) 오전 10:00
※ 전형자는 오디션 당일 오전 9:00까지 대기실에 입실 완료(추첨)
- **전형장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습실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10년 8월 23일(월) - 9월 6일(월)
※ 우편접수는 2010년 9월 6일(월) 오후 6: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학교장(학과장) 추천서 1부, 응시곡목 악보 7부, 본인 프로필 1부, 사진 1매
- **합격자 발표** 2010년 9월 13일(월) 오전 10:00,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접수 및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051-607-3121~4)

부산문화회관 셔틀버스 이용안내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출발지**: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7번가 피자 앞) 출발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요일 19:00(공연 있는 날에 한함)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222)



충절의 고장 의령으로 떠난 여름여행

알곳은 날씨라도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사람들, 여행의 참맛을 하는 42명 정기회원 가족들이 이른 아침 부산문화회관에 모여들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54번째 여행지는 충절의 고장 의령. 출발 전 태풍 '덴무'의 영향으로 약한 빗줄기가 계속이지만 아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번 의령여행에는 부산시립합창단 소프라노 이찬미, 테너 이재원이 동행했다.

부산문화회관을 출발한지 한 시간 반 남짓 되어 광재우 장군과 17장령을 모신 충익사에 도착했다. 의령은 임진왜란 때 광재우 장군이 1592년 음력 4월 22일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곳이다. 의령문화관광해설사 정종규 선생의 안내로 의병탑과 사당, 충의각,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1972년 군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의병탑은 의병의 고장 의령의 상징이다. 양쪽 기둥을 둥근 고리로 층층이 쌓은 의병탑의 높이는 27m, 가운데 둥근 18개의 백색환은 광재우 장군과 17장령을 뜻하고 양쪽 기둥의 팔자형은 햇불을 상징한다.

기념관에는 의병장 의도, 기강나루 전투, 정암진 승전도 등

망우당 광재우 장군의 전적도 5폭과 보물 제 671호로 지정된 장검 등 유물, 유적지 사진 등이 소장 전시되어 있다.

“어린이 여러분, 흰 말을 탄 홍의장군 기마도를 유심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으로 말도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홍의장군님의 혼을 담아 그린 그림이죠.”

충익사를 돌아보는 동안 광재우 장군과 17장령, 무명의병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피부로 느껴진다. 광재우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의병을 일으킨 6월 1일(음력 4월 22일)을 ‘의병의 날’로 정하고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움직인 의령군민들의 저력이 그대로 전해진다.

기념관을 나와 의령천을 따라 난 산책로를 잠시 걷다보면 의령의 또 하나의 명물 구름다리가 눈에 들어온다. 구름다리는 충익사, 광재우생가와 함께 의령 제 1경으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총 연장 길이가 258m, 넓이가 2m, 출렁다리 길이 120m를 자랑하는 의령구름다리는 의령천의 맑은 수면이 그대로 내려다보인다. 수면에서 그 높이가 20m로 현기증이 날 정도이지만 사방을 둘러보면 주변의 자연경관이 한눈에 들어와 흡사



전망대에 올라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처음 구름다리를 오른 회원들이 많아 여기저기서 비명이 쏟아진다. 어린 친구들은 어른들의 그런 모습에 마냥 신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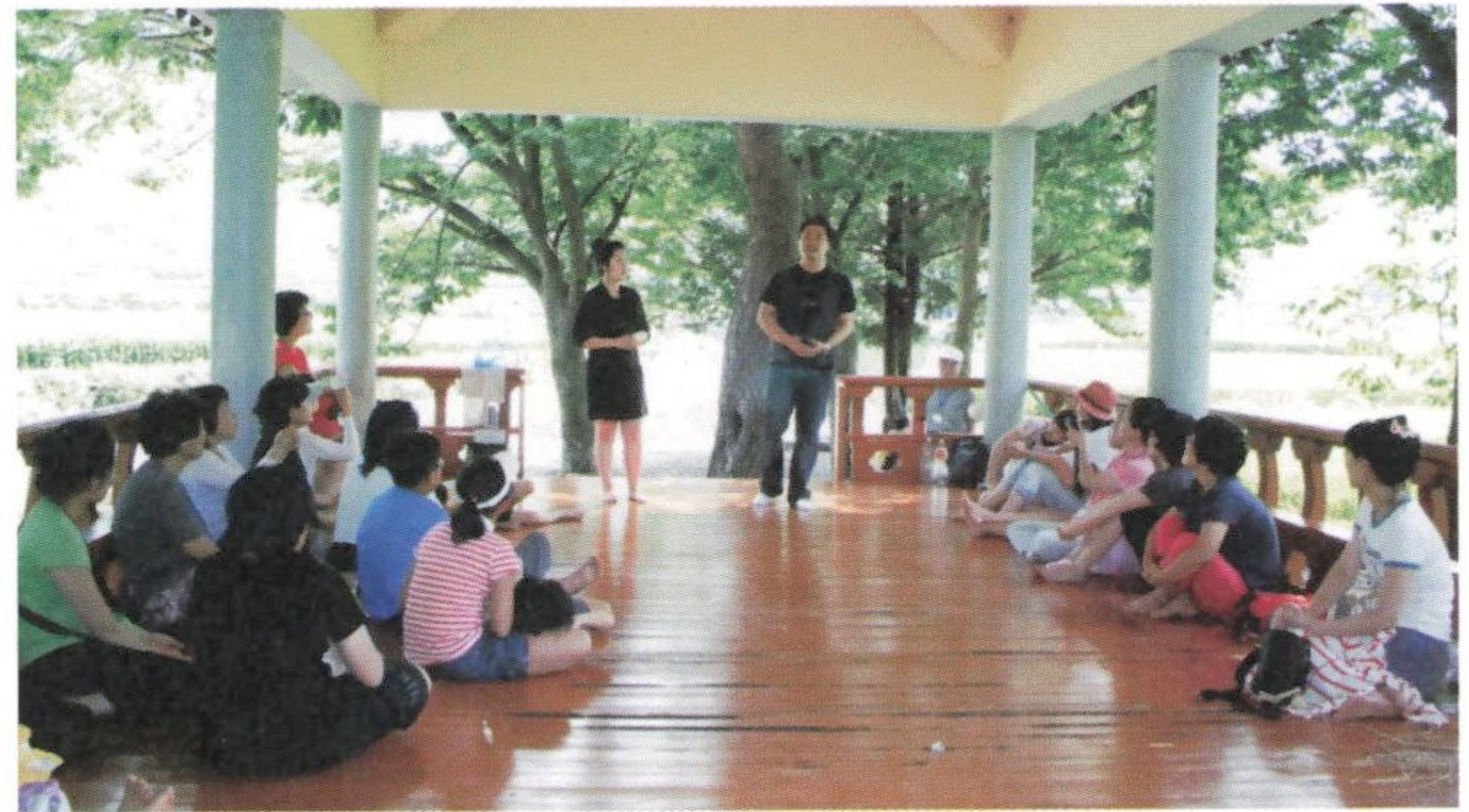
구름다리를 내려와 1경의 마지막 코스인 광재우 생가로 이동했다. 광재우장군을 찾아온 우리들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어느새 비가 그쳤다. 광재우장군이 의병을 일으킬 때 북을 매달았던 나무 현고수(懸鼓樹)와 이웃한 광재우장군 생가는 2005년 복원되었다. 조선 초기 건축양식으로 안채, 사랑채, 별당 등 7동의 건물과 부대시설을 복원한 생가를 둘러보며 때마침 찾아온 잠자리 떼에 어린이들도 신났다.

광재우 장군 생가 답사에 이어 의령 또 하나의 비경인 일봉사로 향했다. 천혜의 자연요건을 갖춘 봉황산에 소재한 일봉사는 대한 불교 일봉선교종 총본산이다. 일반 대웅전과는 달리 2개의 동굴 법당이 있는데 세계 최대 동굴법당으로 영국 기네스 북에 등재되어 있다. 기네스에 등재된 법당의 명성 그대로 법당 안이 넓고 시원해 모두 놀랐다.

점심 식사를 위해 일봉사와 500m 떨어진 산천렵마을로 걸음을 옮겼다. 한가로운 농촌의 소박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산천렵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준비한 시골밥상으로 행복한 점심을 먹고 오후 일정을 시작했다. 의령을 대표하는 체험마을로 유명한 산천렵마을은 마을 전체가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을 회관에서 300m~500m 거리에 짚신공예를 하는 마을 정자와 보리망개떡을 만드는 방앗간, 미꾸라지 체험장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 농로에는 아이들의 물놀이 체험장이 조성되어 있다.

마을 어르신들의 안내로 마을 정자에서 짚신공예가 시작되었다. 서투르지만 12가닥의 짚을 정리해 북소리 만들기에 도전했다. 어르신들의 푸근한 인심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던 북소리가 어느새 완성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합창단 단원들의 음악회. 산천렵 마을 음악회는 살랑 살랑 불어오는 바람과 매미 소리가 음악회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공연장이 아닌 야외에서 정기회원들과 처음 만난 이재원, 이찬미 단원이 얼굴, 오 솔레미오 등에 이어 앵콜로 들려준 곡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 오래도록 잊지 못할 산천렵 마을의 멋진 추억들이 노래처럼 펼쳐진다. 보리망개떡 만들기, 미꾸라지 잡기로 8월의 어느 멋진 하루를 마무리했다.



2010년 10월에는 **영천**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고,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9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9월 테마여행 당첨자

엽서당첨자

고창표(부산진구 부전동)
 김승환(사하구 괴정동)
 김최보리(기장군 기장읍)
 서진태(해운대구 우1동)
 성용호(기장군 기장읍)
 안문희(남구 문현3동)
 이영일(중구 영주동)
 장복순(수영구 남천동)
 조영자(해운대구 주공3단지)
 최향자(연제구 망미동)

신규가입자

김재환(남구 용호동)
 김향연(사하구 괴정4동)
 김현숙(부산진구 연지동)
 박욱(수영구 망미2동)
 송말남(연제구 거제1동)
 유재인(남구 문현동)
 이춘기(수영구 망미2동)
 정정애(수영구 남천동)
 정향기(연제구 연산5동)
 최영민(영도구 청학2동)



부산문화회관

■ 국립오페라단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10월 15일(금)-16일(토)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사랑의 법칙, 사랑에도 묘약이 있다?
'한국 여성 오페라 연출가 1호' 이소영의 야심작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아디나와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네모리노, 싸구려 포도주를 사랑의 묘약으로 알고
마신 네모리노가 2010년 가을, 진정한 사랑의 비법을 전한다.



■ 대전시립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친원의 행복'

10월 26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장윤성(대전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협연/김혜진(피아노)

정상급의 연주력과 뛰어난 기획력이 동반된 고품격의 엔터테인먼트로
한국을 대표하는 특급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한 대전시립교향악단 부산
연주회.

Program

프란츠 리스트/교향시 제3번 '전주곡'

Franz Liszt (1811~1886)/Symphonic poem No.3 'Les Préludes'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18(피아노_김혜진)

Sergei Rachmaninov(1873~1943)/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

로버트 슈만/교향곡 4장조 작품 103

Robert Schumann(1810-1856)/Symphony No.11 in G Major



■ 러시아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린스키 발레단 초청공연 '백조의 호수'

11월 5일(금)~6일(토)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원작/마리우스 프티파, 레프 이바노프(1895), 작곡/표트르 차이코프스키,
예술감독/발레리 게르기예프

키로프 마린스키 발레단이 선사하는 명품 발레 '백조의 호수',

궁중 무도회에서 최고 기량의 무용수들이 펼치는 화려한 춤!

음울하고 신비로운 호수에서 스물네 마리의 백조들이 차이코프스키의 극적인 음악에 맞춰 추는
환상적인 춤은 단연 압권

Program

1막 : 성안 마을 / 왕자의 성인식날

2막 : 숲속의 호수

3막 : 궁전 무도회장

4막 : 숲속 호숫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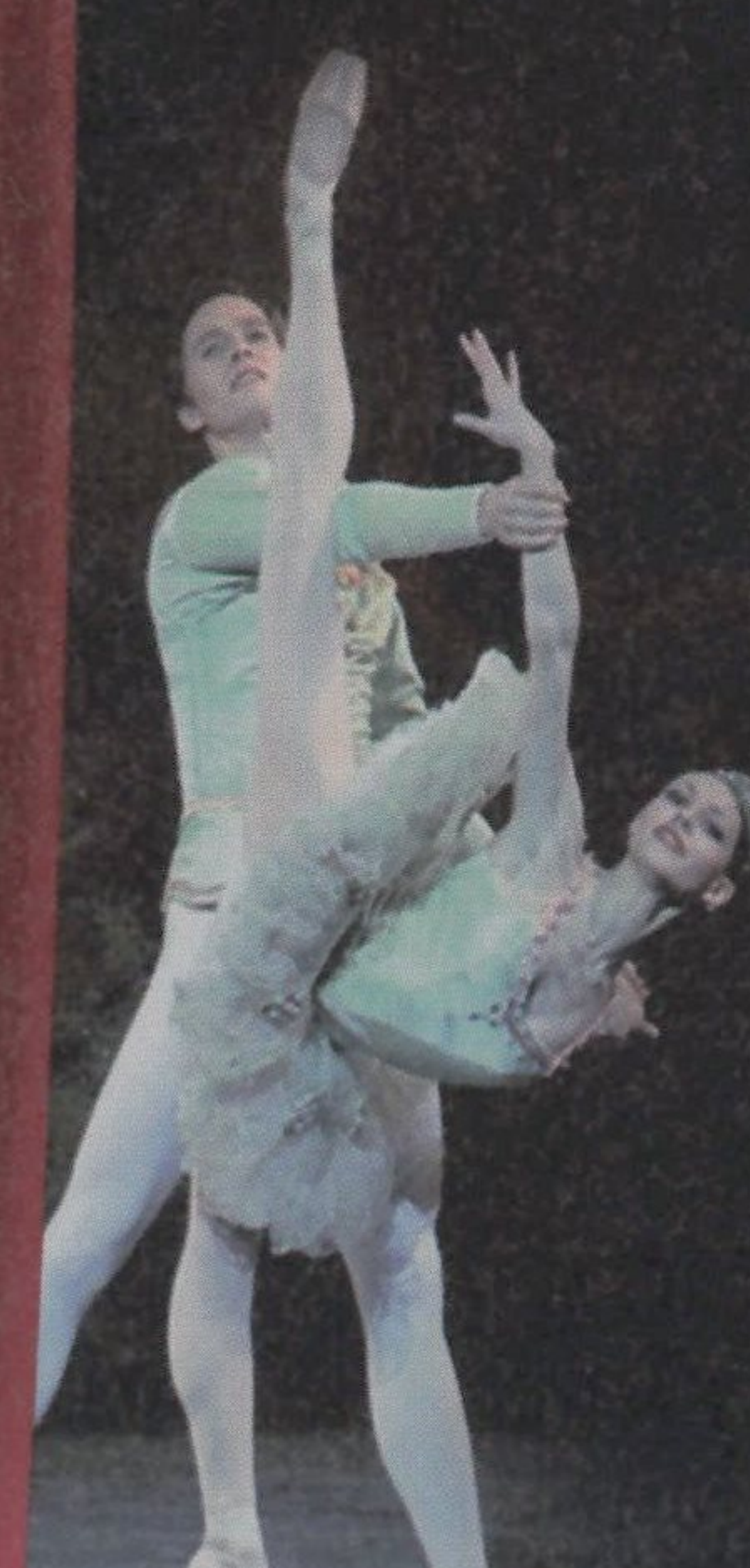


■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1월 26일(금)-28일(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Hot Star! Hot Show! 2010 <브로드웨이 42번가>

유료 객석 점유율 95%, 일일 평균 매출 1억여 원을 연일 돌파하는 고공행진 기록, '한국인이 가장 사랑
하는 뮤지컬'로 다시 한번 그 인기를 입증한 화제작 <브로드웨이 42번가> 부산무대!



재개관 기념 공연

공연문의 _ 부산문화회관(607-6057~8),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607-3100)

■ 영혼의 소리 장사의 소리핀

11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영혼을 울리는 노래, 한국의 혼을 담은 노래로 사랑받고 있는 소리핀 장사의 삶과 죽음을 통한 관조적 태도로 따뜻한 삶의 일상을 노래로 펼쳐며 소통과 교감을 이뤄내고 있는 장사익표 음악. 전석 매진의 신화를 다시 쓴다
- 희로애락과 세상, 우주가 함축된 그의 콘서트는 곱씹을수록 은근한 맛이 계속 우러나온다.
- 삼라만상 자연과 호흡을 맞춘 가락은 부담이 없어 20~90대를 흡입한다.



■ 소프라노 조수미 '독일 기곡 콘서트 Ich Liebe Dich'

12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8년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들려주는 낭만적 정서의 극치, 독일 정통 예술 가곡의 향연!
살인적인 고음과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고난이도 아리아! 오페라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국내초연!
2010년 3월, 발매된 새 앨범, 독일 가곡집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첫 기회!
독일프로젝트 앙상블_ Deutsche Philharmonie Merck와의 감미로운 협연!
원작 시에 충실한 문화적 시정이 담백하고 이지적 선율이 드러나는 예술가곡의 최고봉 독일가곡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만, 멘델스존, 브람스 등 독일의 대표적 낭만파이자 세기의 위대한 작곡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난다.



■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한국인을 주축으로 하여 세계 8개국 출신의 젊은 최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세종솔로이스츠 미국 <CNN>에서 '세계 최고의 앙상블 중 하나'라고 극찬받은 세종 솔로이스츠 드디어 부산 상륙. 1995년 줄리어드 음악원 강호 교수의 지휘 아래 미국, 유럽, 아시아 각지에서 350회가 넘는 연주회를 가지며 전 세계 청중들을 매료
'보기 드문 응집력' 아름다운 음색, 신선한 연주를 보여주는 최고의 앙상블'
'놀랄 만큼 뛰어난 앙상블, 빛나는 명연주'로 전 세계 언론에서 찬사
2004년 '추수감사절' 특별공연은 CNN을 통해 미 전역에 방영
카네기 홀, 링컨 센터의 엘리스 털리 홀, 케네디 센터, 런던 카도간 홀, 파리 살 가보, 일본 산토리 홀, 중국 베이징 중앙 세기극원, 타이완 국립예술극장 그리고 라비니아의 '떠오르는 스타' 시리즈 등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
• 관람료 :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 2010 제야음악회 '기는 해 오는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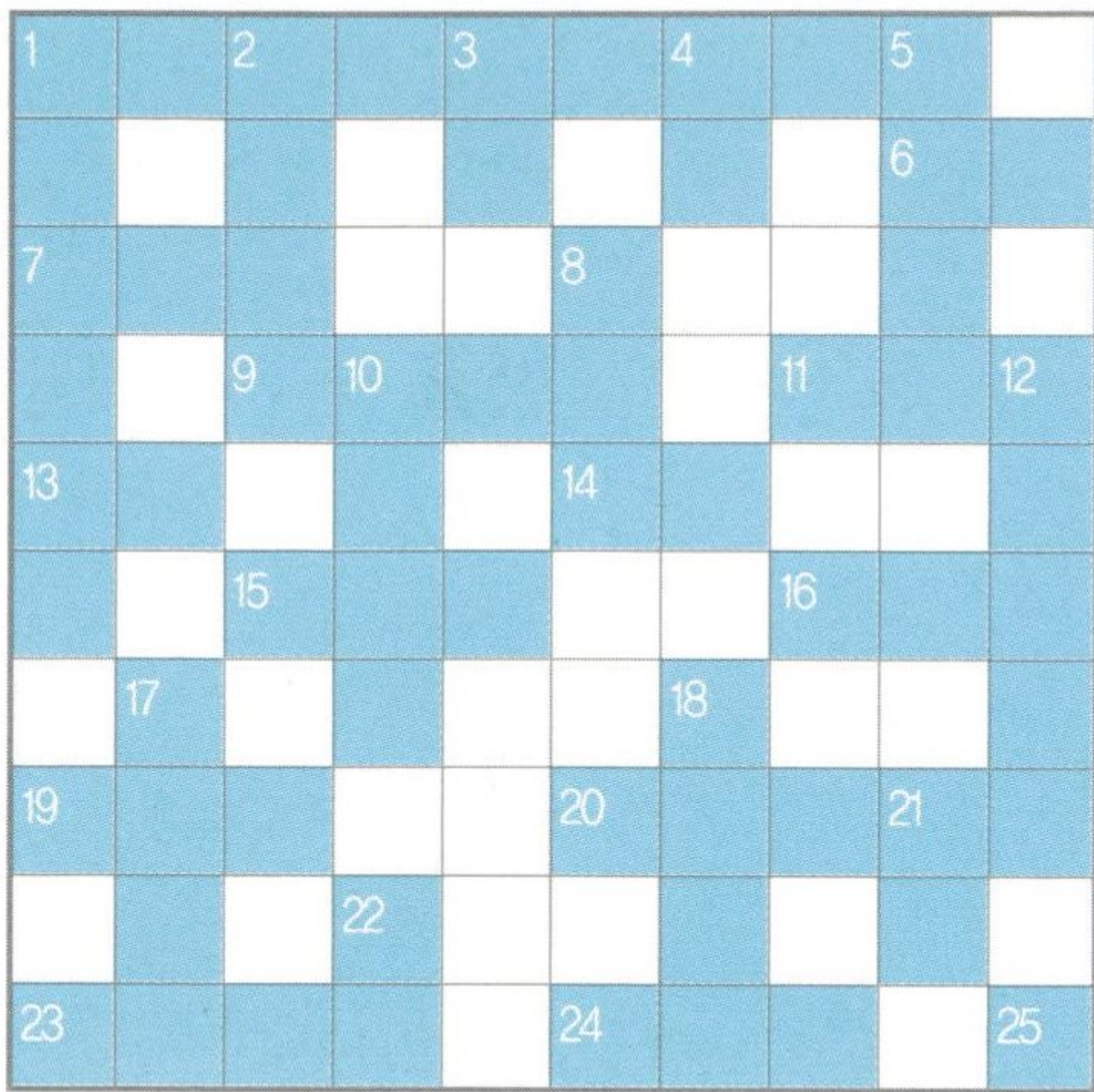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0년의 마지막을 수놓을 제야의 특별한 순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눌 감격적인 클래식 감동!
다사다난했던 2010년의 기억들을 되돌아보며 밝아오는 2011년의 희망찬 시간들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부산문화회관이 선사하는 특별한 음악선물!
제야의 카운트 다운, 소망엽서적기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2011년 희망찬 아침을 연다.



※이 공연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 1_ 9월 8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개막연주를 시작으로 5일간 부산 전역에서 펼쳐지는 국제적인 음악행사.
- 6_우리나라 최대의 국제공항이 자리한 도시로, 2014년 제 17회 아시안게임 개최지이기도 하다.
- 7_다양한 곳을 벌인 후 마지막 과정에서 집안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비는 행위.
- 9_체코민족의 애환을 담은 독자적인 작품(作風)을 이루어낸 체코의 작곡가. 대표작으로 교향곡 제 9번 '신세계로부터', 오페라 '루살카' 등이 있다.
- 11_리드보컬인 짐 모리슨을 주축으로 한 미국의 4인조 록밴드.
- 13_우리나라 현대문학 최초의 심리주의 소설로 일컬어지는 이상의 단편소설.
- 14_고려, 조선시대 기녀들을 중심으로 가무를 관장하던 기관.

- 15_2,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베트남의 수도.
- 16_뮤지컬 '명성황후' '오페라의 유령' '렌트' '시카고' '아이다' 등의 음악감독을 맡은 호원대학교 뮤지컬과 교수. 최근 TV 모 예능프로그램의 합창단 음악감독을 맡아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큰 인기를 모았다.
- 19_조선시대 그림 그리는 일을 담당하던 관청. 17세기 정선, 18세기 김홍도(金弘道) 등이 이 곳을 통해 배출되었다.
- 20_인간과 기계와의 대항을 그린 제임스 카메론 감독, 아놀드 슈워제네거, 린다 해밀턴 주연의 SF영화.
- 23_'사기'에서 출전된 고사로, 자기가 배운 것을 올바르게 펴지 못하고 그것을 굽혀가면서 세속에 아부하여 출세하려는 태도나 행동을 가리킨다.
- 24_'오페라의 왕'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작곡가. 대표작으로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오텔로' '나부코' 등이 있다.
- 25_난초의 포기를 세는 단위.

세로열쇠

- 1_올해로 10년을 맞는 부산의 격년제 통합미술제. '진화 속의 삶'이라는 주제로 9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과 광안리해수욕장, 수영요트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 2_스페인의 수도.
- 3_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시대를 대표하거나, 유례가 드물고 우수하며 특이하거나,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가치가 큰 문화재. 제 1호 송례문을 비롯해 현재 지정된 이 것의 수는 415호에 이른다.

- 4_일정한 음정의 순서로 음을 차례로 늘어놓은 것. 동양음악은 5음, 서양음악은 7음을 기초로 한다.
- 5_영국의 여류작가 샬럿 브론테의 장편소설. 1847년 출판 당시, 이 작품의 낭만적인 내용과 정열에 불타는 작중 인물, 당시의 인습적인 도덕에 대한 대담한 반항 등으로 일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 8_음력 칠월 칠석날 저녁 견우와 직녀 두 별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까마귀와 까치가 자기들의 몸을 죽이 대어 만든다는 다리.
- 10_'새로운 경향' '새로운 감각'을 뜻하는 포르투갈어. 삼바에 모던재즈의 감각이 가미된 새로운 대중음악이다.
- 12_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 17_부산문화회관이 마련하는 문화예술 교육강좌. 9월 1일부터 두달간 펼쳐지는 이번 강좌에서는 철학자 강유원, 문화평론가 김갑수, 동화작가 박경호, 문화유산해설가 최승욱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 18_프랑스의 영화 카메라 겸 영사기 발명가 형제. 기계 제작자인 동시에 제작, 흥행, 배급 등 현재의 영화제작 보급형태의 선구적 역할을 한 영화의 시조이다.
- 21_개봉 21일만에 관객 300만명을 돌파한 강우석 감독의 영화. 윤태호의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주인공이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을 파헤치는 가운데 거대한 음모가 밝혀지는 액션 스릴러물이다.
- 22_인간의 불완전성과 모순성, 위대함과 비참함을 독특한 문체로 그려낸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의 유고집.

지난호 정답



퍼즐당첨자 명단

■ 부산은행 조은극장

- 김화영(서구 동대신동)
- 박정도(사하구 다대동)
- 신윤숙(연제구 연산 5동)
- 이혜원(부산진구 전포1동)
- 하갑남(동래구 사직동)

■ 공간 소극장

- 김대은(서구 서대신동)
- 도경보(남구 용당동)
- 이창용(해운대구 좌동)
- 이희정(양산시 물금읍)
- 정경란(부산진구 전포2동)

■ 나랏소

- 김미성(사상구 엄궁동)
- 민지원(남구 문현동)
- 우도형(북구 용수로)
- 이중희(수영구 남천동)
- 김은미(사하구 괴정동)

■ 큰집

- 김유정(사하구 당리동)
- 박정은(부산진구 가야동)
- 이예지(동래구 온천1동)
- 정은주(금정구 구서2동)
- 황은미(동구 좌천4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1588-2757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최고급 부산음식 고집만사하
나랏소
만우 숯불구이 음양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0년 9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9월 11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프로그램

Open Stage 고양미 이중창
(Sop. 남순천, Alto 손미숙)

여성합창 Sister Act 중
'I will follow Him' 외
(곡중 solo : Alto 서미선)

남성합창 · Santa Lucia(곡중 solo Bas 이연기)
· Tiri Tamba(곡중 solo Ten. 조성기)
· Funiculi Funicula(곡중 solo 김진영)

팝송합창 · You light up my life(곡중 solo Alto 김윤희)
· What a feeling(곡중 solo Sop 이찬미)

이중창 향수(Ten. 김추리, Bar. 오승중)

가을가곡 연곡

9월 18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라장조 '잘츠부르크 교향곡 제1번' 작품 136

가르델 간발의 차 (영화 '여인의 향기' 중 '탱고')

이병우 돌이킬 수 없는 걸음(영화 '장화 홍련' 중)

엔니오 모리코네 영화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오보에 연주/박소담)

드보르작 유모레스크 작품 101-7, 현악4중주 제 12번 바장조 '아메리카'
작품 96 중 제 4악장

요한 세바스찬 바흐 G 선상의 아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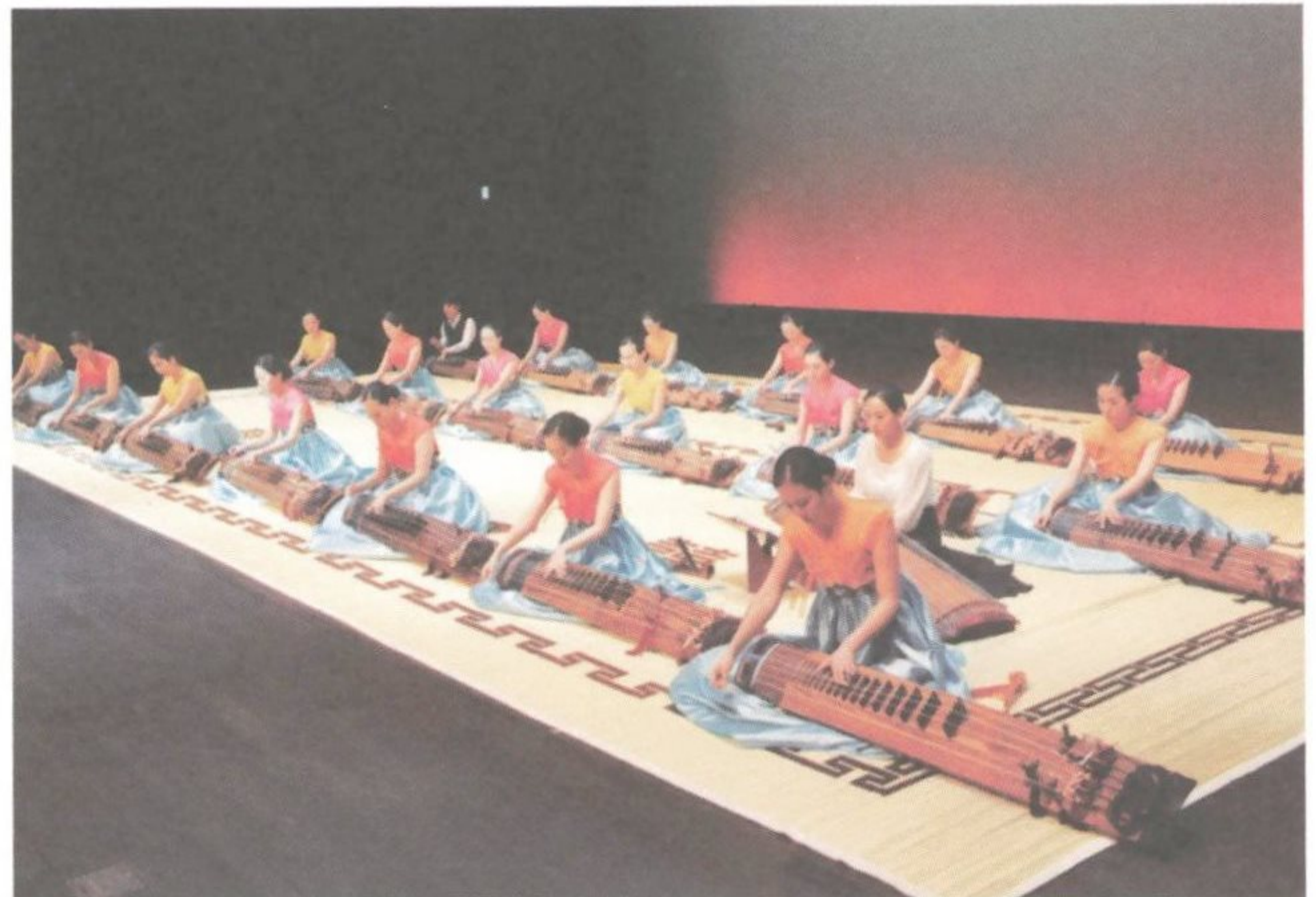
슈트라우스 형제 형제(요한 2세 & 요제프)/피치카토 폴카 작품 234 등

· 연주 _ Violin I/김나영, Violin II/정아람, Viola/조한나, Cello/김기량

· 특별출연 _ Oboe/박소담(부산시청소년교향악단 단원)

9월 25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거문고악회 연주회



프로그램

짧은 영산회상 (연주/김나영, 김명희, 김수민, 이해영, 이선주, 최경철, 송다솔, 차근혜, 배유경, 김아람, 주세형, 신아진, 김현경, 이진주, 김민지 외)
40여분 길이의 영산회상에서 반복되는 선율을 들어내고, 원곡의 특징을 충실히 보여 줄 수 있는 선율로 재구성 하였다.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제주 (거문고/김나영, 김명희, 이선주, 최경철, 신아진 · 장구/하정희)

남도무속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산조는 생생한 인간내면 세계를 그리고 있는 음악이다. 백낙준으로부터 시작된 거문고 산조는 거문고 특유의 성음으로 다른 산조와 다른 깊은 맛이 있다. 특히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는 힘찬 술대법과 굴곡이 많은 가락이 일품이다.

거문고 가야금 이중주를 위한 달무리 (거문고/백민정, 임지현, 김나영, 김명희, 김수민, 이해영, 이선주, 송다솔 · 가야금/김지영, 이선혜, 서희)

거문고의 중후한 음색으로 달에 대한 신비로움을 표현한 곡으로 가야금과의 이중주로 새롭게 편성하였다. 1악장 '달빛'은 그리움과 연민, 2악장 '달맞이'는 달을 맞는 즐거움과 놀이, 3악장 '달무리'는 달무리의 환희와 신비로움을 표현하였다. 靑 淸 淸 (거문고 솔로/권은영 · 거문고1/김수민, 김나영, 최경철 · 거문고2/이혜영, 이선주, 송다솔 · 첼로/최지혜)

협주곡 형식으로 작곡된 소박하고 아름다운 곡이다. 독일민요 '소나무야 소나무야'(O Tannenbaum)의 친근한 선율이 거문고의 진중함으로 표현되어 다양한 변화 속에 한결같이 푸르름을 간직하는 소나무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출강 (거문고/김나영, 김명희, 김수민, 이해영, 이선주, 최경철, 송다솔, 차근혜, 배유경, 김아람, 주세형, 신아진, 김현경, 이진주, 김민지, 정주은, 최연지)
고구려 벽화에서 볼 수 있는 호방한 북방계의 기상을 담은 곡으로, 만주벌판을 누비고 다니던 우리 조상들의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10월 8일 (금) 별빛이 아름다운 영천 가을 여행



시안미술관

‘별의 수도’ ‘별의 도시’ 영천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포은 정몽주를 배향하는 임고서원을 시작으로 폐교에서 아름다운 미술 휴식공간으로 변신한 시안미술관, 영천의 자랑 별빛 포도 수확 체험, 영천 와이너리 체험으로 가을을 만끽한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영천도착, 영천 와인 학교, 포도따기, 와인체험
- ▷ 12:00 중식
- ▷ 13:00 임고서원, 조양각, 시안미술관 등 방문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 만남
- ▷ 17:00 부산으로 출발

▶ 11월 12일 (금) 통영문화 예술기행



윤이상 기념관

가을 빛으로 물든 한려수도의 심장 통영으로 떠나는 문화예술기행. 작곡가 윤이상, 시인 유치환, 김상옥, 김춘수, 극작가 유치진, 소설가 박경리, 화가 전혁림 등 위대한 예술가들의 숨결을 느껴본다.

- ▷ 07: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통영도착, 청마문학관, 동피랑 벽화골목, 한산대첩 이순신광장, 중앙시장
- ▷ 12:00 중식
- ▷ 13:00 박경리 생가, 김상옥생가, 페스티벌하우스, 윤이상 생가 등 탐방
- ▷ 15:00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체험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 만남
- ▷ 17: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3

정재형이 만드는 음악회
Le Petit Piano 그 첫 번째...

2010. 9.10(금)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 607-6058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WineBeer치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 628-2592

윤순웅의 '엄쟁이 유씨' 20% 할인



2010. 9.16(목) ~ 10.3(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21일~22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30,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10. 1. 1(금)~12. 31(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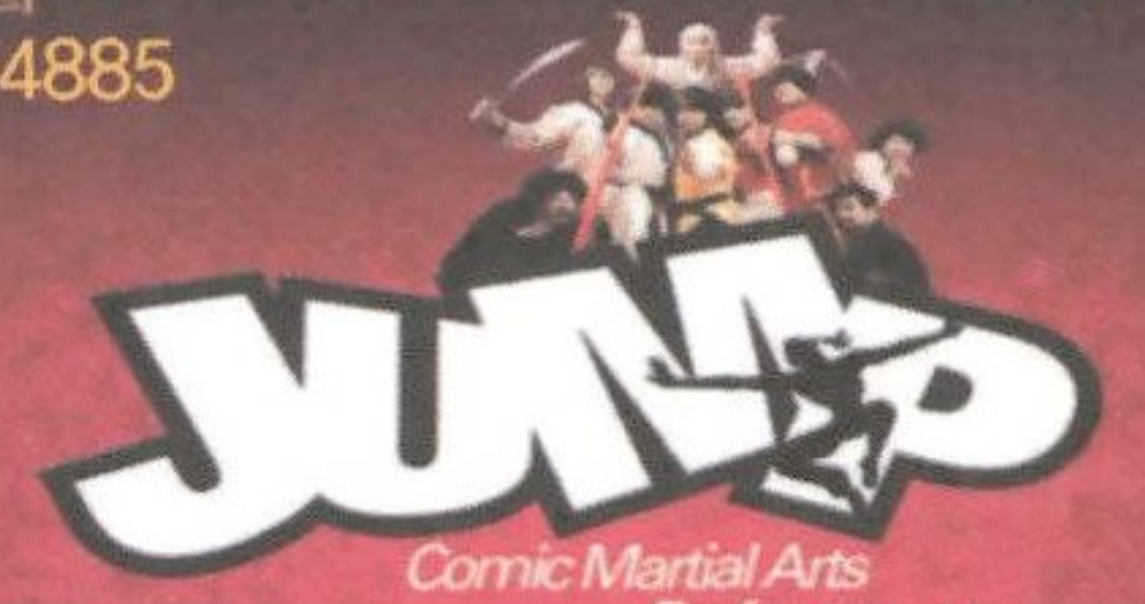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 쿠폰 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744-4885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IBK 해운대 그랜드호텔 B1 : 50,000원(R석) / 40,000원(S석)

※ 쿠폰 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 무료 체험권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금경 (한식퓨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박물관 옆 ☎ 051-611-1960

예매 및 문의
051)804-2252

부산비행극단
THEATER
서면 구.은아극장

비보이를 사랑하는
발레리나

20%할인

▶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화~금 20시 / 토 16,20시 / 일 및 공휴일 15,18시(월 휴관)

* 쿠폰 제시 시 1인 4매까지 할인/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타 할인과 중복 불가

창작가족 오페라

공작쥐 드쥐

원작 : 전래동화



지휘 : 전상철(수석지휘자)
연출 : 오정국
작곡 : 최석태

2010. **9. 11**(토)~**12**(일) 오후 5:00 (2회 공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입장료 균일 5,000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0 웰빙콘서트 시리즈Ⅲ

11시에 만나요

Dance in Classic

미뉴에트와 스키르초 교향곡의 식구가 된 댄스

- 모차르트 /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터키」
- 헨델 / 수상음악 모음곡 제1번
-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9번
- 모차르트 / 교향곡 제39번
- 라모 / 우아한 인도의 나라
- 멘델스존 / 한여름밤의 꿈
- 베토벤 / 교향곡 제1번



안무 및 댄스
김희쟁



바이올린
이은옥



해설 및 진행
김문경



지휘
이동신

2010. 9.30 목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입장권 균일 10,000원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은 20% 할인 (단, 매수 제한이 있음)

문의 607-3111~3(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0(홍보마케팅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부산은행 전지점